



한 · 인도

금융산업 협력 확대방안:
은행, 증권, 보험

이 웅 · 최호상 · 정무섭 · 서대교

한·인도 금융산업 협력 확대방안: 은행, 증권, 보험

이 웅 · 최호상 · 정무섭 · 서대교

국문요약

2011년 우리 금융권의 순이익은 사상 최대인 3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그러나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며, 특히 수익 변동성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국내 금융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금융산업은 수익기반의 차별화와 다각화가 절실히 요구되며, 그 방편의 하나로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나 상대적으로 금융산업이 뒤쳐져 있는 신흥시장 위주의 해외진출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신흥시장 중 하나인 인도의 금융산업과 금융시스템을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 금융기관의 인도 진출 확대전략을 제시하며, 한국과 인도의 금융산업 협력에 관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 데 있다. 특히 본 연구는 한·인도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를 활용하여 거대시장인 동시에 잠재력이 풍부한 인도 금융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금융기관을 위해 인도의 금융시장 정보와 인도 진출에 대한 전략 제시 및 협력 방안에 대해서 조사, 분석하였다.

주 내용은 2, 3, 4장이고, 제2장은 은행부문, 제3장은 증권부문, 제4장은 보험부문을 다루고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은행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은행 관련 시스템과 투자여건을 조사한 후 한·인도 양국간 금융산업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제3장은 인도 증권산업의 발전과정과 현황을 짚어보고 증권시장의 경쟁 현황을 조사한다. 또한 제3장은 인도 증권회사들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 금융회사의 인도 진출 시 참고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업전략 측면 및 정부정책 측면에서 한국과 인도의 증권산업 협력 확대방안도 제시한다.

제4장은 인도 보험산업의 개요, 보험시장에 대한 투자여건, 선진국 보험회사의 인도 진출사례를 살펴보고, 한국 금융기관의 인도 진출 보험회사 현황과 과제 및 향후 효과적인 인도 보험시장 진출방안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한국 금융기관의 인도 금융산업 진출 및 한·인도 금융산업 협력 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 국문요약	3
■ 제1장 서론	11
1. 연구 배경	12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3
3. 연구방법 및 구성	14
■ 제2장 인도의 은행산업	17
1. 인도 은행산업 현황	18
가. 개요	18
나. 기회요인	19
다. 위협요인	21
라. 은행산업의 구조	25
마. 은행산업 감독기구와 내용	29
바. 글로벌 금융위기와 인도의 은행산업	30
2. 인도 은행산업 시스템과 투자여건	33
가. 금융개혁의 내용	33
나. 은행산업 진입 규제 완화	39
다. 산업조직의 효율성 평가	42
라. 인도 은행산업 규제에 대한 평가와 과제	50
3. 한·인도 은행산업의 협력방안	55
가. 국내의 은행의 인도 진출 현황과 과제	55
나. 향후 효과적인 인도 은행산업 진출방안	62

Ⅰ 제3장 인도의 증권금융산업	67
1. 인도 증권금융시장 및 제도의 발전과정	68
가. 인도 증권금융시장의 발전과정	68
나. 증권금융제도의 발전과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	71
2. 인도 증권금융시장 및 증권회사 경쟁 현황	79
가. 발행시장	80
나. 유통시장	83
다. 증권회사(뮤추얼펀드) 경쟁 현황	88
3. 주요 증권사 사례 분석	95
가. 외국·인도 합작투자형 증권회사	96
나. 인도 로컬 증권회사	101
다. 외국 단독투자형 증권회사	105
4. 한국의 인도 증권산업 진출 확대방안	108
Ⅰ 제4장 인도의 보험산업	113
1. 인도 보험산업의 개요	114
가. 현황	114
2. 인도의 보험시장과 투자여건	132
가. 보험시장 개혁(2000년)의 내용	132
나. 보험산업의 규제 내용	134
다. 인도 보험시장의 환경 분석	137
3. 한·인도 보험산업 협력 확대방안	148
가. 인도 진출 한국 보험회사의 현황과 과제	148
나. 향후 효과적인 인도 보험시장 진출방안	149
Ⅰ 제5장 결 론	155

■ 참고문헌	159
■ 부 록	163
부표 1. 증권거래소별 거래량 현황	164
부표 2. 연도별 회사별 평균 운영자산	165
부표 3. 생명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172
부표 4. 손해보험사 지급여력비율	173
부표 5. 생보사 지역별 영업점 분포 현황	174
부표 6. 손보사 지역별 영업점 수	175
■ Executive Summary	179

표 차례

표 2-1.	인도의 소득계층 변화 전망	20
표 2-2.	국영·민간·외국 은행의 수익성 및 건전성 비교	22
표 2-3.	상위 10대 은행의 기본자기자본(Tier 1) 비율 비교	23
표 2-4.	주요 아시아 신흥국의 금융시장 규모 비교	24
표 2-5.	인도 은행산업 및 주요 금융기관 현황	27
표 2-6.	은행 규제의 일반적인 형태	35
표 2-7.	인도의 은행 수 추이	40
표 2-8.	국가 간 은행산업 집중도(3대 은행의 시장점유율) 추이	43
표 2-9.	은행별 대출 및 예금 증감률 추이	46
표 2-10.	2008년 10월~09년 10월간 대출 및 예금금리 인하 폭 비교	46
표 2-11.	지역별 은행계좌 수 추이	53
표 2-12.	인도 진출 외국은행 현황(2011년 6월 말 기준)	57
표 2-13.	인도의 해외은행 진입 규제 내용	60
표 3-1.	연도별 발행 추이	70
표 3-2.	증권금융제도 관련 4대 법률의 주요 내용	72
표 3-3.	SEBI의 주요 규제	73
표 3-4.	규모별 주식 발행시장 건수와 규모	80
표 3-5.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발행 건수와 규모	82
표 3-6.	업종별 발행 건수 및 규모	83
표 3-7.	증권거래소 및 브로커 추이	84
표 3-8.	BSE와 NSE의 평균 주가지수 추이	86
표 3-9.	BSE와 NSE에 등록된 기업 수	87
표 3-10.	인도의 20대 증권회사(Mutual Fund) 현황(2011년 9월 30일 기준)	93
표 3-11.	투자유형별 사례분석대상 기업의 진출 전략과 핵심역량	96

표 4-1. 총수입보험료 비중	114
표 4-2. 인도의 최근 5년 총보험료 성장 추이	115
표 4-3. 2009년 실질보험료 성장 추이	116
표 4-4. 인도의 최근 5년 보험밀도 및 보험침투도	116
표 4-5. 인도의 보험회사	118
표 4-6. 생명보험사 수입보험료 및 시장점유율	120
표 4-7. 생명보험 신계약 건수	120
표 4-8. 인도에서 영업 중인 생명보험사	121
표 4-9. 인도의 민영 생명보험회사 연도별 보험료 및 시장점유율 추이 ...	122
표 4-10. 생명보험사 영업점 수	123
표 4-11. 생명보험사 영업점 분포	124
표 4-12. 인도의 손해보험사 수입보험료 규모(인도 내)	124
표 4-13. 손해보험사 신계약 건수	125
표 4-14. 인도의 손해보험 부문별 수입보험료 규모(인도 내)	125
표 4-15. 인도에서 영업 중인 손해보험사	126
표 4-16. 국영손해보험회사 수입보험료 및 시장점유율(인도 내)	127
표 4-17. 국영손해보험회사 수입보험료(인도 외)	128
표 4-18. 인도의 민영손해보험회사 연도별 보험료 및 시장점유율 추이	128
표 4-19. 건강보험 수입보험료(2004~09년)	130
표 4-20. 인도 생명보험 분야 소액보험 현황(FY2009)	131
표 4-21. 인도 국영 및 민영 보험사의 연도별 보험료 및 시장점유율 추이 ·	133
표 4-22. 인도 진출 국가별 합작사 수	133
표 4-23. 인도의 보험상품 판매 규제	135
표 4-24. 인도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136
표 4-25. 보험회사 투자규제	137
표 4-26. 인도 보험시장 PEST 분석	139
표 4-27. 인도 진출 SWOT 분석	142

그림 차례

그림 2-1.	인도 은행산업의 총자산 추이	18
그림 2-2.	국별 자산 대비 부실채권 비율(2007~09년 평균) 비교	19
그림 2-3.	10만명 당 지점 및 ATM 수의 국별 비교	21
그림 2-4.	인도 정부의 금융산업 2009 로드맵	41
그림 3-1.	인도 주요 증권거래소	69
그림 3-2.	FII 등록 절차	76
그림 3-3.	FII 종류별 서브어카운트 구조	77
그림 3-4.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발행규모 비중	81
그림 3-5.	BSE와 NSE의 시가총액 추이	87
그림 3-6.	BSE와 NSE의 연간 거래금액 규모	88
그림 3-7.	인도 뮤추얼펀드의 총운영자산 규모 추이	90
그림 3-8.	인도의 Top 5 회사와 Top 10 회사의 시장점유율 추이	91
그림 3-9.	유형별 평균성장률과 시장점유율	92
그림 3-10.	자산규모순 20개사 운영자산 비중	94
그림 3-11.	HDFC의 운영자산(AUM)과 전년대비 성장률	97
그림 4-1.	인도의 최근 5년 총보험료 성장 추이	115
그림 4-2.	각국의 보험밀도(2009)	117
그림 4-3.	각국의 보험침투도(2009)	117
그림 4-4.	손해보험 종목별 보험료 비중(FY2009)	126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방법 및 구성



1. 연구 배경

2011년 우리 금융권의 순이익은 사상 최대인 3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¹⁾이나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 주요국²⁾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며, 특히 수익변동성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³⁾ 더욱이 최근 들어 국내 금융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⁴⁾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우리 금융산업은 수익기반의 차별화와 다각화가 절실히 요구되며, 그 방편의 하나로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나 상대적으로 금융산업이 뒤처져 있는 신흥시장 위주의 해외진출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신흥시장 중 인도에 대한 연구다. 인도는 2010년 기준 세계 9위의 경제대국⁵⁾이자 소비의 국내총생산 비중이 약 60%에 이르는 거대한 시장이며, 2000년대 이후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매력적인 시장이다. 하지만 인도 금융산업은 아직까지 외국기업에 규제가 많은 분야인데다 진출한 한국 금융회사의 수도 많지 않아, 인도 금융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의 금융기관들을 위해 철저한 사전조사와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보고서는 신흥시장 중의 하나인 인도의 금융산업과 금융시스템을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 금융기관의 인도 진출 확대전략을 제시하며,

1) 분야별 예상수익은 은행부문이 16조 원, 보험부문이 6조 4천억 원, 증권이 2조 8천억 원, 카드가 1조 4천억 원, 그리고 할부금융 및 자산운용 등이 약 1조 4천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1. 10. 30, 한국금융신문 2011. 11. 21)

2) 여기서 주요국은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한국, 중국, 싱가포르를 지칭한다.

3) 서병호(2011).

4) 신보성(2010).

5) IMF(2011)에 의하면 구매력평가기준(PPP: Purchasing Power Parity)으로 보면 2010년 기준 인도의 GDP는 세계 4위임.

한국과 인도의 금융산업 협력에 관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 데 있다. 특히 본 연구는 한·인도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를 활용하면서 거대시장인 동시에 잠재력이 풍부한 인도의 금융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금융기관을 위한 인도의 금융시장 정보와 인도 진출에 대한 전략 제시 및 협력방안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금융회사의 인도 금융시장 진출을 위해 시장구조, 금융정책, 제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인도 금융시장 관련 선행연구는 대부분 현황 파악을 위주로 하는 보고서다. 최호상(2007)은 인도 금융부문의 현황 및 동향을 분석하고 한국 금융기관의 인도 진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고 노력한 보고서다. 한국증권협회(2008)는 인도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정보 제공과 인도 금융산업 현황, 세제관련정보, 금융산업 규제 및 진입 절차, 외국인투자 현황 및 진입전략에 대해 기술하였다. 최윤정 외(2007)는 인도의 주요 산업 중 한국과 연관성 깊은 산업을 소개했는데 그 중 하나가 금융산업이다. 이 보고서에서 인도 금융산업의 현황, 시장구조, 한국기업과의 연관성을 기술하고 있다. 권기철(2009)은 인도의 금융산업을 제도 위주로 분석했으며, 결론으로는 인도의 법과 제도가 기업환경에 불리하게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을 이룩한 점에 주목하며 향후 법과 제도의 개선이 인도 경제성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학술논문이다.

위의 선행연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의 상황에 기반하여 작성된 것과는 달리, 본 연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및 한·인도 CEPA 체결 후 달라진 현황에 대해 업데이트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한국 금융기관에 보다 효율적인 인도 진출에 관한 정보 및 전략을 제공하며, 인도 중앙은행이 외국계 금융기관을 위해 2009년에 작성한 로드맵의 실질적 이행 및 영향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술한다.

3. 연구방법 및 구성

본 연구에서는 지난 1991년 개방,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0년 한·인도 CEPA 시행 등 일련의 사건 및 제도 변화에 따른 인도 금융산업에 대해 재고찰하고, 이에 따른 한국 금융기관의 인도 진출에 대한 현실성 있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여 한·인도 금융협력의 제고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다.

본 연구는 기존의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에 의한 방법 이외에도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금융기관, 현지 금융회사, 현지 금융관련 연구소 등의 현지 금융업 종사자와 금융 전문가 및 인도 중앙은행(PBI: Reserve Bank of India), 인도 예금보험공사 등과 같은 정부부처의 금융산업 전문 관료 등과의 심층면접을 통해서 문헌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제2장은 은행부문, 제3장은 증권부문, 제4장은 보험부문을 다루고 있다. 먼저 제2장은 은행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은행관련 시스템과 투자여건을 조사한 후 한·인도 양국 간 금융산업의 협력방안을 모색한 장이다.

제3장은 인도의 증권산업의 발전과정과 현황을 짚어보고 증권시장의 경쟁현황을 조사한다. 또한 제3장은 인도 증권회사들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금융회사가 인도에 진출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업전략 측면 및 정부정책 측면에서의 한국과 인도 간의 증권산업 협력 확대방안도 제시한다. 제4장은 인도 보험산업의 개요, 보험시장에 대한 투자여건, 선진국 보험회사의 인도 진출사례를 살펴보고, 한국 금융기관의 인도 진출 보험회사 현황과 과제 및 향후 효과적인 인도 보험시장 진출방안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한국 금융기관의 인도 금융산업 진출 및 한·인도 금융산업 협력 확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제2장 인도의 은행산업

1. 인도 은행산업 현황
2. 인도 은행산업 시스템과 투자여건
3. 한·인도 은행산업의 협력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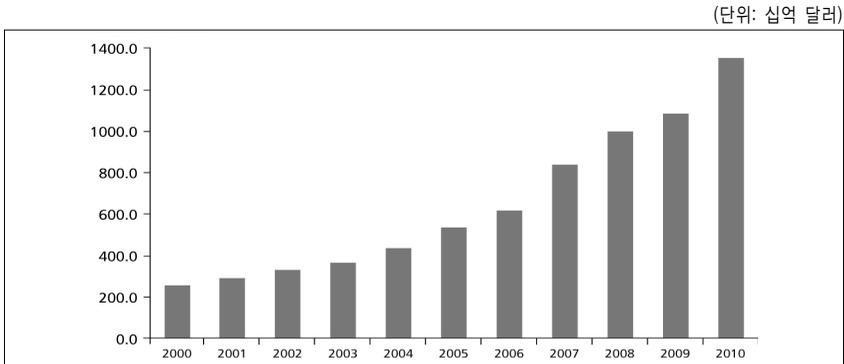


1. 인도 은행산업 현황

가. 개요

인도는 1991년 경제개혁의 하나로 금융제도 개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주로 은행산업의 규제 개혁이 추진되었다. 금융시스템 개혁과 함께 2000년대 들어 인도경제의 고성장에 따른 금융수요 급증 등에 힘입어 인도의 은행 자산규모는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인도의 은행 총자산은 2000~10년간 연평균 15.3% 증가했으며, 2010년 1.4조 달러로, 2000년(2,561억 달러)에 비해 5.3배에 이르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7.2%로, 은행 자산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BCG(2011) 등에 의하면,⁶⁾ 인도의 은행 자산규모는 높은 GDP 성장률이 뒷받침되면서, 2025년에는 28.5조 달러로 늘어나, 중국(115조 달러), 미국(100조 달러)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림 2-1. 인도 은행산업의 총자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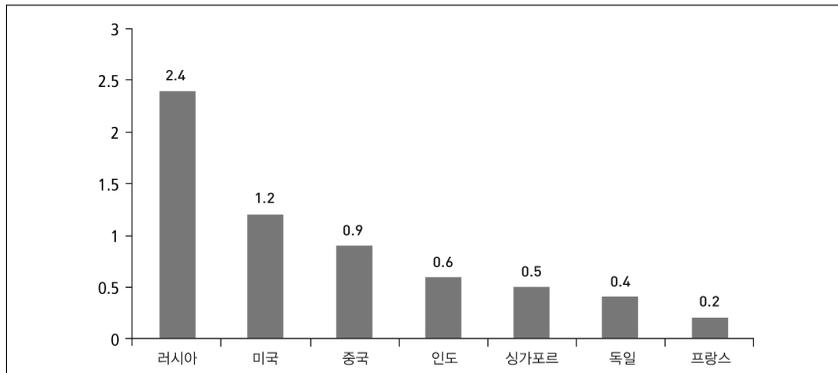
자료: BCG 등(2011)에서 재작성.

6) BCG(Boston Consulting Group)(2011), FICCI(인도 상공회의소)(2011), IBA(인도은행 협회)(2011).

수익성과 건전성에서도 인도 은행산업은 다른 국가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은행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ROE(자기자본이익률)는 2007~09년간 연평균 15.3%로, 미국과 싱가포르 등 금융선진국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같은 기간 중 경영건전성지표인 ROA(총자산이익률)은 1.1%를 나타내, 미국(0.91%), 일본(0.35%), 독일(0.16%), 영국(0.52%)⁷⁾에 비해 우위에 있다. 또한 인도 은행들의 총자산 대비 부실채권 비율은 2007~09년간 0.6%로, 미국(1.2%), 중국(0.9%)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2-2. 국별 자산 대비 부실채권 비율(2007~09년 평균) 비교

(단위: %)



자료: BCG 등(2011)에서 재작성.

나. 기회요인

향후 인도 은행산업의 성장세는 중산층의 증가와 이와 관련한 금융인프라 수요 확대 등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우선 Ministry of Home Affairs

7) 미국, 일본, 독일, 영국의 ROA는 2010년 회계연도 기준.

표 2-1. 인도의 소득계층 변화 전망

소득계층(루피)	2010년(100만 가구)	2020년(100만 가구)	연평균 증감률(%)
100만 이상	4	18	14.0
50~100만	6	20	11.3
20~50만	22	50	7.9
9~20만	75	120	4.6
9만 미만	114	82	-3.3

자료: Ministry of Home Affairs India(2006).

India(2006)에 의하면, 인도의 중간소득층(연소득 9만~20만 루피)⁸⁾은 2010년 7,500만 가구에서 2020년에는 1.2억 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2010~20년간 연소득 50만 루피 이상의 고소득층 가구도 연평균 12.5% 늘어나는 반면 9만 루피 저소득층은 3.3%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향후에도 고성장으로 소득수준이 늘어나면서, 빈곤층이 중산층으로 편입되어 인도의 구매력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09년 기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7.7%로, 중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높은 성장률을 지속할 경우 2020년 인도의 가계대출은 40.4조 루피로 2009년(4.9조 루피)에 비해 8.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⁹⁾

한편 다른 국가에 비해 저조한 채널망 확보를 위해 금융인프라가 확대될 전망이며, 이는 중산층 인구 증가와 함께 인도 은행산업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 10만 명당 ATM과 지점 수는 2009년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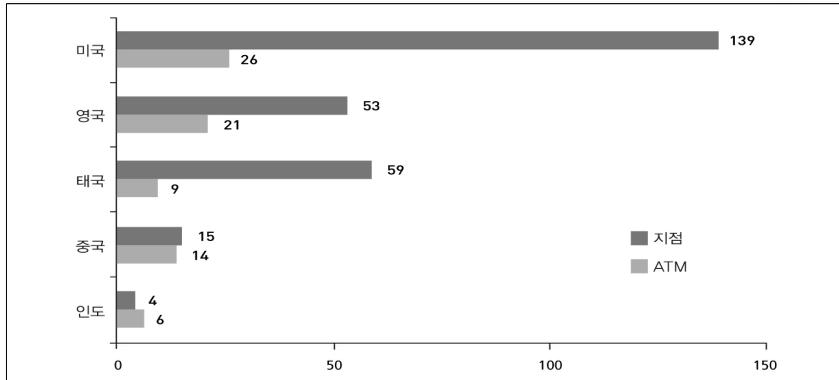
8) 2011년 12월 2일 현재 환율은 USD 1달러 당 51루피 또는 원화 1,000원 당 46루피 정도임(<http://info.finance.naver.com/marketindex/exchangeMain.nhn>).

9) BCG(2011), FICCI(2011), IBA(2011).

준 각각 6대와 4개로, 인구와 경제규모에 비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같은 기간 중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물론 태국이나 중국 등 신흥국에 비해 서도 관련 금융서비스 인프라가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소득수준과 금융수요가 늘면서 지점과 ATM 대수도 지난 2009~20년에 걸쳐 3배(2001~09년 대비)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인도의 전체 인구에서 예금계좌 보유 비율은 40% 미만이어서, 향후 소득 증가 등에 따라 금융서비스 이용자의 증가 여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3. 10만명 당 지점 및 ATM 수의 국별 비교

(단위: 개)



자료: BCG 등(2011)에서 재작성.

다. 위협요인

자산규모 등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영은행의 낮은 경쟁력은 인도 은행산업의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익성을 나타내는 순이자마진이나 ROA, 적정자본비율 등에서 국영은행은 민간은행과 해외은행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국영은행은 업무 효율성을 위한 대출금리 인하 등에

경쟁의식이 낮고, 금융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영업지역 확대 등에 대한 판매채널 개발도 미흡한 상황이다. 반면 민간은행은 공격적인 영업전략을 통해 수수료 기반의 수입을 창출하고 있으며, IT를 포함한 효율적인 시설을 통해 기존 국영은행에 비해 더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은행 중 인도에 가장 많은 지점을 보유한 SC(Standard Chartered) 은행은 2010년 아시아 지역에서 홍콩을 제치고 인도에서 12억 달러의 세전 이익을 달성하여, 세계은행 순위에서도 6계단 상승한 36위를 차지하였다.

인건비 비용과 부실채권비율에서는 해외은행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민간은행에 비해서는 취약하다. 국영은행의 총비용에서 인건비 비중은 민간은행에 비해 높은 수준인데, 이는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부담을 반영하고 있다. 은행의 부실채권 증가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국영은행의 재무제표 상 연금부채가 완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자본 확충이 어려워 향후 부채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표 2-2. 국영·민간·외국 은행의 수익성 및 건전성 비교

	국영은행	민간은행	외국은행
지점 수(개)	61,301	10,387	310
순이자마진(%)	3.8	5.1	7.2
ROA(%)	1.0	1.3	1.3
총수입 대비 기타수입 비중(%)	13.6	19.6	27.4
적정자본비율(%)	13.3	17.5	17.3
인건비 비중(%)	14.8	12.8	23.5
부실채권비율(%)	1.1	1.0	1.8

자료: RBI(2011).

이에 따라 국영은행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11년 10월 4일 신용평가회사인 Moody's는 인도 최대 국영은행인 SBI의 신용등급을 C-에서 D+로 하향 조정했으며, 다른 국영은행인 Bank of India, Bank of Baroda, Punjab National Bank의 신용등급도 낮추었다. 이들 은행의 신용등급의 하향 조정은 기본자기자본(Tier 1 Capital) 비율의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는데, SBI의 기본자기자본비율은 2011년 3월 말 현재 7.8%를 나타내, 바젤 III 기준(8.5~11%)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같은 기간 중 은행산업 전체적으로는 기본자기자본 비율이 9.7%인 가운데 10대 은행 중 SBI, Punjab National Bank (8.4%), Bank of India(8.3%), IDBI Bank(8.1%), Central Bank of India (6.4%) 등 국영은행이 기준치에 미달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동아시아 국가와 비교하여 인도의 은행부문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 2009년 말 현재 인도 국내 은행의 GDP 대비 신용잔액은

표 2-3. 상위 10대 은행의 기본자기자본(Tier 1) 비율 비교

	대출시장점유율(%)	Tier 1 비율(%)	자산(10억 달러)	구분
SBI	17.6	7.8	358.3	국영
Punjab National Bank	5.6	8.4	84.9	국영
Bank of Baroda	5.3	10.0	80.4	국영
ICICI Bank	5.0	13.2	91.1	민간
Bank of India	5.0	8.3	78.8	국영
Canara Bank	5.0	10.9	75.4	국영
HDFC Bank	3.7	12.2	62.2	민간
IDBI Bank	3.7	8.1	56.8	국영
Axis Bank	3.3	9.4	54.4	민간
Central Bank of India	3.0	6.4	47.0	국영
전체	100.0	9.7	1,610.7	-

주: 2011년 3월 말 기준.

자료: RBI(2011) 등에서 재작성.

75.2%로, 동아시아 국가 중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 가장 낮다. 채권시장에서도 국채를 제외하고 금융채와 회사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해 비교적 저조한 편이다. 또한 개별 은행 규모도 중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고성장을 구가하는 국가의 위상과는 달리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작은 편이다. The Banker誌(2011년 7월호)가 발표하는 세계 은행 순위(Tier 1 자본 기준)에서 중국의 4대 은행이 모두 상위 20위 내에 포함된 반면, 인도 은행 중 100위 이내에는 61위인 SBI(State Bank of India)가 유일하다. 상위 200위 은행 중 인도에서는 ICICI 은행, HDFC Bank, Punjab National Bank, Bank of Baroda, Canara Bank 5개 은행이 포함되었다.

Oura(2008)에 의하면, 인도는 은행부문이나 채권시장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향후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내 투자 확대가 동반되어야 하며,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하므로, 회사채시장과

표 2-4. 주요 아시아 신흥국의 금융시장 규모 비교

(단위: GDP 대비 %)

	국내 신용 잔액	채권시장 잔액			시가총액
		국채	금융채	회사채	
인도	75,2	37,3	4,6	1,5	197,8
한국	123,6	46,8	25,2	37,5	107,6
중국	138,4	27,6	15,1	8,9	68,5
홍콩	199,2	13,7	10,2	5,3	1,207,7
싱가포르	138,0	46,2	10,2	0,9	290,6
말레이시아	150,3	54,2	24,7	35,8	171,7
인도네시아	42,0	12,0	0,7	0,9	51,0
태국	123,6	52,1	0,5	18,2	87,1

주: 국내 신용잔액은 2009년 기준, 다른 통계는 2010년 기준.

자료: RBI(2011) 등에서 재작성.

함께 은행산업의 효율성 제고는 인도 금융정책에서 주요 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라. 은행산업의 구조

1786년 설립된 General Bank of India는 인도 최초의 은행이며, 4년 후 1790년 Bank of Hindustan이 출범했는데, 이들 은행은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다. 현존하는 은행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SBI는 1806년 설립된 Bank of Calcutta(설립 직후 Bank of Bengal로 은행명 변경)가 전신이다. Bank of Calcutta와 함께 Bank of Bombay, Bank of Madras는 동인도회사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수년간 준중앙은행(quasi-central banks) 역할을 수행했다. 이후 1921년 이들 3개 은행은 제국은행(Imperial Bank of India)으로 통합되고, 1955년 4월 제국은행이 국유화되면서 지금의 SBI로 출범하였으며, 이후 2011년 현재 7개 자회사로 구성된 SBI 그룹¹⁰⁾이 형성되었다. 이후 1969년 14개, 1980년 6개 은행이 국유화되어, SBI 그룹과 함께 국영은행에 포함되었다. 1990년대 이후 금융개혁을 통해 민간은행이나 외국은행의 신규 진입이 이루어졌지만, 국영은행은 총자산·예금액·점포 수 등에서 전체 은행산업의 70%대의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농촌은행은 1970년대 농업에 필요한 신용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지만, 최근에는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에 따라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10) SBI 그룹에는 SBI, State Bank of Bikaner & Jaipur, State Bank of Hyderabad, State Bank of Indore, State Bank of Mysore, State Bank of Patiala, State Bank of Travancore로 구성됨.

금융중개기관으로서 은행은 크게 4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첫째, 상업은행(이하에서는 은행)은 대부분 지정상업은행(Scheduled Commercial Banks)¹¹⁾이며, 이는 다시 국영은행(Public Sector Banks), 민간은행(Private Banks), 외국은행(Foreign Banks), 지방농촌은행(Regional Rural Banks)으로 나눌 수 있다.

둘째, 협동조합은행(Co-operative Banks)은 도시협동조합은행(Urban Co-operative Banks)과 농촌협동조합은행(Rural Co-operative Banks)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도시지역과 주변지역에 신용을 공급하기 위해서 1990년대 초반 크게 늘어났지만, 경영의 취약성 등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후자는 농촌지역에 장·단기 농업 신용이나 주택대출 등을 공급하는 기관이다.

셋째, 개발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s)이다. 이는 정부출자금이나 채권발행 등에 의해 중장기 자금을 다양한 부문에 공급하는 정책금융기관이다. 산업개발금융은 인도산업개발은행(IDBI: Industrial Development Bank of India), 인도산업금융공사(IFCI: Industrial Finance Corporation of India), 인도산업투자은행(IIBI: Industrial Investment Bank of India Ltd.), 인도수출입은행(EXIM) 등이며, 전국농업농촌개발은행(NABARD: National Bank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은 농업개발금융기관이다. 그러나 경제개혁과 함께 본연의 기능이 재평가되면서, 1990년대 중반까지 이들 금융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폐지되었다. 최근에는 정책금융기관의 규모와 기능은 급격히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11) 인도의 지정상업은행은 ‘납입자본 및 지불준비금의 합계가 50만 루피 이상이며, 경영이 건전하다고 평가되는 은행’을 말한다.

넷째, 비은행회사(Non-Banking Financial Companies)는 다양한 기관이 존재하지만, 주로 리스, 소비자금융이나 주택금융 등의 대출회사, 투자신탁회사나 보험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일부에서는 예금업무가 가능한 기관도 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인도준비은행법의 개정으로 비은행회사는 중앙은행인 인도준비은행(RBI: Reserve Bank of India, 이하 RBI)에 등록을 의무화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관련 기업의 수는 크게 줄어들었다.

과거 인도의 대출시장은 단기자금(운전자금)과 장기자금(설비자금)의 대출기관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으며, 단기자금은 상업은행, 장기자금은 IDBI 등과 같은 개발금융기관이 분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왔다. 그러나 1994년 이후 상업은행의 장기대출규제 완화와 개발금융기관 자회사의 상업은행 업무가 가능하게 되어, 이들 기관의 공동 업무가 늘어나게 되었다.

표 2-5. 인도 은행산업 및 주요 금융기관 현황

(단위: 10억 루피, %, 개)

구분	총자산	비율	은행 수	
상업은행	국영은행	52,938	63.0	27
	민간은행	13,982	16.6	22
	외국은행	4,928	5.9	36
	지정상업은행	71,848	85.4	85
	지방농촌은행	1,841	2.2	82
협동조합은행	도시협동조합은행	2,360	2.8	1,674
	농촌협동조합은행	4,468	5.3	96,751
개발금융기관	2,469	2.9	4	
비은행회사	1,093	1.3	12,630	
합계	84,079	100.0	-	

주: 지정상업은행(국영, 민간, 외국은행)은 2011년 3월 말 기준; 지방농촌은행, 도시협동조합은행, 개발금융기관, 비은행회사는 2010년 3월 말 기준, 농촌협동조합은행은 2009년 3월 말 기준.

자료: RBI(2011)등에서 재작성.

1997년에는 개발금융기관의 단기대출이 인정받게 되어 장단기금융의 제한이 해소되었다.

인도의 상업은행 수는 2011년 3월 말 기준 167개다. 그 중 지정상업은행은 85개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30년간 상업은행 수 추이를 보면, 최근 5년간 1999년의 301개 금융기관을 정점으로, 매년 2~3개씩 감소하면서 완만한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인도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1970년대부터 1980년대는 정부가 은행부문의 공급능력 강화에 주력했지만, 1991년 이후 금융개혁에 의해, 점차 시장시스템에 적합한 은행시장 시스템을 보유한 국가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은행 수 감소는 대도시권, 도시의 감소에 기인하고 있으며, 지방은행, 비지정은행 수는 1999년 이후 정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대도시권, 도시에서 은행 수가 감소하는 배경으로는 대출시장, 예금시장에서의 경합이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앞으로도 경쟁이 심화되는 도시에서 경영여건이 악화된 은행이 나타나면, 은행 수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방은행의 은행 수가 정체되는 배경으로는 주정부가 지나친 시장경제화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인도에서는 외환업무를 비롯한 국제은행 업무는 SBI, Bank of India와 Bank of Baroda 등 3개 은행이 주로 담당하고 있다. SBI는 총자산규모로 인도 국내 최대의 상업은행이며, 대출시장의 17.6%(2011년 3월 말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총자산규모 상위은행 가운데, Bank of India, Canara Bank, Punjab National Bank는 일부 민간은행이지만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비중이 높다. 1992년 은행산업 재편에 의해, RBI는 엄격한 자기자본 비율 규제와 자산평가를 의무화했기 때문에 많은 국영은행이 시장화 조치에 대응할 수 없었고, 고액의 대손 손실을 계상되었다. 이로 인해 상업

은행 간 격차가 확대되었고, 향후 예금과 대출 시장에서의 성과 여부가 은행 간 경쟁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마. 은행산업 감독기구와 내용

인도에서는 RBI가 통화공급 관리, 대출이나 예금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 정책 운영을 수행하고 있다. RBI는 금융정책 운영은 물론 은행감독 임무도 맡고 있으며, 1994년 설치된 금융감독위원회(BFS: Board for Financial Supervision)는 금융기관과 비은행, 기타 모든 금융 조직의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RBI의 금융안정 수단은 미시건전성 감독(은행규제법 1949), 건전성규제 수단,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지급결제시스템법 2007), 최종대부자 기능(중앙은행법 제18조) 등이 있다. 여기서 건전성규제 수단으로는 LTV (Loan to Value, 담보대출인정비율) 규제, 위험가중치 조정, 총당금 비율 조정, 지급준비제도를 들 수 있다. 지급준비율은 2005년 4%에서 2007년 6%로, 일반대손충당금 비율은 2005년 0.4%에서 2007년에는 2%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금융안정 수단 중 하나인 법정유동성비율은 은행규제법(Banking Regulation Act)에 따라, 은행에게 요구불 및 정기예금 등 부채의 일정비율(24%)을 국채 등 유동자산으로 보유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¹²⁾

은행산업의 진입과 관련한 규제를 보면, RBI는 2001년 1월 민간은행 시장에 대한 신규 참여에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신규 진입 은행은

12) 한국은행(2011).

최저 20억 루피의 초기 납입자본이 필요하며, 영업 개시 후 3년 이내에 이를 30억 루피로 확대해야 한다. 은행 설립자는 납입자본의 49%(2002년 7월 40%에서 상향 조정)를 유지해야 한다. 대형 산업자본은 은행산업의 신규 진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지만(은산분리), 관련 기업이 신규 은행의 주식을 10%까지 보유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다.

바. 글로벌 금융위기와 인도의 은행산업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과 인플레이션 압력에 의한 금융긴축 기조 등으로 인도경제는 성장세가 둔화되었지만, 은행산업은 이와 관련하여 충격을 받지 않았다. 이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대다수 인도 은행들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시장에 관련 상품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07년 9월 RBI의 조사에서 인도의 은행들은 미국 서브프라임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노출(exposure)이 거의 없었다(Mohan 2008b). 일부 은행이 이와 관련한 원자재 관련 부채담보부증권(CDO: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에 투자했을 뿐이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리먼 브러더스와 관련한 금융상품을 보유한 14개 은행이 있었지만, 이들 대부분은 파산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자회사와 관련된 것이며, 리먼 브러더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포지션은 적고, 적절한 담보를 구성한 상황이었다.

둘째, 은행산업에서 외국은행의 비중이 낮다. 2011년 3월 말 외국은행의 자산은 4.9조 루피로, 전체 은행(상업은행 기준, 73.7조 루피)의 6.6%에 불과하다. 글로벌 유동성의 변화와 개도국에 대한 글로벌 은행의 융자액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미국 및 유럽

은행이 보유한 유동성이나 자본시장 악화에 따라, 개도국으로부터 자금 회수가 발생하였고, 이는 인도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처럼 한 국가에서 외국은행의 비중과 위기의 영향은 매우 유의한 관계가 있다.¹³⁾

인도의 은행산업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회피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전체 은행산업에서 비중이 높은 국영은행의 암묵적인 보증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인도 국영은행은 보수적인 경영형태와 높은 정치적 압력 노출 등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형화 유인이 거의 없다는 부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위기대응 면에서는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예금이 국영은행에 집중하기도 하였다.

셋째, 인도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RBI 산하 금융부문평가위원회(CFSA: Committee on Financial Sector Assessment)가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도 신용의 질, 금리, 유동성 등이 비교적 우수한 편이다. 2004년도 이후 은행신용이 전년대비 30% 전후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는 가운데 부동산대출, 주택대출, 소비자 신용대출 등을 중심으로 리스크 비중의 상향 조정이나 준비금 규제의 강화가 사전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러한 규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부 완화되고 있지만, 현재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경기변동에 대응(Counter-Cyclical)한 선제적인 규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난 5~6년 동안 ① 은행 간 단기금융시장에서 거래규모 제한이나 ALM(Asset and Liability Management, 부채자산관리) 가이드라인

13) 외국은행의 자산 비율이 80%를 넘는 국가는 중남미(멕시코, 페루), 아프리카(마다가스카르, 우간다 등), 동유럽(헝가리, 알바니아, 리투아니아,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등) 등에 집중되어 있다.

의 도입 등 유동성 리스크에 관한 규제 강화, ② 부외거래(off-balance) 상품의 리스크 관리나 바젤 II의 도입 등 자기자본비율 규제 강화, ③ 비은행 금융기관 규제 강화 등이 실시되었다. 또한 법정유동성비율 규제를 통한 국채투자의 비율 제고도 은행 자산의 안전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채금리는 단기물을 중심으로 대폭 하락하였고, 은행들은 이와 관련한 거래 비중을 늘려 국채 보유가 은행 수익의 증가로 연결되었다.

넷째, 자본거래 규제가 유지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대외상업차입이나 채권투자 등 채무성 거래에 대해 신중하게 대응하여 글로벌 금융위기의 부정적 영향을 억제하는 데 일정한 효과를 발휘했다고 생각된다. 은행부문의 대외차입은 Tier 1 자본의 25% 혹은 1,000만 달러 중 가장 큰 금액이 상한으로 설정되어 있다(여기서 수출금융 관련 차입 및 후순위채는 해당되지 않는다).

인도의 대외채무잔액은 경제규모와 비교하여 크지 않은 편이다. 그 중 단기 대외은행차입은 은행자산의 1% 미만에 머무르고 있다. 한편, 국영은행, 민간은행, 외국은행의 총자산 대비 예금액 비율은 2010년 3월 말 각각 83.1%, 71.5%, 54.9%이며, 차입 비율은 각각 7.1%, 12.9%, 14.3%로, 국영은행의 유동성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다.

이처럼 은행산업에서는 금융위기와 같은 대외충격의 영향에 의한 단기적인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는 1990년대 이후 전개하고 있는 은행산업의 규제 완화에 역행하는 것이며, 장기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은행산업의 중요한 화두가 될 전망이다. 인도 은행산업은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향후 고도성장을 촉진

하기 위한 적절한 신용의 확대 지속이 요구되고 있다. IMF(2009)는 건전성 유지를 위한 충분한 대응을 강조하는 동시에 신용 확대를 통한 본격적인 금융개혁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2. 인도 은행산업 시스템과 투자여건

가. 금융개혁의 내용

1) 금융개혁의 경과와 은행산업

인도의 은행산업은 1960년대까지 비교적 자유로운 업무여건 하에 있었지만,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정부의 개입이 확대되었다. 정부 주도의 은행 국유화의 최대 목적은 재정자금의 확보였지만, 빈곤층에 대한 저금리 신용 공급도 중요한 요인이었다. 은행의 국유화에 의해, 국영은행의 예금점유율이 전체 은행에서 9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농촌지역의 점포 수 비율은 1969년 22%에서 1981년에는 49%로 상승했다.

일반적으로 금융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정책당국의 규제가 강한 특성을 지니지만, 90년대 초반 금융자유화 이전까지 인도 금융산업은 이른바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의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첫째, 정부와 인도준비은행 간 재정자금의 교환이 통화 공급을 대부분 결정하고 있었다. 둘째, 예금준비율(CRR: Cash Reserve Ratio)이 단계적으로 인상되었다. 1970년대에는 전반적으로 6% 이하에 머물렀지만, 1981년 6.5%에서 1989년에는 15%가 되었다. 셋째, 예금준비율과 함께 법정유동성비율(SLR: Statutory Liquidity Ratio)도 상승하면서, 1970년 26%에서

1990년에는 38.5%가 되었다. 다만 국채금리는 시장금리에 비교해 낮게 유지되고 있었다. 넷째, 은행의 예금금리도 실질금리가 거의 제로가 되는 수준이었으며, 다섯째, 이러한 규제를 가능하도록 엄격한 자본거래 규제가 이루어져, 해외 금리 차이에 의한 통화가치의 변동 리스크를 피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우선부문대출을 통한 신용배분, 대출·예금 금리규제, 점포개설 규제 등이 실시되고 있었다.

1980년대 말 국채금리의 일부 자유화 등이 실시되었지만, 본격적인 금융개혁은 1991년 국제수지 위기 이후에 시작되었다. 금융개혁은 은행산업의 건전성 문제 등으로, 완만한 속도로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금융개혁의 목적은 민간은행이나 외국은행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동시에 경영의 자유도를 높여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은행의 효율성이나 건전성을 개선하는 것이었다.¹⁴⁾ 구체적으로, 경제성장의 지원, 금융소외해소(financial inclusion)¹⁵⁾의 추진, 고객 서비스의 향상 등이 중요한 목적이었다. 개혁 대상은 은행에서 점차로 많은 금융기관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많은 부문에 대한 원활한 신용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금융개혁 이후 금융정책은 재정의 영향에서 벗어나 개방으로 나아가고, 금융억압이 대폭 후퇴했다. 첫째, 1994년 이후 재정의 금융화(monetization)¹⁶⁾가 점차로 제한되었고, 1997년 4월 폐지되었다. 둘째, 금

14) 금융개혁 실시를 위해 발표된 1991년 제1차 Narasimham 위원회 보고에서, 민간은행이나 외국은행의 신규 진입이 자국의 은행산업 경쟁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15) 금융소외(financial exclusion)와는 반대 개념으로, 특정 집단이나 계층이 금융시장이나 금융상품의 이용에서 차별받고 소외되지 않는 현상을 의미한다. 협의로는 자국 내 사회적 약자나 저소득층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미소금융) 등을 지원하는 것이며, 광의적으로는 한 국가가 소수 민족이나 국적이 다른 계층에 금융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들 수 있다(예: 영국은 자국 내 소수 이슬람 인구에 대한 금융지원 실시).

융정책의 구사도 직접적인 수단(예금준비율이나 법정유동성비율의 변경 등)보다는 간접적인 수단(공개시장조작 등)이 자주 활용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예금준비율이나 법정유동성비율은 1993년 이후 인하되었다. 또한 유동성 조절 수단으로 LAF(Liquidity Adjustment Facility)이나 MSS(Market Stabilization Scheme)가 도입되었다. 셋째, 국채금리가 자유화되었으며, 2006년 4월 RBI의 발행시장 진입이 금지되었다.

은행산업의 개혁에서는 경쟁제한 규제의 완화, 건전성 규제·감독 체계의 정비, 기타 법률 정비 등이 이루어졌다. 첫째, 규제 완화는 금리·신용 배분·신규 진입 등의 자유화가 실시되었다. 둘째, 건전성 규제는 최저 자기자본비율 규제의 채택, 소득·자산분류·담보 등에 대한 규제 강화, 대출집중 제한 규제의 도입, 은행의 정보공개 강화, 바젤 II 기준 도입 등이 실시되었다. 셋째, 법률 정비는 담보권 실행 절차의 간소화에 의한 채권회수의 강화(2002년) 등이 이루어졌다.

표 2-6. 은행 규제의 일반적인 형태

구분	내용
경쟁제한 규제	금리 규제, 업무분야 규제, 은행 합병 규제, 진입제한 규제, 비가격경쟁 규제, 대외거래 규제
건전성 규제	대차대조표 비율 규제: 자기자본비율 규제 등 자산평가 관련 규제: 부실자산 인정과 상각 기준 등 거래에 관한 규제: 대출집중 규제, 부동산대출 규제 등
안전망	예금보험제도, 중앙은행에 의한 규제
금융인프라 정비	정보 개시 관련, 감독 체계, 기타(법률, 회계제도, 시장 관행, 세제, 결제시스템 등)

자료: 清水聰(2010).

- 16) 재정적자를 화폐 발행을 통해 충당하는 방법으로, 재정적자를 일정 시점에서 보전해야 한다는 점에서 재정정책의 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인도 은행산업 규제の特徴은 비은행의 상업은행 전환을 확대하는 조치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다. RBI는 2004년 두 건의 비은행의 상업은행 전환 신청을 인가하였다. 비은행 중 최대 기업의 하나인 Kotak Mahindra Finance는 2003년 4월 상업은행 전환을 완료하고, Yes Bank도 2003년 11월 Rabo Bank(네덜란드)나 기타 투자자의 일부 지분보유 형태로 설립되어, 2004년 9월부터 영업을 시작하고 있다.

금융규제 완화에 따른 은행 간 경쟁 격화는 모든 금융업체가 합병이나 제휴 대상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1년 ICICI 은행은 오랜 전통을 지닌 민간은행 Bank of Madura와 합병했으며, 2002년 7월에는 국영기업인 Life Insurance Corporation of India가 일부 국유인 Corporation Bank의 지분율을 12.32%에서 27%로 끌어올렸다. 국영은행인 Punjab National Bank는 민영은행인 Nedungadi Bank를 2003년 2월 인수했다. 2004년 7월에는 RBI가 실적 부진에 빠진 민간은행 Global Trust Bank(GTB)의 자산을 동결하고, 이미 GTB와 합병을 모색하고 있었던 Oriental Bank of Commerce와 합병을 발표했다.

2) 예금준비율 및 법정유동성비율의 인하

금융개혁 이전 높은 수준의 예금준비율이나 법정유동성비율은 인도의 은행 수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금리규제로 인해 신용능력에 따른 대출금리의 설정이나 효율적인 자금배분은 불가능했다. 이에 RBI는 예금준비율은 1994년 15%에서 2004년에는 5%로 내렸고, 법정유동성비율은 1990년 38.5%에서 1997년에는 현재 수준인 25%로 내렸다. 재정적자의 대폭적인 감소는 예금준비율과 법정유동성비율의 인하를 가

능하게 하였다. 동시에 국채금리의 자유화도 이루어졌다.

예금준비율이나 법정유동성비율 인하에 의해 대출자금이 증가했지만, 은행신용의 연평균 증가율은 1992~95년도 19.5%에서 오히려 1996~2001년도에는 15.1%로 하락하였다. 이는 은행과 기업 모두에게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은행은 다양한 건전성 규제의 강화에 따라 취약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1997년 3월 말 부실채권 비율은 15.7%에 달하고 있었다. 또한 자기자본비율도 1996년 3월 말 8.7%를 나타내, 충분히 높다고는 볼 수 없어 인도의 은행들은 신용 확대를 주저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으로, 1990년대 후반 기업의 대출 수요가 정체되었다. 1990년대 들어 시멘트나 철강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대규모 설비투자가 이루어졌지만, 생산에서 양적 제한의 철폐나 관세율 인하 등이 이루어졌다. 이에 기업들은 경쟁 격화에 직면하게 되었고, 경영 전략의 중점이 설비능력 확대에서 구조조정으로 전환되었다. 광공업부문의 성장률도 저하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차입을 절감하고 내부유보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채권주식 비율(debt equity ratio)은 1990~94년도에 85.5%에서 1995~99년도에는 65.2%로 저하되었다. 또한 실질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 것도 신용 확대 억제로 이어졌다. 명목금리의 하락으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었기 때문에 실질 대출 금리는 1990~95년도 6.5%에서 1996~2001년도에는 12.5%로 상승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은행은 리스크 조정 후 수익률을 고려하면서, 국채 투자를 택하게 되었다. 법정유동성비율과 실제 국채투자 비율을 비교하면, 1996년 3월 말에는 각각 31.5%와 36.9%, 2002년 3월 말에는 25%, 36.7%로 의무비율을 대폭 상회하는 국채투자가 계속되었다. 예금준비율

은 중기적으로 3%까지 내릴 예정이었지만, 금융정책의 수단으로서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2004년 9월 이후 인상 기조로 전환되었다. 법정유동성비율도 25% 이하로 내릴 예정이었지만, 실제로 구체화되지 않았다.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는 유동성 공급 관점에서 예금준비율, 법정유동성비율을 함께 내릴 수 있었다. 당분간 금융정책수단으로서의 이러한 상황은 당장 변화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3) 대출 · 예금 금리의 자유화

대출 · 예금 금리는 복잡한 규제 하에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1990년대부터 자유화되었다. 예금금리는 1995년 10월 이후 자유화가 시작되었다. 은행은 경영 판단에 근거해서 예금금리를 자유롭게 결정하게 되었다. 다만 자본거래 규제의 관점에서 외화예금이나 비거주자예금의 금리상한 규제는 존속되었다. 대출금리 자유화도 전개되고, 수출금융이나 소액융자만 규제가 유지되었다. 1994년 10월 자유화가 실시되어, 은행은 최우선대출금리를 정하게 되었다.¹⁷⁾

금리자유화의 목적은 금융정책의 실효성을 늘리는 동시에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은행은 유동성 상황이나 신용리스크의 인식에 근거해서 대출금리를 정하게 되었다. 또한 금리자유화는 은행 간 경쟁 촉진에도 기여했다. 대출금리는 1991년 10월 약 20%였지만, 금리의 자유화나 자본유입에 의한 유동성 증가로, 1997년도에는 약 14%까지 하락했다.

은행 간 경쟁 격화는 대출금리에도 반영되었다. 기존에도 최우대금리는

17) 대출액이 20만 루피 미만인 경우, 대출금리는 최우대금리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떨어지기 어렵고, 용자 대상마다 대출금리가 대폭 다른 현상이 보여졌기 때문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03년도부터 벤치마크대출금리(Benchmark Prime Lending Rates) 제도를 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쟁이 격화하면서 벤치마크금리 이하 금리에서 대출이 증가하고, 최고 대출금리와 최저 대출금리의 차이가 확대되었다. 벤치마크금리 이하 금리에서 대출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3년도 43%로부터 2007년 3월 말 79%로 상승했다. 이로 인해 금융증개비용의 축소 압력이 확대되었다.

나. 은행산업 진입 규제의 완화

1) 은행의 신규 진입과 영향

1969년부터 이루어진 은행 국유화 이후 민간은행의 시장 진입은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인도의 은행산업 내 신규 진입이 없었기 때문에 경쟁의 위협도 없었다. 금리나 점포개설의 규제도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다.

은행산업의 규제 완화는 1990년 이후 진행되었다. 첫째, 1993년 1월 민간은행의 진입 기준이 공표되면서, 신규 진입이 인정을 받게 되었다. 또한 외국은행의 진입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둘째, 1992년 5월 점포개설 규제가 변경되었다. 은행은 농촌지역의 점포를 폐쇄할 수는 없었지만, 점포망 정리가 가능한 규제 완화가 실시되었다. ATM의 설치도 점차 용이하게 되었다. 셋째, 기존 개발금융기관이 수행하고 있었던 프로젝트 용자가 은행에서 가능하게 되는 등 대출에 관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다. 넷째, 국영은행은 납입자본의 49%까지 주식시장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혁의 결과 1990년대 민간은행 및 외국은행의 신규 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1998년 3월 말 신설된 민간은행(새로운 민간

은행)의 자산은 은행 전체의 3.2%, 외국은행은 8.2%에 불과했다. 이를 보면, 1990년대 은행산업의 경쟁이 크게 촉진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은행 간 합병도 4건밖에 진행되지 못했다. 또한 은행의 순이자마진(예금금리-대출금리)의 총자산비율은 금리수준이 저하되는 가운데 1992년도 2.51%에서 1997년도에는 2.95%로 상승하였다.¹⁸⁾

하지만 2000년 이후 이러한 상황은 다소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1990년대 들어 개발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나 RBI의 보조금이 폐지되어, 이들 기관이 효율적인 경영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었다. 1999년에는 이들 기관을 은행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공표되어, 2001년 ICICI, 2004년에는 IDBI가 은행으로 전환되었다. 당시 국영은행 1개, 민간은행 4개가 출범하고, 외국은행 16개가 시장에 진입하게 되었다. 외국은행의 지점 수는 1991년 3월 151개에서 2001년 3월에는 205개, 2011년 3월에는 316개로 증가했다. 한편, 경쟁 격화에 따라 지방농촌은행과 비지정상업은행을 제외한 은행 수는 2001년 3월 100개에서 2011년 3월에는 83개로 감소했다.

표 2-7. 인도의 은행 수 추이

(단위: 개)

	1991년	1996년	2001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1년
지정상업은행	272	289	296	178	170	166	167
SBI 그룹	8	8	8	8	8	7	7
국영은행	20	19	19	20	20	20	20
민간은행	24	35	31	28	25	22	22
외국은행	24	31	42	29	29	31	36
지방농촌은행	196	196	196	133	96	86	82
비지정상업은행	4	2	5	4	4	4	4

주: 각 연도 3월 말 기준.

자료: RBI(2011) 등에서 재작성.

18) 인도에서는 금리 변경 시 대출금리는 비교적 신속히 반응하지만, 예금금리는 만기 도래 후 변경되기 때문에 금리 하락 과정에서 순이자마진은 축소되기 쉽다.

2) 외국은행의 진입 문제

인도가 독립하기 이전부터 외국은행은 시장에 진입한 상황이지만, 독립 이후에는 국내은행의 강화가 우선시되었다. 1990년대 금융개혁이 시작되면서, 외국은행의 진입이 촉진되었고, 특히 WTO 협상으로 외국은행의 지점 설립을 연간 12개 점포개설을 인정해야만 되었다. 2004년에는 외국은행의 인도 민간은행에 대한 직접투자 상한선이 49%에서 74%로 상승하여, 일부 민간은행에서 비거주자 주주가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2005년 2월 RBI는 외국은행의 진입 자유화를 향한 로드맵을 발표했으며, 은행 간 합병을 촉진시키기 위한 상세한 규정도 마련하였다. 같은 해 9월에는 점포개설 규제가 더욱 완화되어, 기존 점포별 인가가 아닌 1년마다 인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2005년 2월 로드맵에 의하면, 제1단계로 2009년 3월까지 외국은행은 국내 민간은행에 74% 이내 출자 외에 지점을 100% 자회사 형식으로 설립하여 인도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기존 지점의 100% 자회사

그림 2-4. 인도 정부의 금융산업 2009 로드맵

	현재(외국인 지분 제한)	2009 로드맵
민간은행	74% 지분보유 가능	지분제한 철폐
투자은행/주식매매	100% 지분보유 가능	
자산운용업	74~100% 지분보유 가능	
보험 및 연금	생명 및 손해 보험 : 26%	점진적으로 지분 확대
리스 등	74~100% 지분보유 가능	

자료: BCG(2011) 등에서 재인용.

전환도 가능하게 되었다. 여기서 민간은행에 대한 출자는 긴급하게 구조조정이 필요한 은행으로 한정되었다. 제2단계인 2009년 4월 이후에는 1단계를 기초로, 100% 자회사의 업무 범위 등을 가능한 국내은행에 근접하게 하고, 100% 자회사의 인도에서 상장을 인정(이는 거주자가 26% 이상 출자), 모든 민간은행에 대한 74%까지의 출자 인정 등이 검토되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은행산업 개방 로드맵은 무기한 보류되었다. 게다가 RBI는 외국은행의 자국 시장 진입에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외국은행의 진입으로 선진 금융기술 도입 등만 기대될 뿐, 진입 확대에 의해 은행 합병으로 은행시장의 집중도가 증가하고, 경제성장에 중추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 대출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② 외국은행은 인도에서 건전성 규제 등에서 국내은행에 가까운 취급을 받고 있지만, 인도의 은행은 해외에서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많은 외국은행의 신용능력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RBI를 비롯한 인도의 금융정책당국의 은행산업 규제 기조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해외 금융기관의 인도 진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의 은행·증권·보험 회사 등의 인도 진출은 현지 은행과의 제휴 강화나 투자은행 업무 관련 현지법인 설립 등 가능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

다. 산업조직의 효율성 평가

1) 은행 합병의 촉진과 경쟁여건 유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도의 은행산업 규모는 다른 국가와 비교하

여 작은 편이다. 2011년 3월말 총자산은 1위인 국영은행 SBI가 16.0조 루피(3,144억 달러),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은행 ICICI 은행도 4.1조 루피(911억 달러)에 머물고 있다. 국가 간 은행산업의 집중도(3대 은행 시장점유율 합계)에서도 인도의 경우 2008년 기준 러시아를 제외하고, 주요 선진국이나 신흥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는 인도 은행산업의 규모에 영향을 주는 합병의 유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표 2-8. 국가 간 은행산업 집중도(3대 은행의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1991년	1998년	2008년
선진국	미국	0.20	0.22	0.35
	영국	0.75	0.70	0.72
	독일	0.74	0.63	0.74
	프랑스	0.75	0.48	0.55
	캐나다	0.40	0.55	0.57
	일본	0.43	0.33	0.54
	한국	0.58	0.38	0.54
	싱가포르	0.86	0.81	0.99
	스페인	0.75	0.74	0.91
	호주	0.89	0.62	0.61
신흥국	인도	0.46	0.35	0.31
	중국	0.62	0.82	0.72
	브라질	0.94	0.40	0.83
	아르헨티나	0.72	0.32	0.41
	인도네시아	0.83	0.40	0.64
	이스라엘	0.85	0.74	0.97
	필리핀	0.92	0.67	0.79
	러시아	0.99	0.71	0.14
	남아공	0.99	0.72	0.79
	태국	0.85	0.51	0.50
터키	0.83	0.53	0.42	

자료: Sharma and Harpreet(2010).

인도에서 은행 합병은 독립 이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 독립 후 합병이나 폐쇄에 의해, 은행 수는 1951년 561개 은행에서 1969년에는 89개 은행으로 감소했다. RBI의 관리 하에 많은 부실은행이 건전한 은행으로 흡수되었다. 1990년대 이후 민간은행이나 해외은행의 시장 진입이 급증했다. 1990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국영은행 1개, 민간은행 16개, 외국은행 38개가 진입함과 동시에 주로 소규모 부실 민간은행을 건전한 국영은행 또는 민간은행이 흡수하는 형태로 합병이 이루어져 왔다. 인도에서는 이러한 형태로 부실은행의 구제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물론 건전한 은행 간 합병도 있었다. 국영은행 간 합병은 실제로는 많지 않았다. 외국은행은 일부 은행 간 합병에 의한 지점 통폐합이나 인도시장에서의 철수 등이 있었다.

1991년 제1차 Narasimham 위원회 보고서에서는 자국 은행산업 규모가 작기 때문에 국제경쟁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합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3~4개 은행을 세계적인 은행으로, 8~10개 은행을 전국망을 보유한 은행으로, 이하 지방은행 등으로 구성하는 형태가 산업 조직의 목표로 제시되었다. 이후에도 1998년 제2차 Narasimham 위원회 보고서¹⁹⁾ 등 많은 보고서에서 자국의 은행 수가 지나치게 많아, 이를 정리하여 은행의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되었다.

은행산업의 경우, 고도인 금융상품의 개발이나 비용 절감을 위한 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규모의 크기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단, 그와 동시에 은행은 적절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또한 합병에 의해 소규모 은행이 수행하던 업무가 폐지되어,

19)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의 발생으로, 1998년 4월 은행 개혁에 관한 제2차 Narasimham 위원회에서 주요 내용이 발표되었다.

고객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합병의 촉진과 경쟁여건 유지의 양립이 주요 과제라 할 수 있다. 은행 규모가 확대되면, 정부 구제에 의한 도덕적 해이 문제도 발생한다.

RBI는 이들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규제를 실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경쟁여건 유지라는 관점에서 당장 소규모 부실은행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는 것이 고려된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합병은 소규모 은행이 많았기 때문에 은행 간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지만, 이후 대규모 은행 간 합병이 이루어지면, 그와 관련한 영향은 커지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경쟁여건의 영향이라는 의미에서 보류된 외국은행 진입 로드맵을 신속하게 재검토하는 것은 중요하다.²⁰⁾

산업 구조 개선의 차원에서 인도 은행산업의 고유한 문제는 정부가 주식의 51% 이상을 소유하는 국영은행의 존재다. 원래 국영은행 간 합병이나 민간은행에 의한 국영은행의 인수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정부의 다수 국영은행 보유 문제: 긍정 및 부정적 견해

가) 긍정적 견해

정부의 은행 소유를 유지해야 할 지 여부는 중요한 문제다. 1969년과 1980년 국유화에 의해 농촌지역의 점포 수가 증가하는 동시에 정부 계획에 따른 자금배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정부의 은행 소유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경제개혁의 진행으로 은행을 민영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주식시장에서 자금조달도 이루어졌지만, 민

20) 이외에도 경쟁 촉진을 위해서는 점포개설 규제의 완전자유화, 신규 진입의 자유화 등을 검토해야 한다(Planning Commission, Government of India 2009).

영화는 본격화되지 않았다. 전체 은행에서 국영은행의 자산비율은 1980년대 90%를 넘어선 이후 점차 낮아졌지만, 2011년 3월에는 73.7%에 이르고 있다. 같은 기간 중 민간은행은 19.5%, 외국은행은 6.9%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의 은행 소유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 금융위기에 국영은행에 의한 암묵적인 정부 보증이 대외충격의 파급을 방지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2008년도 이후 국영은행의 대출이나 예금이 가장 늘어나고 있는데다, 민간이나 외국은행에 비해 증가세가 높은 편이어서 금융증개기능의 강화 기제로 정부의 은행 소유를 긍정 하는 의견에 힘을 더하고 있다.

표 2-9. 은행별 대출 및 예금 증감률 추이

(단위: 전년대비, %)

		2008년 3월	2009년 3월	2010년 3월	2011년 3월
국영은행	대출	22,5	20,4	19,5	22,4
	예금	22,9	24,1	18,6	18,4
민간은행	대출	19,9	10,9	9,9	26,2
	예금	19,9	8,0	11,7	21,9
외국은행	대출	28,5	4,0	-1,3	19,8
	예금	29,1	7,8	8,4	3,7
합계	대출	22,3	17,3	16,5	23,0
	예금	22,4	19,8	16,8	18,3

자료: RBI(2011) 등에서 제작성.

표 2-10. 2008년 10월~09년 10월간 대출 및 예금금리 인하 폭 비교

(단위: bps)

	예금금리	최우대 대출금리	BPLR 인하 폭의 평균치
국영은행	170~350	125~275	193,5
민간은행	100~375	100~125	98,9
외국은행	125~300	125	64,3

자료: RBI(2011).

둘째, 금융완화에 따르는 대출금리의 저하가 불충분하지만, 2008년 10월부터 2009년 7월까지 국영은행 27개 은행 모두가 평균 약 2% 대출 금리를 인하한 반면 민간은행 중에는 22개 은행 중 20개 은행이 평균 약 1%, 외국은행 중에는 28개 은행 중 14개 은행이 평균 약 0.6% 인하한 정도에 머물고 있다. 국영은행이 정부나 인도준비은행의 정책 방향을 이행하면서 대출금리의 하방경직성을 완화하는 동시에 금융정책의 전과경로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셋째, 은행의 수익성·효율성·건전성에 대해 은행별 차별화가 소멸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는 경쟁 촉진에 의해 국영은행의 경영개선 노력이 강화되고,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에 의해 시장시스템이 어느 정도 작동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국영은행은 규모의 경제가 용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넷째, 은행 국유화의 주요 목적은 농촌지역의 점포망이나 사업 확대에 있었지만, 우선부문대출 실시에 의해 농업이나 중소기업에 적합한 신용이 어느 정도 확실하게 확보되면서 국유화는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나) 부정적 견해

반면 지나친 정부의 은행 소유는 과거 다른 국가의 사례와 같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수익성이나 건전성에서 비슷하더라도 국영은행과 민간은행이나 외국은행의 사업모델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경제 및 금융의 글로벌화가 급속도로 전개되는 가운데 국영은행의 사업모델이 충분히 경쟁적인지 여부가 문제다. 국영은행은 51% 이상 정부출자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자본 증강에도 제약이 따른다.

국영은행은 점포 수나 종업원 수가 많기 때문에 인건비의 비중이 높아 노동생산성에서 비교열위에 있다. 또한 민간은행이나 외국은행은 비금리 수입이 많아 업무의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중 외국은행은 부외 거래가 많아 총자산이익률이 높다.

국영은행은 기존 고객층을 주요 대상으로, 소비자 대상 사업 수익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반면 민간은행이나 외국은행은 도시지역에서 기업 대상 사업이나 상대적으로 부유한 개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 분야에 주력하고 있다. 국영은행은 투자신탁의 판매, 자산관리, 신용카드 업무, PB(Private Banking) 등 많은 사업 분야에서 민간은행이나 해외은행에 비해 뒤처져 있다. 양자 간에는 조직의 능력,²¹⁾ 판매채널, 신용리스크 등 리스크 관리 능력, 자금운용 노하우 등 금융기술, IT 활용에 의한 비용 절감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이들 분야에 국영은행도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지만, 이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우선부문대출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농업이나 중소기업 대출 확대,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본연의 목적으로 돌아올 필요가 있다. 또한 은행 건전성 비율의 달성에서 은행별로 큰 차이는 없다. 우선 부실채권 비율은 국영은행이 민간은행 등보다 높아, 농업이나 중소기업 대출 판단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²²⁾

이외에 금융소외해소 추진에서도 농촌지역의 점포 증가 등 국영은행은 커다란 역할을 했지만, 1990년대 이후 국영은행의 농촌지역 점포는 증가

21) 국영은행의 직원은 공무원으로 실적과 급여가 연동하지 않고, 부실채권을 발생시키면 정부에서 문책을 당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수익 확대의 유인이 부족하고, 기술혁신 대응에서도 보수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2) Planning Commission, Government of India(2009).

하지 않고 있다. 도시지역에서는 은행 유형별로 사업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이며, 농촌지역에서 은행 유형별 차이는 거의 없어지고 있다. 이는 기존 금융소외해소 추진정책의 한계가 인식되면서, 이와 관련한 정책이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인도 은행산업은 이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 즉 효율성이나 기술 혁신력이 요구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즉 앞으로 인도 은행들은 시장 수요의 대응과 경제적 합리성을 보다 중시하는 대응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영은행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될 전망이다.²³⁾

다) 인도 국내은행의 정부 소유에 대한 전망과 과제

장기적으로 인도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은행을 소유할 의미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무엇보다 인도 은행들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선진 경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자본 증강도 큰 폭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가 현재와 같이 많은 은행을 소유하여, 이들 은행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국영은행의 민영화나 정부출자 비율을 낮추는 등의 선택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을 즉각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당분간 불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은행의 민영화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개혁을 모색하는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첫째, 실적 제고를 위한 근로자의

23) 도시지역의 빈곤층에 대한 금융소외해소 추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 국영은행의 근로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고용기회의 제공이 존재 의의로 간주되고 있지만, 이는 역으로 낮은 생산성의 원인이기도 하다.

인센티브 향상 등과 같은 경영 혁신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국영은행의 의사결정에는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 사회에 있어서도 정부가 선택하는 이사의 인원 비율이 정부의 출자 비율을 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소수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이사회 의사결정권 강화 등 지배구조 개선을 진행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국영은행의 역할 축소는 인도 은행산업의 중장기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인도 은행산업 규제에 대한 평가와 과제

1) 우선부문대출 규제에 따른 자금배분의 효율성 문제

우선부문대출은 국내 및 외국 은행이 순은행신용(Net Bank Credit)의 40% 또는 32% 이상 우선부문(농업, 중소기업, 사회적 약자, 수출신용 등)에 의무적으로 대출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초기도입 시점과 달리 우선부문대출 대상은 점차 확대되었다. 수익성 확보를 위해 은행들은 정부에 건의하여 수출 신용, 교육 론, 주택융자, 소프트웨어 산업 대출, 벤처·캐피탈 대출, 리스 등을 우선부문대출에 포함시켰다. 2007년 4월에는 우선부문대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발표되어, 우선부문 기준은 합리화되었다. 여기에 포함되는 부문은 농업, 중소기업, 소매업, 마이크로 크레디트, 교육 대출, 주택융자 등이다. 외국은행의 경우에는 수출신용이 우선부문대출에 포함된다. 우선부문대출은 국내은행이 농업에 18% 이상, 사회적 약자에 10% 이상을 배분해야 하며, 외국은행은 중소기업에 10% 이상, 수출신용에 12% 이상 대출 의무를 갖게 된다.

우선부문대출은 적용대상의 신용공급 확대에 기여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와 관련한 정책적 목표가 항상 달성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즉

우선부문이라는 정의의 확대에 따라,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는 대출이 포함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택용자는 1990년대에 우선부문에 포함되었지만, 범위는 당초 50만 루피 이하에서 현재 200만 루피 이하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200만 루피를 대출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40만 루피의 연간 수입이 필요하므로, 이는 빈곤층에게는 사실상 피부에 닿지 않고 있다. 반면 유학생의 교육 대출은 우선부문대출에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우선부문대출의 범위가 확대된 것은 기존 우선부문에 적합한 신용의 수익성이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즉 우선부문대출 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할 경우에 은행의 수익성에는 부정적 영향이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우선부문대출 제도의 축소에 대한 정치적 저항이 강하여, 이에 대한 차선책으로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선부문대출 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해 은행의 거래비용은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대출을 늘리면서 일정 비율을 우선부문대출 증가에 할당해야 하므로, 우량기업에 대한 대출도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수익성을 기초로 우선부문 대상을 적절하게 선정함으로써, 실제 대출이 필요한 대상에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비용절감을 통한 우선부문대출의 수익성 개선, 보조금 제공, 전문기관의 역할 확대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자국은행과 외국은행에 대한 상이한 규제 적용, 도·농 간 점포 수 차이 등으로 우선부문대출의 시행이 필요하기는 하다. 그러나 모든 금융기관을 평등주의에 입각하여 우선부문대출을 시행하는 것은 시장논리에 의해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규제의 방향성이 재정립되어야 인도 은행산업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2) 금융소외해소

RBI 금융정책의 주요 목표는 물가안정과 성장 촉진이지만, 금융소외해소는 균형적인 경제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GDP에서 은행예금잔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도 33%에서 2006년도에는 53%로 상승했지만, 아직도 인도에서는 비공식금융이 뿌리가 깊게 남아 있다. 예금을 자택에 현금 보관하거나 친척 등에 위탁하는 형태가 다수이어서, 금융소외해소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금융소외해소, 즉 금융서비스 이용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서 실시된 주요 수단은 은행의 국유화, 우선부문대출, 다양한 금융기관의 점포망 확대 등이다. 최근에는 우체국이나 NGO 등도 네트워크 확대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은행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점포 수 증가를 도모해 왔다. 농촌지역의 지점 증가는 2011년 3월 기준 전체에서 37.4%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금융개혁이 본격화된 1990년대 이후에는 농촌지역의 점포 수가 늘어나고 있지 않고, 점포개설의 자유화가 전개되면서 농촌지역의 사업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실제 은행의 영업활동은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은행신용이나 예금에 관해서 농촌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다.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개인의 은행계좌 수는 인구증가율을 상회해서 늘어나고 있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서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1991년과 2001년 두 기간 중 인구 100명당 계좌 수는 감소하고 있고, 1991년 대비 2007년의 경우에는 증가세가 낮은 편이다. 또한 2007년 인구 100명당 계좌 수는 도시 지역 50.7개인 반면 농촌지역은 26.2개에 불과하다.

표 2-11. 지역별 은행계좌 수 추이

(단위: 개)

		1981년	1991년	2001년	2007년
도시	계좌 수	40.9	99.2	110.2	159.7
	인구 100만 명당 계좌 수	25.7	45.6	38.5	50.7
	성인 100명당 계좌 수	42.3	73.1	58.9	75.2
농촌	계좌 수	56.9	153.8	169.8	213.8
	인구 100만 명당 계좌 수	10.9	24.5	22.9	26.2
	성인 100명당 계좌 수	17.9	39.2	35.0	38.8
전체	계좌 수	97.8	253.0	280.0	373.5
	인구 100만 명당 계좌 수	14.3	29.9	27.2	33.0
	성인 100명당 계좌 수	22.9	46.8	41.5	48.9

자료: RBI(2011).

인도는 고성장과 함께 은행산업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건전성 유지도 중요하다. 현재까지 건전성 유지를 위해 실시된 정책적 대응에 커다란 문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은행의 신용 확대에 따른 건전성 규제의 강화는 위기의 후폭풍을 억제하는 데 기여했다. 바젤 II 기준 도입에 의한 규제 정비나 신용정보회사의 설립(2009년 4월, 4개사 인가) 등과 함께 리스크 비중 등의 탄력적인 변화에 의해 경기대응적(counter-cyclical) 정책 운영이 이루어져 왔다.²⁴⁾

하지만 급격한 자본유입의 감소 등으로 유동성의 고갈이나 신용 위축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인도의 은행산업 규제는 은행에 의한 유동성 리스크나 신용리스크의 관리, 내부 통제, 기업지배구조 등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파생상품 거래나 해외 차입의 관리나 평

24)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 2008년 11월 등급이 없는 기업대상 채권의 리스크 비중을 150%에서 100%로 내렸다. 또한 개인 대출, 자본시장 관련 용자, 상업용 부동산융자, 주택융자에 관한 지불준비금 규제(standard assets 대상)는 2007년 1월 강화된 이후에 다시 2008년 11월 완화되어, 지불준비율은 일률적으로 0.4%가 되었다.

가 등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본거래 규제의 자유화에는 다른 신흥국과 마찬가지로 신중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인프라 정비 관련 대출 증가 등으로 대출 장기화가 전개되고, 유동성 리스크나 특정부문 대상 신용의 집중이 높아질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은행 거래의 투명성이나 정보 공개 등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기타 과제로는 모바일뱅킹 등의 기술혁신에 대해 효과적인 감독을 실시하고, 금융산업의 대형화 진행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개별 은행 수준과 전체 금융시스템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금융규제 면에서 주요국과의 협력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인도의 은행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커다란 문제는 없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국내 신용의 GDP 비율은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높다고 말할 수 없고, 개별 은행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다. 또한 우선부문대출이나 정부에 의한 은행 소유 등 인도 은행산업만의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다.

2000년 이후 인도의 고성장은 저축율과 투자율의 상승 등이 뒷받침된 것이며, 그 과정에서 외부자금 조달이 증가했다. 이는 인도의 고성장을 위해 외부자금 조달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인도는 금융 저축을 확대하여 은행의 신용을 구조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금융중개기능 및 자금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은행부문의 효율성 제고나 시세를 반영한 대출·예금 금리의 수준 유지와 함께 법정유동성비율이나 우선부문대출 등의 제도를 재검토하여 금융소외해소를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우선부

문대출을 포함한 금융소외해소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높은 경제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리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금융 저축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고용을 늘리는 등 기업의 노력도 과제라 할 수 있다.

정부의 다수 은행 소유는 우선부문에 대한 신용을 확대하고, 금융소의 해소 추진 등 인도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그러나, 국영은행을 포함한 인도의 은행산업은 앞으로 효율적인 금융중개기능에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금융소외해소 추진에서는 수익성을 중시하는 동시에 보조금 제공이나 전문기관 역할 확대 등의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은행산업의 인프라와 제도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금융시스템이 구축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질적 성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3. 한·인도 은행산업의 협력방안²⁵⁾

가. 국내외 은행의 인도 진출 현황과 과제

1) 외국은행의 인도시장 진출 현황

19세기 영국의 식민지 지배 당시 무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영국계 은행이 인도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하였고, 1853년 HSBC의 전신인 Mercantile Bank of India, London and China는 뭄바이에 지점을 개설하였다. 이후 Standard Chartered Bank(SC, 이하 SC), Citi 은행이 각각 1858년, 1902년

25) 현재 한국에 진출한 인도은행으로는 인도해외은행(Indian Overseas Bank)이 있으며, 이와 관련한 한국과 인도의 은행산업 협력방안은 향후 연구 과제라 할 수 있다.

지점을 개설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도정부는 외국은행의 진출 시 지점설립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인도에 진출한 외국은행들은 주로 지점설립 형태로 기업금융에 주력했으나, 향후에는 장기적인 수익원 확보 차원에서 현지법인 자회사 형태로 소매금융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2011년 6월 말 기준 인도에서 영업 중인 외국은행은 37개로, 미국과 영국, 유럽계 은행이 가장 활발한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중 Citi, HSBC, SC 등 3개 은행이 외국은행 총자산의 62.8% (2011년 3월 말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HSBC와 함께 인도에 진출한 지 150년이 넘는 SC는 가장 많은 96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인도시장에서 고수익을 거둔 것은 최근 몇 년에 불과하다. 인도시장 진출로 수익을 거두고 있는 외국은행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현지화 글로벌 은행인 SC는 다수 점포와 대규모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 주로 대형사업의 지급보증, 인도의 높은 금리를 활용하여 소매영업에서도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데, 2011년 현재 42개 도시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다음으로 글로벌 은행인 HSBC, Royal Bank of Scotland(이하 RBS), Deutsche 은행은 대규모 대출능력을 갖고, 선진 금융기법을 통해 파생상품 등에서 기업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다. 그리고 소매금융에서도 기존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SC, HSBC, Citi 등은 도시중산층을 대상으로 시장점유율이 높은 편이다. 다만 RBS는 다른 글로벌 은행들과 달리 지역밀착형 금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6개 주 39만 빈민층 고객(특히 여성)에게 200달러 미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2-12. 인도 진출 외국은행 현황(2011년 6월 말 기준)

은행명	국적	지점 수(개)	자산(억 달러)
Standard Chartered	영국	96	237.5
HSBC Ltd.	영국	50	202.9
Citibank N. A.	미국	43	248.4
Royal Bank of Scotland	네덜란드	31	48.9
Deutsche Bank	독일	16	63.9
DBS Bank Ltd.	싱가포르	12	52.9
BNP Paribas	프랑스	8	23.8
Barclays Bank Plc.	영국	10	53.1
Credit Agricole & Investment Bank	프랑스	6	16.8
Bank of America	미국	5	27.1
Bank of Nova Scotia	캐나다	5	21.0
Shinhan Bank	한국	3	3.1
The Bank of Tokyo-Mitsubishi UFJ Ltd.	일본	3	15.5
State Bank of Mauritius	모리셔스	3	2.5
기타	-	29	79.3
합계		320	1,097.1

주: 기타는 지점 수 3개 미만 은행, 자산은 2011년 3월 말 기준.
 자료: RBI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저자 재계산.

현지법인 자회사로 진출하거나 전환 예정인 외국은행들은 고성장이 예상되는 인도시장에서 예금과 대출업무 확대 등을 통해 수익기반을 빠르게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현지법인 자회사 형태의 외국은행들은 대도시보다는 대도시 외곽지역의 중소 신도시 등에서 영업할 경우, 인도 국영은행이나 민간은행과 동일하게 내국인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 주요 해외은행 진출 사례

인도 해외은행 중 자산규모가 가장 큰 Citi 은행은 1902년 이후 지금까지 기업 및 가계의 대출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은행이며, 인도에서는 투자, 소매금융, 보험 등과 같은 수많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한 23가지 특성으로 분류한 신용카드를 출시하였으며, 모바일 뱅킹을 포함한 온라인 뱅킹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Citi 은행은 인도시장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는데, 대출에서도 개인, 주택, 자산 등 유형별 대출상품을 내놓고 있다. 금융서비스를 위해 Polaris Software와 i-Flex Solutions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에도 투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2002년에는 아시아 은행 중 인터넷 뱅킹 서비스 최우수 은행 및 외환 거래 1위 은행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인도시장에서 Citi 은행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은 다른 해외은행과 달리 초기 진입단계부터 겸업은행(universal banking) 전략을 구사했기 때문이다. 이는 주로 고객 대출 프로그램과 전자 대출 등에 초점을 맞추었고, 인도시장에서 최초로 현금관리 서비스 등을 구축하여 현재까지 관련 분야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Citi 은행은 혁신적인 세계적 상품을 선보임으로써 인도 금융시장의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파생상품의 도입을 통해 주식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하였다.

2007년 RBS에 인수된 ABN Amro 은행의 인도시장 전략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ABN Amro는 1921년 인도에서 사업을 시작한 이후 금융시장이 개방되기 시작한 1991년부터 인도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Bank of America의 소매금융부문을 인수한 이후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인도시장에서 직접 생산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현지 유력 금융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는 효과적인 시장 진입을 위해 단행되었고, 금융서비스의 전략적 이해가 상충되지 않는 협력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ABN Amro는 기존 상품라인을 다각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인도 상황에 맞는 인사시스템 구축도 병행하였다.

3) 인도의 해외은행 진입규제 내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전면 보류된 인도의 금융산업 개방 로드맵 시행여부가 외국은행에게 인도시장 진출을 좌우할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2011년 인도 내 외국은행의 현지법인 자회사는 내국회사로 간주되어, 세제, 대출능력, 자금운용, 대출시장 등에서 인도 국영은행이나 민간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다. 현 인도 세법에서는 외국은행의 현지법인 자회사에 대해서는 인지세와 함께 인도 지점 사업부를 현지법인 자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본이익에 대해 과세를 부여하고 있다. 외국은행의 지점은 모회사의 재무 상태를 담보로 사업 전개가 가능하나, 현지법인 자회사 설립을 통한 독립경영은 자체적인 자본적정성을 충족해야 하므로, 대출능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인도 국영은행과 민간은행들은 단일 기업 및 그룹 기업에게 순자산의 15%를 초과하여 대출을 제공할 수 없는 제한이 있으며, 이로 인해 외국은행의 현지법인 자회사들도 자금운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인도의 국영은행과 민간은행은 농업, 중소기업, 수출기업, 주택대출 등 우선 순위 산업부문에 대출의 32% 이상을 할당해야 하고, 그중 농업대출은 20% 이상 유지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갖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외국은행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최근 인도정부는 외국은행의 선진 시스템 도입이 자국 은행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도기업의 해외 자본시장 진출도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2-13. 인도의 해외은행 진입 규제 내용

구분	내용
진입장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자국 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받는 법인 형태의 진출만 진입 허용 - 대도시 지점 신설 시 금융소외지역 의무 설치 - 해외자본의 투자한도를 본사 자본의 40% 이내로 제한
운용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은행의 현지은행 인수 불가 - 현지은행에 지분투자 시 경영권 행사에서 최대 10%까지만 인정 - 예금의 6%를 현금으로 보유해야 하며, 총예금의 25%를 국채매입 의무화 - 총대출의 32%를 수출금융, 소액 주택금융, 중소기업 등에 우선대출

자료: RBI(2011).

4) 국내은행의 진출 현황

외국은행들의 활발한 인도 진출과는 달리 국내 금융기관들의 인도 진출은 미미한 수준이다. 현재 인도 금융시장에 직접 진출한 국내 금융기관은 인도 내 3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신한은행, 1개 지점 인가를 받은 우리은행, 사무소 형태로 진출한 수출입은행, 하나은행 등이다. 국민은행은 뭄바이에 사무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금융기관 중 신한은행은 가장 먼저 인도에 진출하였다. 1996년 5월 (구)조흥은행이 당시 한국 제조업체의 금융 지원을 위해 진출하였고, 2006년 12월 뉴델리 지점이 개설되었으며, 한·인도 CEPA 체결 후인 2010년 12월 첸나이(벨로르) 지점을 개설하였다. 국내은행 중에는 신한은행이 초기 진출효과로 다른 은행에 비해 인도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으며, 100여 개의 기업고객과 600여 명의 개인고객을 확보하고 대출과 예금액은 약 3,000억 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주요 업무는 주로 한국 기업 및 교민을 상대로 제한적이며, 인도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소매금융 분야 등의 역량과 전략은 미흡한 편이다.

한국의 시중은행들은 국내 시장의 경쟁 격화 등으로 해외 진출을 모색 중에 있으며, 최근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규제 완화에 힘입어 인도 진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2010년 11월 18일 시행된 은행법 개정으로 국외점포 신설 시 금융위원회의 사전협의제도가 폐지되고, 사후보고제도로 변경되어 은행의 해외 진출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다. 특히 한·인도 CEPA의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체결일로부터(2010년) 4년간 국내은행의 지점 10개를 우호적으로 인도에서 고려할 수 있는 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국내은행들이 2011년에 인도에 5개의 지점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인도에 진출한 국내은행은 현지인 대상 예금 및 대출 규정의 규제가 많아, 현지 금융 업무에 어려움이 있다. 즉 현지 통화로만 영업이 가능하며, 대출 중 농촌지역 등에 대한 우선부문대출 규정이 있지만 신용카드, 펀드 판매, 방카슈랑스 등의 판매 규제는 없는 편이다.

인도 정책당국은 해외은행의 지점설립에 대해 대도시보다는 농촌지역 인가에 우호적이라 할 수 있는데, 2010년 12월 인가를 받은 신한은행의 벨로르 지점은 첸나이에서 약 100km 떨어진 지역이다. 이는 인도 정책당국이 도시와 농촌 지역의 금융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금융소외 해소 차원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처음 인도에 진출한 은행의 지점설립 시 대도시 인가가 용이하지만, 단계적으로 지점 설립을 원하는 경우에는 대도시보다는 도시(urban), 준도시(semi-urban), 농촌(rural) 순으로 인가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²⁶⁾ 따라서 향후 국내은행의 인도시장 진출 시 면밀한

26) 이와 함께 RBI는 신규 은행 설립 인가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높은 자본비율 유지와 2년 이내 상장 등 까다로운 요건을 제시할 것을 검토 중에 있음.

시장조사와 함께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협조 등이 향후 원활한 진출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나. 향후 효과적인 인도 은행산업 진출방안

1) 한·인도 CEPA 활용과 인도시장 진출

인도에 진출하고자 하는 해외 금융기관은 RBI,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 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 그리고 기타 권한을 보유한 정부기관(other competent authority)의 진입 요건, 법과 규칙, 규정, 지침 및 조건 등을 따라야 한다. 한·인도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CEPA) 조항에 의하면, 인도 정책당국은 한국의 은행들이 지점설립을 신청하는 경우에 현지 지점 설립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우호적인 고려(favorable consideration)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인가된 지점 외에 ATM을 설치하는 것은 신규 영업소 설치 개념으로 간주되어, 인도 정책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즉 해외은행이 설치하는 ATM 승인은 한·인도 CEPA에서 언급된 10개 지점 인가와 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위에서 서술한 한·인도 CEPA 조항은 인도정부가 국내은행의 인도 지점을 4년간 10개 승인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한·인도 CEPA 조항의 활용은 물론 인도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을 주시하여, 진입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싱가포르의 DBS 은행 사례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2006년 인도와 CECA(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를 체결한 싱가포르는 CECA 체결 이후 3년간 인도 내 15개 지점 개설 허가를 받았고, DBS는 이를 활용하여

현재 12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국내은행들이 인도에서 지점설립 인가 시 한·인도 CEPA 조항을 정책당국인 RBI에 인식시킴으로써 인가의 용이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²⁷⁾ 현재 한·인도 CEPA 체결 이후 2개 지점이 설립된 상황이므로, 향후 10개 지점의 추가 설립이 가능한 상황이다.

2) 진출 방안과 과제

인도 은행은 일부 민간은행을 제외하면, 경쟁력에서는 외국은행에 비해 열위에 놓여 있다. 하지만 인도 은행들은 인도 전역에 지점망을 갖추고 있어, 후발주자인 국내은행들이 소매금융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도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한 은행이 최소 10~20개 지점은 보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점 개설 외에 ATM 설치는 국내은행들이 한국기업 외에 인도인을 다수 고객으로 확보하지 못한다면, 관련 업무에 어려움이 있다. 즉 ATM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등은 일정 수준의 고객 확보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발급이 어렵다. 따라서 브랜드 이미지와 지점 확대 없이는 소매금융 분야에서 수익을 창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점 설립 인가보다는 영업망 확충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기업금융으로 시작하여 소매금융으로 영업을 확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27) 인도 RBI의 은행규제 담당자인 Deepak Singhal(Chief General Manager-in-Charge, Department of Banking Operation & Development)에 의하면, 한·인도 CEPA에 명시된 'CEPA 발효 후 4년간 지점설립의 우호적 고려(favorable consideration)' 조항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점 인가 신청 시 설립 신청서와 CEPA 조항을 RBI에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히고 있음.

HSBC, Citi 등과 같이 인도시장에 진출한 역사가 긴 외국은행들도 소매금융에서 고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도정부가 은행 부문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전까지는 정치적 문제 등으로 사실상 다수 해외은행의 진입 여부가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처럼 국내 기업이 인도에 많이 진출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기업만을 상대로 영업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향후 국내은행이 인도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도 내 거점을 마련하여 금융허브인 싱가포르와 홍콩 등에서 관련 사업의 연계 활동이 필요하다. 그중 고성장을 구가하는 인도기업의 분석을 통한 대출심사 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야 한다. 따라서 규제로 인해 진입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점 개설보다는 사무소 등을 인도의 주요 도시에 설치하고, 면밀한 인도시장 연구와 정보 수집이 중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향후 주정부의 움직임에도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도에는 수도인 뉴델리나 금융중심지인 뭄바이에 모든 정보가 모이는 것은 아니며, 인도 정책당국의 금융소외해소 정책에 따른 농촌지역 인가 선호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내 기업이 진출한 지역 외에 인도에서 성장 속도가 빠른 지역(마하라슈트라 주 등)의 거점 확보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은행의 인도 등 해외 진출은 Citi나 HSBC 등과 같이 10년 이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지에 투자하거나 현지기업과의 전략적 제휴가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 ABN Amro 사례처럼 사업부문 인수나 현지 금융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전개해야 한다. 인도인들은 브랜드 인지도에 매우 민감하므로, 인도 은행들과 제휴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국내은행이

인도시장에 추가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면, 은행시장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증권, 자산운용 등 자체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현지시장에 인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제3장 인도의 증권금융산업

1. 인도 증권금융시장 및 제도의 발전과정
2. 인도 증권금융시장 및 증권회사 경쟁 현황
3. 주요 증권사 사례 분석
4. 한국의 인도 증권산업 진출 확대방안



1. 인도 증권금융시장 및 제도의 발전과정

가. 인도 증권금융시장의 발전과정²⁸⁾

인도 증권금융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융시장 중 하나이며 그 역사는 200여 년 가까이 된다. 증권시장의 핵심인 인도 주식시장은 1860년대 시작되었고 당시 인도는 영국의 식민통치 하에 있었다. 1860년대 당시 뭄바이는 전세계 주요 금융중심지로서 30여 개의 은행(Bank)과 20여 개의 보험회사(insurance company), 60여 개의 증권회사(Security Company)가 위치해 있었다. 당시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인도 목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관련 회사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주식을 발행하면서 증권시장 또한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다. 이처럼 증권회사들이 늘어나면서 1875년 최초로 뭄바이에 증권거래소가 생겨나게 되었고, 이후 아메다바드(1984), 콜카타(1908), 마드라스(1937), 하이데라바드(1944) 등 인도 전역의 주요도시에서도 증권거래소가 설립되었다. 동시에 지속적으로 중소 규모의 증권회사들이 생겨나면서 인도 증권업의 성장을 이끌었다. 그 결과 현재 전국적으로 23곳²⁹⁾에 증권거래소가 분포하게 되었고, 증권회사 수 또한 321개³⁰⁾에 달하면서 현재의 인도 증권업의 형태를 만들게 되었다. 이 중 뭄바이에 소재한 BSE(Bombay Stock Exchange), 델리에 있는 NSE(National Stock Exchange)가 거래량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³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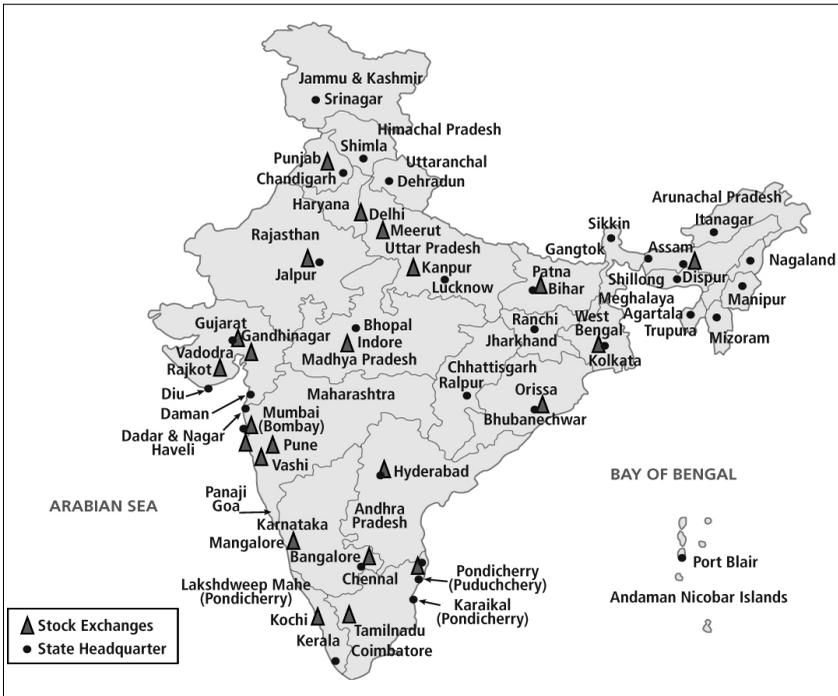
28) Campbell(2007), pp. 307-308.

29) SEBI(2011).

30) <http://indiansharemarket.net/indian-stock-companies-list.php>

31) 2009~10년 기준 거래량은 BSE 34%, NSE가 66%를 차지. 세부내용은 [부표 1]을 참고.

그림 3-1. 인도 주요 증권거래소



자료: <http://www.indiaeducation.net>

이처럼 전국적으로 분포된 증권거래소를 중심으로 한 인도 증권시장의 발전은 영국 식민지 시기에도 영국 은행이 아닌 인도의 국내기업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러나 독립 이후 시장경제를 통제하는 네루식 사회주의가 등장함에 따라 주식시장의 발전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부문에 민간기업의 참여가 제한되었으며 이는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인도경제 전체가 침체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후 1991년 개혁개방정책이 실시되면서 각종 규제와 통제가 사라지거나 완화되었다. 개혁을 통해 금융시스템이 전반적으로 효율화되었고, 이로 인해 자금조달이 용이해지고, 공모가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다양

한 증권회사들이 새로운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1993년부터 자유로운 발행시장이 열리고 자본을 조달할 수 있게 되자 인도의 주식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된다. 1993년의 1,143건을 시작으로 1994년은 1,692건, 1995년 1,725건의 주식 및 채권이 발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인도기업이 조달한 금액은 매년 2,000억 루피 이상이 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왔으며, 2007년 주식과 채권의 발행을 통해 인도 증권시장에서의 조달금액은 사상 최고치인 8,700억 루피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08~09년 회계연도에는 발행건수 47건, 약 1,620억 루피로 줄어들었다. 이후 2010년에는 76건의 발행건수와 5,755억 루피의 규모로 다시 회복세에 있다. 1990년대에는 주로 건당 10억 루피 미만의 소규모 발행이 이루어졌지만 2000년대 이후 점차 건당 발행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표 3-1. 연도별 발행 추이

회계연도	발행건수	조달금액(Rs. 1억 루피)
1993~94	1,143	2,437
1994~95	1,692	2,763
1995~96	1,725	2,080
1996~97	884	1,428
1997~98	111	457
1998~99	58	559
1999~00	93	782
2000~01	151	611
2001~02	35	754
2002~03	26	407
2003~04	57	2,327
2004~05	60	2,826
2005~06	139	2,738
2006~07	124	3,350
2007~08	124	8,702
2008~09	47	2,622
2009~10	76	5,756

자료: SEBI(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in India)(2011)의 table 5를 재인용.

나. 증권금융제도의 발전과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

1) 증권금융제도를 구성하는 주요 법률의 발전과정

현재 증권금융제도를 구성하는 주요 법률은 총 4가지가 있으며, 여기에는 1996년 제정된 「Depositories Act」와 1992년 제정된 「SEBI Act」, 1950년대에 제정되었으며, 보다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Companies Act 1956」과 「Securities Contracts(Regulation) Act 1956」가 있다. 먼저 1992년 제정된 「SEBI Act」와 이로 인해 설립된 인도증권거래위원회 (SEBI: Securities & Exchange Board of India)는 인도 증권금융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주식시장 감독의 개발, 규제 및 전반적인 책임은 인도증권거래위원회 (이하 SEBI)에 있다. SEBI는 1988년 행정기관으로 설립되었으나 1992년 「SEBI Act 1992」의 발효로 법적 권한을 부여받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주식시장의 규제와 감독에 힘쓰고 있다. SEBI는 법적 권한을 부여받아 증권시장의 발전을 장려하면서 동시에 증권시장을 규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시장 참여자의 규칙 위반 시 처벌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 「SEBI Act」의 제정과 시행은 증권투자자의 이익 보호 정도를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좀 더 근대화된 제도적 틀이 마련되면서 인도 증권시장의 발전에 기여하게 되었다.

또한 「Depositories Act 1996」는 증권시장의 발전을 위해 전자장부 기입을 통한 증권거래를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한 법률이며, 이를 통해 IT기술이 증권시장에 도입되면서 인도 증권시장의 발전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었다.

표 3-2. 증권금융제도 관련 4대 법률의 주요 내용

법률	주요 내용
SEBI Act, 1992	(a) 증권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권한을 SEBI에 부여 (b) 증권투자자의 이익 보호 (c) 증권시장의 발전 증진 (d) (이 법의 권한 범위는 자본을 발행하는 회사, 모든 매개자, 증권시장과 연관된 자를 포함함. 이 법에 따라 관련 참여자를 조사/감사할 수 있으며, 위법행위 심판과 시장 매개자 등록 및 규제 가능, 법, 규정 및 시행규정을 위반한 참여자 처벌 가능.)
Securities Contracts (Regulation) Act, 1956	(a) 주식상장에 대한 권한 부여 (b) 증권계약 관련 사항 (c) 인가와 지속적인 감독 절차를 통한 증권 거래 (증권거래소는 중앙정부에 의해 규정된 요구사항을 인가 조건으로 하며, 법에서 정한 최소 상장요건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개별 상장요건을 정함.)
Depositories Act, 1996	(a) 주식의 직접적인 이동 없이 장부 기록 또는 전자매체를 통한 효율적인 절차 진행 가능 (b) 예탁원이 명시한 방식으로 증권 무형화(장부상 존재) 가능 (c) 소유권 변화에 대한 기록 유지 (d) 특정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상장유한회사(PLC)의 주식을 자유롭게 이동 가능
Companies Act, 1956	(a) 발행, 할당, 주식이전, 기업경영 등의 일반적 규제 (b) 공모 과정에서의 정보 공개 기준 제공 (특히 기업 관리와 프로젝트 분야, 다른 상장기업에 대한 정보, 위험 요소의 인지, 관리 등을 포함하며 인수업, 발행의 할증과 할인의 이용, 권리와 보너스 문제, 이익과 배당, 연 보고서의 제출과 기타 정보 규제)

자료: SEBI, Legal Framework ACTs(<http://www.sebi.gov.in/sebiweb/home/list/1/1/0/0/Acts>).

실제 인도에서의 증권거래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위에서 설명한 4대 법률에 근거해 SEBI가 제정하고 관리하는 많은 세부규정(Regulations)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SEBI에서는 1992년 이후 각종 세부적인 규정을 발표하고 있는데, 매년 시장 상황과 증권시장의 발전 정도에 따라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초기의 시장 상황에 중요했던 주식 브로커들에 대한 규정이 1992년 가장 먼저 등장하였고, 이후 내부거래 금지

규정이 생겨났으며, 1995년에는 활발해진 외국인투자 추세에 따라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규정이 발표되었다.

또한 기존의 규정 중에서 현재의 증권시장과 맞지 않거나 시행이 효율적이지 못할 경우 즉각적인 수정을 통해 제도를 보강하고 있다. 일례로 1995년에 제정된 외국인투자 관련 규정(SEBI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Regulations 1995)의 경우 2001년 1회, 2004년 2회, 2006년 2회, 2007년 2회, 2008년 2회, 2010년 1회, 2011년 1회 등 총 지금까지 11차례 수정되었다.

외국인투자 관련 규정 이외에도 많은 규정들이 지금까지 여러 차례 수정되어 왔으며, 외국인투자자들을 포함한 인도 내 증권회사들은 이러한 규정의 변화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SEBI의 홈페이지는 이러한 규정의 변화 과정에 대해 원문과 함께 상세히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주식 브로커들이나 포트폴리오 매니저, 외국인투자자들의 투자 시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으며, 더욱이 각 부문별 상세한 규정을 통해 SEBI가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증권시장을 통제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자의 경우도 이러한 규정의 내용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 숙지하는 것이 인도 증권시장의 진출을 위한 선결요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3. SEBI의 주요 규제

1992	SEBI (Stock Brokers and Sub-brokers) Regulations, 1992 SEBI (Prohibition of Insider Trading) Regulations, 1992 SEBI (Merchant Bankers) Regulations, 1992
------	----------------------------------------------------------------------------------------------------------------------------------------------------------------

표 3-3. 계속

1993	SEBI (Portfolio Managers) Regulations, 1993 SEBI (Registrars to an Issue and Share Transfer Agents) Regulations, 1993 SEBI (Underwriters) Regulations, 1993 SEBI (Debenture Trustees) Regulations, 1993
1994	SEBI (Bankers to an Issue) Regulations, 1994
1995	SEBI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Regulations, 1995
1996	SEBI (Depositories and Participants) Regulations, 1996 SEBI (Custodian of Securities) Regulations, 1996 SEBI (Venture Capital Funds) Regulations 1996 SEBI (Mutual Funds) Regulations, 1996
1997	SEBI (Substantial Acquisition of Shares and Takeovers) Regulations 1997
1998	SEBI (Buyback of Securities) Regulations, 1998
1999	SEBI (Credit Rating Agencies) Regulations, 1999
2000	SEBI (Foreign Venture Capital Investors) Regulations, 2000
2001	SEBI (Procedure for Board Meetings) Regulations, 2001
2002	SEBI (Issue of Sweat Equity) Regulations, 2002 SEBI (Procedure for Holding Enquiry by Enquiry Officer and Imposing Penalty) Regulations 2002
2003	SEBI (Prohibition of Fraudulent and Unfair Trade Practices Relating to the Securities Market) Regulations, 2003 SEBI (Central Listing Authority) Regulations, 2003 SEBI (Ombudsman) Regulations 2003 SEBI (Central Database of Market Participants) Regulations, 2003
2004	SEBI (Self Regulatory Organizations) Regulations, 2004 SEBI (Criteria for Fit and Proper Person) Regulations, 2004
2006	SEBI (Regulatory Fee on Stock Exchanges) Regulations, 2006
2007	SEBI (Certification of Associated Persons in the Securities Markets) Regulations, 2007
2008	SEBI (Intermediaries) Regulations, 2008 SEBI (Public Offer and Listing of Securitised Debt Instruments) Regulations, 2008 SEBI (Issue and Listing of Debt Securities) Regulations, 2008
2009	SEBI (Investor Protection and Education Fund) Regulations, 2009 SEBI (Delisting of Equity Shares) Regulations, 2009 SEBI (Issue of Capital and Disclosure Requirements) Regulations, 2009
2011	SEBI (Substantial Acquisition of Shares and Takeovers) Regulations, 2011

주: 신규로 제정된 규정 전체를 정리했으며, 기존에 제정된 규정의 개정은 제외.

자료: SEBI Regulations (<http://www.sebi.gov.in/sebiweb/home/list/1/3/0/0/Regulations>).

2) 외국인투자 관련 주요 제도³²⁾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는 투자자의 형태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FDI) 관련 제도와 포트폴리오 투자(FPI) 관련 제도로 분류되며, 본 연구에서는 비금융산업적 측면이 강한 외국인직접투자 부분은 제외하고 증권시장과 관련된 투자인 포트폴리오 투자 관련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³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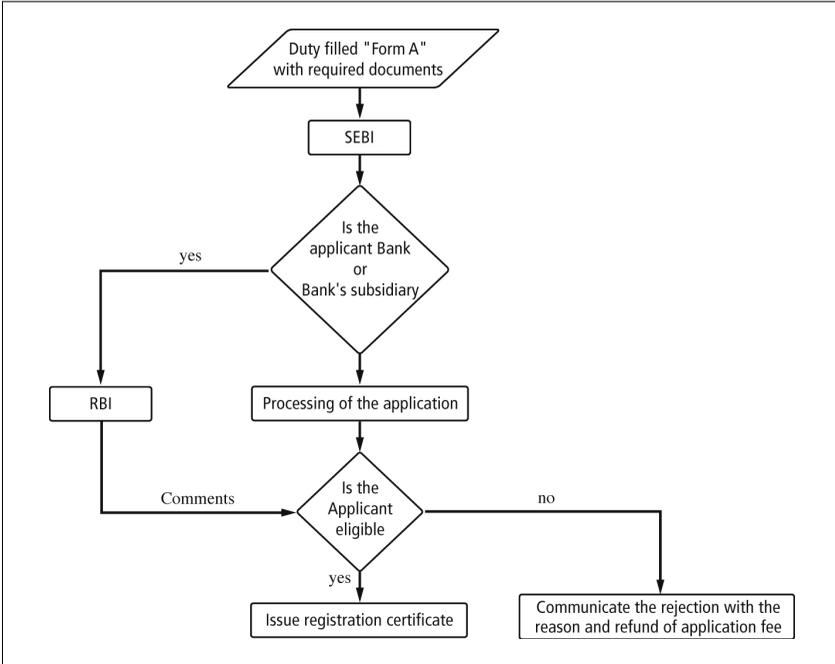
먼저 외국인이 인도 내에서 주식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기관투자자(FII: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로 등록하거나 혹은 기존의 FII의 하부계정(sub-accounts)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러한 FII 등록절차는 SEBI의 관할 하에서 진행되며, 신규 등록은 5년간 유효하고 5년 후에 갱신이 가능하다. 등록을 원하는 외국인투자기관은 RBI에 의해 정해진 형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SEBI는 해당 외국인투자기관의 실적과 전문성, 재무 안정성 등을 고려해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실제로 등록된 FII는 외국계인 뮤추얼펀드, 연금펀드, 보험회사, 은행, 자산관리회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브어카운트를 보유할 수 있다. 따라서 인도 주식시장에서는 FII를 포함해 인도 내 비거주 인도인(NRI: Non Resident Indian), 인도계 교포(PIO: Persons of Indian Origin)가 주식시장에서 외국계 투자주체가 되는 것이다. 이때 FII는 증권거래소에 등록되지 않았지만 RBI(Reserve Bank of India)에 의해 가격을 승인받은 장외주식이나 파생상품에도 투자가 가능한 등 인도 국내 투자자에 비해 큰 차별이 없는 상황이다.

32) 이는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Regulations 1995』에 기반함.

33) FDI는 투자자가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를 의미하고, 포트폴리오 투자로(FPI)는 경영 참여 없이 단순 자본이득이나 배당 등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한 투자를 의미한다.

그림 3-2. FII 등록 절차



자료: SEBI, Note(<http://investor.sebi.gov.in/faq/foreign%20institutional%20investor.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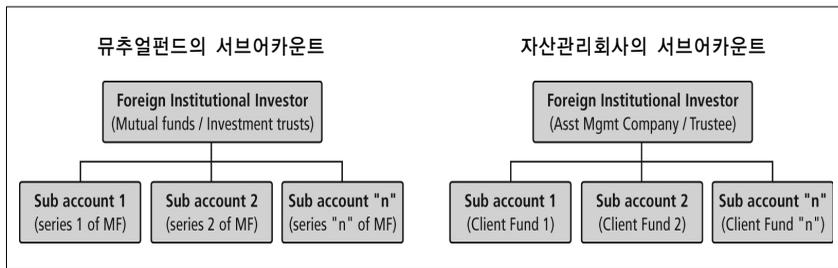
다만 FII 등 외국계 투자주체에는 투자 대상 기업의 지분한도를 규제하는 제한이 있다. 즉 소유지분한도가 FII는 투자대상 인도기업 납입자본의 24%로, NRI와 PIO의 경우는 10%로 고정되어 있다. 인도 국영은행인 SBI(State Bank of India)를 포함하는 공공부문의 경우, FII의 투자 최대한도는 20%이다. 이 최대한도는 특수한 경우 이사회의 인가를 통과한 기업체에게는 법적 한계를 초과할 수 있으며, NRI와 PIO의 경우에도 같은 조건일 때 원래의 10%를 24%로 늘릴 수 있다. RBI는 매일 인도기업에 대한 FII, NRI, PIO의 투자 최대한도를 감독하고 있으며 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규정상 최대한도보다 2%만큼 적은 수준에 도달

하는 경우 미리 경고를 주고 있다. 실제로 FII의 최대한도가 24%이므로 22%가 되는 경우 RBI는 사전인가 없이 기업주식을 더 이상 매수하지 않도록 제재를 하고 있다.³⁴⁾

한편 외국계 개인투자자의 경우는 독립적인 FII로서 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5천 달러 이상의 투자자산을 보유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단지 FII의 서브어카운트로 등록이 가능하다. 따라서 서브어카운트를 가진 개인은 인도 증권거래소에 등록된 주식들에 직접 투자할 수 있다. 이때 서브어카운트 구조는 뮤추얼펀드의 서브어카운트와 자산관리회사의 서브어카운트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외국계 개인투자자의 경우 자산관리회사의 서브어카운트의 유형에 해당되며, 뮤추얼펀드의 경우는 위탁운영자산에 해당하는 펀드별로 서브어카운트가 구성되는 형식이다. 뮤추얼펀드와 자산관리회사의 서브어카운트는 다음 그림과 같다.

한편 SEBI는 언제든지 등록된 FII의 기록과 회계장부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을 할 수 있으며, RBI(Reserve Bank of India) 또한 언제든지 FII에

그림 3-3. FII 종류별 서브어카운트 구조



자료: HSBC(2008).

34) 자세한 사항은 RBI 규정(http://www.rbi.org.in/scripts/BS_FiiUser.aspx)을 참고.

투자자본의 내부 송금 이용기록과 주식거래에 관련된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감독당국의 감독과 관련해 FII는 자신들의 투자를 관리할 인도 내 수탁인을 임명해야 한다. 이러한 수탁인은 주로 인도 내 은행 지점으로 지정되는데 이들은 FII가 실행한 투자들을 감독하고 FII의 거래 실적을 SEBI에 보고하며 5년간의 활동 기록을 유지하여, SEBI가 요구할 경우 해당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모든 FII는 증권거래소에서 인가된 은행 지점을 통해서 투자할 수 있으며, 사실상 이들 은행 지점이 거래의 일차적인 감독자가 되는 것이다.

3) 합작회사(Joint Venture) 관련 제도

인도 내 외국계 증권회사의 투자유형에서 합작투자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외국계 회사의 경우 인도기업과 합작할 경우 인도 제휴사의 마케팅과 인지도, 유통망과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어 혜택을 얻을 수 있어 실제로 많은 외국 기업들이 인도 증권시장에 참여할 때 이러한 방법을 택하고 있다. 실제로 2011년 현재 운영자산 규모 5위 내 인도 증권회사(뮤추얼펀드) 중 3개가 외국계 증권회사와 인도 증권회사의 합작형태다. 2011년 현재 인도에서 가장 큰 AUM 규모를 가진 HDFC Asset Management Company는 영국 투자회사인 Standard Life Investments와 합작형태의 회사이며, 인도 내 운영자산규모 3위인 ICICI Prudential Asset Management Company도 인도 내 2번째로 규모가 큰 상업은행인 ICICI Bank와 영국의 가장 큰 금융회사인 Prudential의 합작형태의 회사다. 따라서 한국 증권업체의 진출을 위해서도 인도기업과 합작형태의 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간단히 살펴본다.

현재 증권산업 분야에서 인도 내 외국계 기업은 인도기업과 제휴를 맺고 인도에 영업점을 설립할 수 있다. 합작투자회사 설립 과정은 인도 내 합작 파트너와 외국계 합작투자회사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자회사 설립 과정과 대부분 동일하다. RBI(Reserve Bank of India), FIPB(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 SIA(The Secretariat for Industrial Assistance)의 인가를 받으면 외국기업은 합작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합작회사를 설립한 경우 외국계 기업과 인도기업은 함께 지분을 소유하게 되며 인도기업 설립과 같은 절차를 밟게 된다. 따라서 합작회사 설립 시에는 「Companies Act 1956」의 적용을 받는다.

합작회사 설립 시 외국계 회사의 소유지분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두 합작 당사 간의 계약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된다. 따라서 인도 내 합작형태의 증권회사는 외국계 소유지분이 더 많은 형태의 합작회사와 인도계 회사의 지분이 더 많은 형태의 합작회사로 나눌 수 있다.

2. 인도 증권금융시장 및 증권회사 경쟁 현황

인도의 증권시장 참여자는 증권발행자, 증권투자자, 중개기관으로 나뉘는데 증권발행자는 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투자자는 자금을 공급해 증권을 매입하며, 중개기관은 증권 발행자와 투자자를 중간에서 연결해 각자의 이익을 위해 도움을 주게 된다. 또한 규제기관(SEBI)을 두어 공정한 시장 영업환경을 조성하고 증권발행자와 중개기관을 감독하며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 발행시장

발행시장은 주식의 발행시장을 의미한다. 발행규모별, 발행주체별, 업종별 발행주식의 현황을 살펴본다.

1) 발행규모별 현황

발행규모별로 보면 발행규모가 1억 루피 이하인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1억 루피 이상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50억 루피 이상의 대규모 발행건수도 금융위기 당시를 제외하고는 매년 20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평균 발행규모는 2008~09년을 제외하면 매년 70억 루피대를 유지하고 있다.

표 3-4. 규모별 주식 발행시장 건수와 규모

(단위 : 건, 천만 루피)

발행규모	2007~08		2008~09		2009~10		2010~11	
	발행 건수	발행 금액						
5천만 루피 이하	4	16	1	3	1	2	1	2
5천만 루피 초과 1억 루피 이하	1	6	1	7	3	24	2	11
1억 루피 초과 5억 루피 이하	33	920	21	509	18	596	13	455
5억 루피 초과 10억 루피 이하	25	1,669	6	445	9	636	20	1,406
10억 루피 초과 50억 루피 이하	37	7,999	12	2,591	24	5,824	29	8,479
50억 루피 초과	24	76,420	6	12,664	21	50,474	26	57,256
전체합계	124	87,029	47	16,220	76	57,555	91	67,609
평균발행규모	702		345		757		7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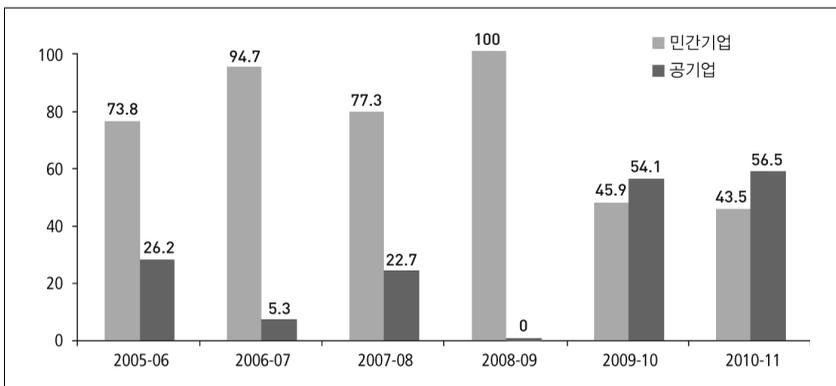
주: 연도는 회계연도이며 매년 3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임.
자료: SEBI(2007, 2008, 2009, 2010).

2) 발행주체별 현황

발행주체별로 보면 공기업에 비해 민간기업의 발행규모가 지속적으로 앞서다가, 최근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공기업의 발행규모가 민간기업을 능가하게 되었다. 1991년 이후 민영화에 중점을 둔 개혁정책으로 인해 민간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주식시장에서의 민간기업의 자금조달이 증가해 왔다. 그리고 민간부문의 성장으로 점차 발행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2007년에는 민간기업의 발행규모가 최대치인 6,731억 루피를 기록했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잠시 하향세를 기록하다가 2010회계연도에는 약 3,000억 루피 규모로 증가했다.

공기업의 발행은 금융위기 이전에는 드문 편이었다가, 금융위기 이후 대폭 늘었다. 그 결과 금융위기 이후에는 민간기업보다 공기업의 발행규모가 더 커지고 있다. 대형 자원공기업의 자금조달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2009년 총선 이후 만만한 싱 정권이 보다 많은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공산당과의 연정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그림 3-4.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발행규모 비중



자료: SEBI(2011).

결과 다소 자유롭게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총선 이전에는 부족한 의석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공산당과 연정을 유지해야 했고, 그 결과 공기업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공산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표 3-5.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발행 건수와 규모

	2007~08		2008~09		2009~10		2010~11	
	발행 건수	금액 (Rs. crore)						
민간기업	120	67,311	47	16,220	70	26,438	77	29,385
공기업	4	19,718	0	0	6	31,117	14	38,223
총계	124	87,029	47	16,220	76	57,555	91	67,609

자료: SEBI(2008, 2010).

3) 업종별 발행 현황

업종별 발행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에는 전력부문이 전체 업종 중 43.9%인 2,529억 루피로 가장 큰 규모였고, 그 다음으로 기타부문이 32.1%인 1,846억 루피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차지했다. 이 두 부문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은행업이 전체 중 5.5%인 313억 루피, 시멘트 및 건설업이 4.8%로 278억 루피, 엔터테인먼트가 4.3%인 246억 루피 순으로 많았다. 2010년에는 Coal India를 포함한 기타항목의 비중이 가장 컸는데 3,151억 루피로 46.6%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은행업이 1,724억 루피로 전체의 25.5%를 차지, 전력 및 통신업이 946억 루피로 14%, 시멘트 및 건설업이 4.2%의 규모인 284억 루피, 금융업이 221억 루피로 3.3%를 차지했다. 인도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은행업과 전력 및 통신업이 주식 발행규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특히 2009년

표 3-6. 업종별 발행 건수 및 규모

구분	2009~10년			2010~11년		
	발행 건수	금액 (천만 루피)	비중 (%)	발행 건수	금액 (천만 루피)	비중 (%)
은행	6	3,138	5.5	18	17,248	25.5
시멘트, 건설업	8	2,780	4.8	3	2,841	4.2
화학	1	36	0.1	5	247	0.4
전자	1	1,156	2.0	0	0	0.0
엔지니어링	1	50	0.1	5	1,394	2.1
엔터테인먼트	9	2,461	4.3	4	715	1.1
금융	2	1,826	3.2	3	2,210	3.3
식품가공	2	443	0.8	1	1,245	1.8
의료, 보건	2	1,059	1.8	3	292	0.4
IT	4	540	0.9	1	170	0.3
제지	1	35	0.1	0	0	0.0
플라스틱	1	39	0.1	0	0	0.0
전력	6	25,293	43.9	4	9,469	14.0
인쇄	0	0	0.0	1	52	0.1
통신	0	0	0.0	0	0	0.0
섬유	3	237	0.4	3	207	0.3
기타	29	18,461	32.1	40	31,519	46.6
합계	76	57,555	100	91	67,609	100

자료: SEBI(2008, 2010).

에는 전체 시장의 5.5%에 불과했던 은행업은 2010년에 25.5%로 5배 가까이 성장하였다.

나. 유통시장

1) 증권거래소

유통시장은 발행된 증권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유통시장은 주로 증권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진다.

SEBI에 등록된 증권거래소는 2011년 현재 총 23개이며 주로 현물 거래소이다. 그러나 실제 99% 이상의 거래가 BSE³⁵⁾와 NSE³⁶⁾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머지 거래소는 거의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BSE(Bombay Stock Exchange)와 NSE(National Stock Exchange)에서 각각 99% 이상의 대부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1년 기준 뭄바이 증권거래소(Bombay Stock Exchange)에서는 전체 거래의 34%가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인도정부가 인가한 증권거래소 중 최초이며 처음부터 유일하게 영구적인 인가를 얻은 특권을 가지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인 1992년 11월 설립된 델리 소재 NSE는 납세를 하는 최초의 기업형 증권거래소로 최근 전체 거래의 2/3 가량이 이루어지고 있어 BSE에 비해 거래가 더욱 활발하다.

증권시장의 모든 거래는 전산시스템 방식을 통해 결제되며, NSE에서는 정부 발행 유가증권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채권 거래를 위한 공식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BSE와 NSE의 주가지수는 각각 Sensex,

표 3-7. 증권거래소 및 브로커 추이

	2008~09년	2009~10년	2010~11년	2011년 9월
거래소(현물)	19	19	19	19
거래소(파생상품)	3	4	4	4
브로커(현물)	9,628	9,772	10,203	10,242
기관브로커(현물)	4,079	4,197	4,774	4,817
브로커(파생상품)	1,587	1,705	2,111	2,203
브로커(통화파생상품)	1,154	1,459	2,008	2,070

자료: SEBI(2011).

35) BSE(http://www.bseindia.com/index_op.htm).

36) NSE(<http://www.nseindia.com/>).

Nifty로 인도를 대표하는 주가지수로 사용되고 있다.

증권을 중개하는 브로커들은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데 그중 현물취급 브로커는 2011년 9월 기준으로 1만 200여 개가 등록되어 있고 파생상품 브로커와 통화 파생상품 취급 브로커는 2011년 9월 기준 각각 2,200여 개, 2,000여 개가 등록되어 있다.

2) 거래소별 주가지수, 시가총액, 상장기업 수, 거래량

인도의 주가지수는 1990년대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는 큰 성장이 없다가 2003년 이후 민간기업이 성장하면서 급성장한다. 2003년 이후 2007년까지 급상승을 거듭해 2007년 12월 말 기준으로 BSE는 Sensex 19,827.3포인트를, NSE는 Nifty 5,963.6포인트를 기록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각각 9,513.6포인트(Sensex), 2,895.8포인트(Nifty)로 급락하게 되었으나, 이후 금융위기로 인한 충격을 회복하게 되면서 2010년 12월 말 기준 BSE Sensex는 19,927.6포인트, NSE는 5,971.3포인트를 기록하며,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게 되었다. 최근 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해 전 세계 주가가 낮아지면서 BSE는 15,000포인트대로 다시 떨어진 바 있으나 이미 규모가 커진 상태라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 예전 수준을 회복하고 나아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³⁷⁾

즉 향후 지속적인 인도경제의 고도성장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인도 주식시장의 주가지수 또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37) SEBI(2010), p. 37.

표 3-8. BSE와 NSE의 평균 주가지수 추이

연도	BSE Sensex	NSE Nifty	연도	BSE Sensex	NSE Nifty
2000	4,081.4	1,291.4	2006	13,628.3	3,910.2
2001	3,314.9	1,075.9	2007	19,827.3	5,963.6
2002	3,315.8	1,074.0	2008	9,513.6	2,895.8
2003	5,424.7	1,740.1	2009	17,090.3	5,099.7
2004	6,393.8	2,021.9	2010	19,927.6	5,971.3
2005	9,162.1	2,772.6			

주: 12월 기준 평균 주가.
 자료: SEBI(2011).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상승을 고려할 때, 인도 주식시장 진출은 많은 수익 기회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시가총액은 2005년 12월 기준 BSE가 24.9조 루피, NSE가 23.2조 루피로 비슷한 규모다. 2006년 12월 기준 BSE와 NSE의 시가총액은 각각 36.2조 루피, 34.2조 루피로 근소한 차이로 많은 상장기업을 갖고 있는 BSE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07년 12월에는 71.7조 루피(BSE)와 65.4조 루피(NSE)를 기록하는 등 급성장을 이어갔으나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2008년 12월의 시가총액은 BSE가 31.4조 루피, NSE가 29.1조 루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인도의 증권시장은 빠르게 회복되었고 2009년 12월 기준 시가총액은 BSE가 60.8조 루피, NSE가 57조 루피를 각각 기록하였다. 최근 2010년 12월 기준 BSE 시가총액은 72.9조 루피, NSE의 시가총액은 71.4조 루피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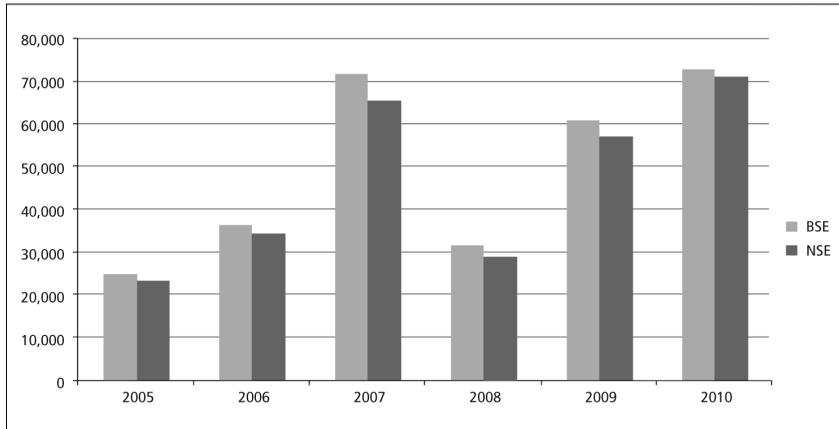
상장기업 수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2010년 3월 말 기준으로 BSE에 4,975개사가 상장되었고, NSE에는 1,470개사가 상장되어 있었다. 그러나

BSE의 상장기업 수는 2011년 8월 기준 5,086개사, NSE의 상장기업 수는 1,579개사로 1년 사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한편 거래금액으로는 NSE가 BSE보다 더 많다. 이는 점차 NSE에 상장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NSE에서 증권 거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3-5. BSE와 NSE의 시가총액 추이

(단위: 10억 루피)



자료: SEBI(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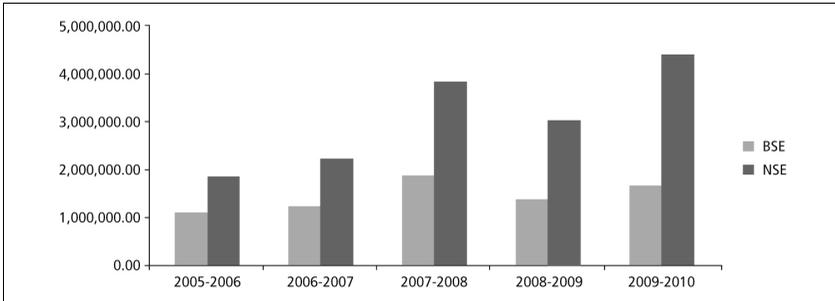
표 3-9. BSE와 NSE에 등록된 기업 수

구분	BSE	NSE
2005~06	4,781	1,069
2006~07	4,821	1,228
2007~08	4,887	1,381
2008~09	4,929	1,432
2009~10	4,975	1,470

자료: SEBI(2011).

그림 3-6. BSE와 NSE의 연간 거래금액 규모

(단위: Rs. crore)



자료: SEBI(2011).

거래금액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 BSE의 거래금액은 8조 1,607억 루피였고 NSE의 거래금액은 15조 6,955억 루피로 NSE가 두배 가까이 많다. 2007년에는 BSE의 거래금액이 9조 5,618억 루피로 증가할 동안 NSE의 거래금액은 19조 4,529억 루피로 늘어나는 등 NSE의 거래규모는 BSE를 계속 앞지르고 있다. 2010년 3월 기준 BSE의 거래금액은 13조 7,881억 루피이며, NSE는 약 3배 가량 많은 41조 3,802억 루피다. 이는 NSE에 상장하는 뮤추얼펀드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BSE와 함께 NSE에서도 증권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 증권회사(뮤추얼펀드) 경쟁 현황

인도의 뮤추얼펀드 산업은 1963년 단위형 투자신탁(Unit Trust of India)의 형태로 인도정부와 중앙은행인 RBI(Reserve Bank of India)에 의해 시작되었다.³⁸⁾

38) 인도 증권시장의 주요 현황은 AMFI(<http://www.amfiindia.com/>)에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이때 설립된 UTI(Unit Trust of India)는 인도 RBI 밑에서 규제와 통제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1978년 이 역할을 IDBI 은행(Industrial Development Bank of India)으로 넘겨주게 된다. 1964년 UTI에 의한 처음으로 자산운용이 시작되었고, 이후 1988년 670억 루피에 달하는 운영자산규모를 기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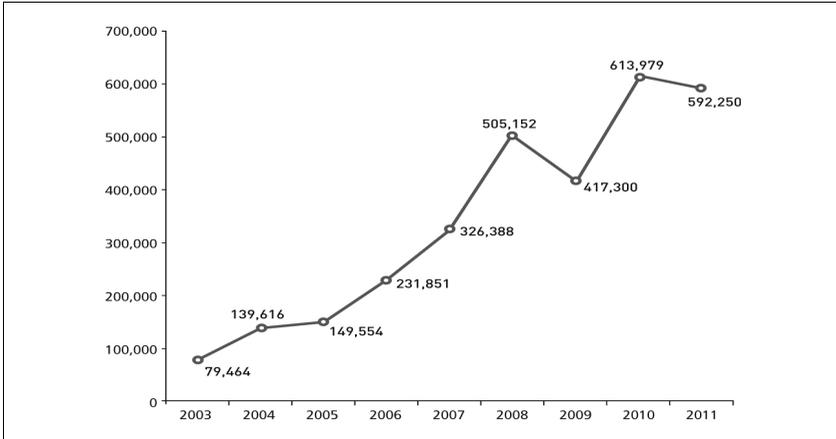
UTI 이외에도 1987년 공공부문 뮤추얼펀드인 SBI Mutual Fund가 설립되었다. 이것은 보험회사인 LIC와 GIC, 공공부문 은행이 세운 것으로 UTI가 아닌 최초의 뮤추얼펀드였다. 이후 Canbank Mutual Fund(1987. 12), Punjab National Bank Mutual Fund(1989. 8), Indian Bank Mutual Fund(1989. 11), Bank of India(1990. 6), Bank of Baroda Mutual Fund(1992. 10) 등이 차례로 설립되었다. LIC는 1989년 6월에 독자적으로 뮤추얼펀드 회사를 설립하였고, GIC 역시 1990년 12월에 독립적으로 뮤추얼펀드를 세웠다.

1993년 말 뮤추얼펀드 산업의 총 운영자산(AUM)은 4,700억 루피였다. 1993년 민간부문에서도 펀드회사가 설립되면서 인도의 뮤추얼펀드 산업은 새로운 도약점을 맞게 되었다. 인도 투자자들에게 폭넓은 펀드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또한 1993년에는 처음으로 뮤추얼펀드 관련 규제가 생겨났는데 이 규제는 정부 관할 아래 있는 UTI를 제외하고 모든 펀드에 적용되도록 하였다. 최초의 민간부문 뮤추얼펀드는 1993년 7월에 설립된 The Erstwhile Kothari Pioneer로 이후 Franklin Templeton에 합병되었다.

뮤추얼펀드 기관과 회사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외국 뮤추얼펀드 회사들이 인도에 세워지고 있다. 또한 합병과 합작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인도의 뮤추얼펀드 산업은 2004년 이후 세계에서

그림 3-7. 인도 뮤추얼펀드의 총운영자산 규모 추이

(단위: 천만 루피)



자료: AMFI(Association of Mutual Funds in India), (<http://www.amfiindia.com/>).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2004년에서 2008년 12월까지 5년간의 CAGR은 29%에 달했다. 이는 당시 세계 평균성장률이 4%임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런 놀라운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뮤추얼펀드 산업의 AUM은 아직 전 세계시장의 AUM 중 0.32%에 불과해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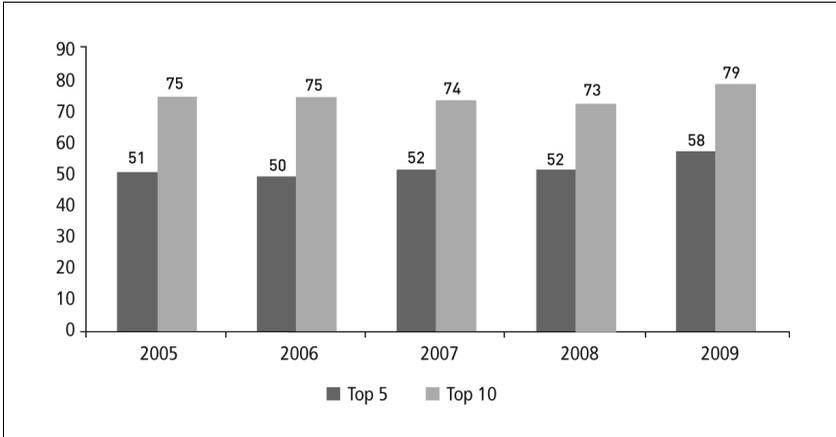
1) 주요 증권회사 현황

인도 증권시장은 전체 증권투자회사 중 상위 5개 회사가 전체 절반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5년 5대 회사의 운영자산규모 점유율은 51%에서 2009년 58%로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³⁹⁾ 미국의 경우 상위 5개

39) 2009년 기준 5대 회사는 Reliance Mutual Fund가 16%, HDFC Mutual Fund가 12%, ICICI Prudential Mutual Fund가 10%, UTI Mutual Fund가 10%, Birla Sun Life Mutual Fund가 10%로 전체 시장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3-8. 인도의 Top 5 회사와 Top 10 회사의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자료: AMFI(<http://www.amfiindia.com/>), Fund-wise Average AUM를 바탕으로 작성.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38%에 지나지 않는 데 비해 인도는 점차 대형 증권회사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상위 10개 회사의 운영자산 비중은 79%에 이르고 있다.

한편 외국의 다른 증권시장에 비해 인도 증권시장은 인도 증권회사의 입지가 상당히 강한 편이며 합작형태의 회사 역시 글로벌 기업의 영향력 보다는 인도기업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5대 회사 중 합작회사가 3개인 상황이다. 2010년 기준 자산순위로는 Reliance, HDFC, ICICI Prudential, Birla Sun Life, UTI였으나, 2011년 9월 말 기준 자료에서는 HDFC가 9,183억 루피로 자산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뒤를 Reliance 9,066억 루피, ICICI Prudential이 7,521억 루피, Birla Sun Life가 6,421억 루피, UTI가 6,257억 루피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매년 각 증권회사별 자산순위와 성장률에는 변동이 있었으나 상위 5개 회사는 변하지 않고 여전히 시장을 이끌어가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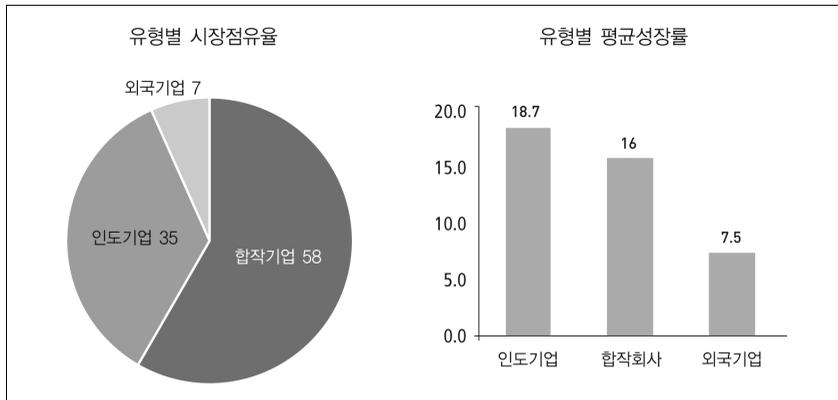
임을 볼 수 있다. 또한 HDFC와 Reliance가 선두를 두고 다투는 양상이다. 이들의 운영자산규모는 약 9천억 루피로 우리 돈으로 약 20조 원 정도로 매우 큰 규모라 할 수 있다.

총 운영자산 규모순 뮤추얼펀드사 20위권 회사는 인도로컬, 합작회사, 외국계 단독회사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이 유형별로 살펴본 평균성장률은 인도기업이 18.7%로 가장 높았으며 합작회사가 16%로 그 다음이었다. 외국계 회사는 7.5%의 성장률을 보였다. 인도의 뮤추얼펀드 산업 내 운영자산규모에서는 합작기업의 비중이 58% 정도로 인도 국내 기업의 비중인 35%보다 크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외국계 기업이 7%를 차지하였다. 즉 인도 내 증권시장에서는 외국계의 단독형태보다는 합작형태 회사의 비중이 매우 크고, 성장률도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림 3-9. 유형별 평균성장률과 시장점유율

(단위: %)



주: 평균성장률은 운영자산의 연평균성장률을 의미.

자료: AMFI(<http://www.amfiindia.com/>), Fund-wise Average AUM를 바탕으로 작성.

[표 3-10]은 인도의 20대 뮤추얼펀드의 유형과 성장률을 보여주는 표로서 대부분 10~20%의 연평균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뮤추얼펀드사 수로는 인도 국내기업이 11개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합작기업이 7개, 외국계 기업이 2개임을 알 수 있다. 운영자산(AUM) 규모에서 각 회사의 비중을 보면 HDFC와 Reliance가 각각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ICICI가 11%, Birla Sun Life와 UTI가 각각 10%씩 차지하고 있다. SBI는 7%, Franklin Templeton와 Kotak Mahindra, DSP가 각각 5%씩 차지하고 있는데 2009년 상위 5개 뮤추얼펀드 회사의 비중이 58%였던 것에 비해 2011년에는 상위 5개 뮤추얼펀드 회사의 비중이 49% 정도로 조금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절반이상의 비중을 상위 5개 회사가 차지하고 있고 5위권 바깥의 펀드 회사들의 운영자산규모는 큰 변동이 없다.

표 3-10. 인도의 20대 증권회사(Mutual Fund) 현황(2011년 9월 30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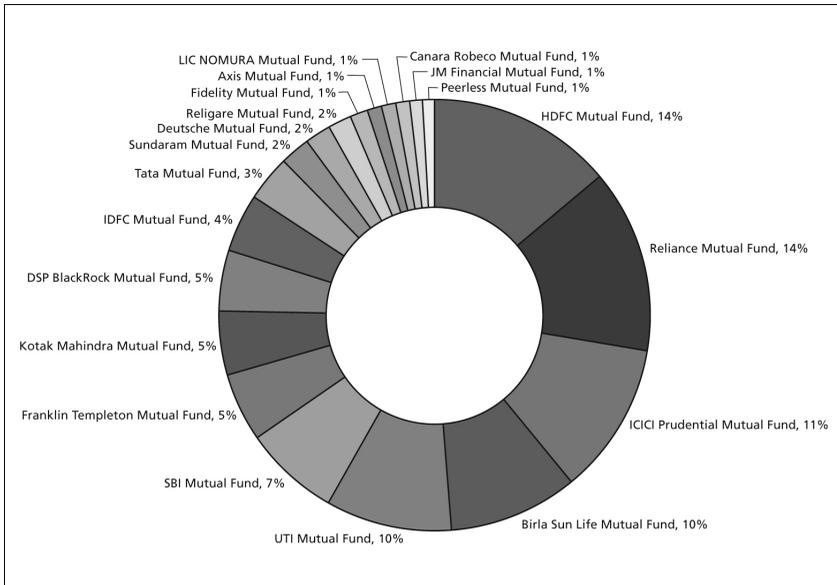
운영자산 순위	Mutual Fund 이름	유형	운영자산 (억 루피)	연평균성장률 (%)
1	HDFC Mutual Fund	Joint Ventures	9,183	23
2	Reliance Mutual Fund	Indian	9,066	20
3	ICICI Prudential Mutual Fund	Joint Ventures	7,522	15
4	Birla Sun Life Mutual Fund	Joint Ventures	6,422	26
5	UTI Mutual Fund	Indian	6,258	11
6	SBI Mutual Fund	Joint Ventures	4,773	21
7	Franklin Templeton Mutual Fund	Foreign	3,441	6
8	Kotak Mahindra Mutual Fund	Indian	3,210	21
9	DSP Black Rock Mutual Fund	Joint Ventures	3,008	17
10	IDFC Mutual Fund	Indian	2,891	25
11	Tata Mutual Fund	Indian	2,263	9

표 3-10. 계속

운영자산 순위	Mutual Fund 이름	유형	운영자산 (억 루피)	연평균성장률 (%)
12	Sundaram Mutual Fund	Indian	1,511	17
13	Deutsche Mutual Fund	Indian	1,276	12
14	Religare Mutual Fund	Indian	1,104	9
15	Fidelity Mutual Fund	Foreign	912	9
16	Axis Mutual Fund	Indian	754	28
17	LIC NOMURA Mutual Fund	Joint Ventures	707	-7
18	Canara Robeco Mutual Fund	Joint Ventures	692	17
19	JM Financial Mutual Fund	Indian	647	7
20	Peerless Mutual Fund	Indian	561	46

주: Joint Ventures는 합작투자, Indian은 인도 로컬기업, Foreign은 외국계 단독투자형을 의미.
 자료: AMFI(<http://www.amfiindia.com>), Fund-wise Average AUM 2011.

그림 3-10. 자산규모순 20개사 운영자산 비중



자료: AMFI(<http://www.amfiindia.com/>), Fund-wise Average AUM 2011을 바탕으로 작성.

3. 주요 증권사 사례 분석

이 장에서는 개별 증권회사의 사례를 투자유형별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인도 증권사 운영자산 순위 상위권은 주로 외국·인도기업 간의 합작회사들이 차지하고 있다. 상위 5개의 증권회사들 중 3개 회사가 합작회사이며 외국계 기업들의 투자와 마케팅 전략에 인도 현지 회사의 인지도와 네트워크를 이용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외에도 인도 내 대기업인 Reliance 그룹의 Reliance 뮤추얼펀드와 UTI 등 인도 로컬기업의 활약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외국계 단독기업으로는 Franklin Templeton사가 7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기업으로는 미래에셋증권이 유일하게 인도로 진출해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 증권시장 내에서 입지를 굳히려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30위권 밖이다. 각각 다른 투자 유형을 가진 증권사들은 차별화된 전략과 마케팅으로 인도의 증권금융시장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인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해 인도 중산층들이 점차 거대한 고객층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인도의 증권시장 잠재력은 충분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상위권 증권회사들의 사례를 통해 진출 전략 및 성공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한 내용이 아래 표에 나타나 있다. 개별회사의 홈페이지에 공시된 각종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각 회사별로 성공 전략이 다소 차별화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확인되었다.

표 3-11. 투자유형별 사례분석대상 기업의 진출 전략과 핵심역량

투자유형	기업명	운영자산 순위	진출 전략/핵심역량
외국·인도 합작 투자형	HDFC Asset Management Company	1위	투자자이익 중심/ 리스크 관리 역량
	ICICI Prudential Asset Management	3위	고객 자문 서비스 중심/ 포트폴리오 관리 역량
	Birla Sun Life Asset Management Company (BSLAMC)	4위	가치투자 중심/ 기초연구 역량
인도 로컬	Reliance Capital & Reliance Mutual Fund	2위	투자자 신뢰 구축 중심/ 브랜드 역량
	UTI Mutual Fund & UTI Asset Management	5위	전문화된 펀드 운용 중심/ IT 기반, 펀드매니저의 전문성
외국 단독투자형	Franklin Templeton Mutual Fund	7위	장기투자 중심/ 브랜드 역량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 Management India	38위	First-in 전략 중심/ 팀 어프로치 역량

자료: 저자 작성.

가. 외국·인도 합작투자형 증권회사

1) HDFC Asset Management Company(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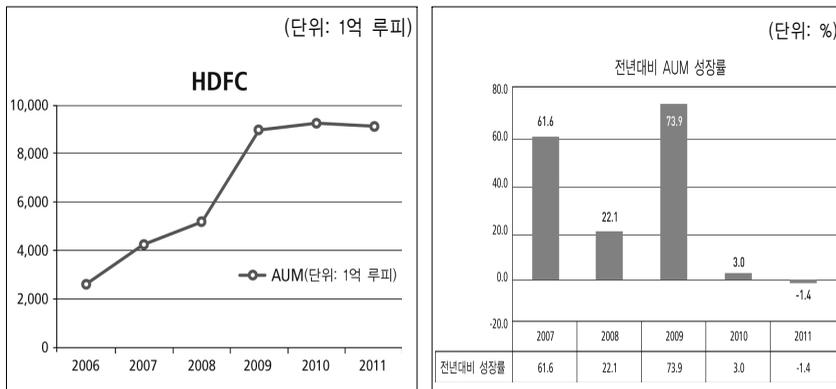
HDFC Asset Management Company⁴⁰⁾는 영국 투자 회사인 Standard Life Investments와 합작형태의 회사이며 뮤추얼펀드를 운영하면서 자금조달을 위해 상품을 기획하여 판매하는 자산운용을 중심으로 하는 증권회사다. HDFC Asset Management Company는 1999년 「Companies Act, 1956」 아래 설립되었으며 현재 뭄바이에 위치하고 있다. 2003년, Zurich India Mutual Fund의 자산운용을 맡았던 Zurich Insurance Company가 HDFC Asset Management Company로 명칭이 바뀌었다.

40) HDFC Mutual Fund(<http://www.hdfcfund.com>).

HDFC의 운영자산은 2006년 2,635억 루피에서 2007년 4,258억 루피로 늘었으며 이후 2008년 5,200억 루피에서 2009년 9,043억 루피로 급증하였다. 2009년 이후 약 9,000억 루피대의 운영자산(AUM)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1년 9월 30일 기준 HDFC의 AUM 규모는 9,183억 루피를 기록하면서 상대적으로 운영자산규모가 줄어든 Reliance Mutual Fund를 제치고 운영자산규모 1위에 올랐다. 2006년에서 2011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은 23%로 5대 기업 중 Birla Sun Life의 26%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성장을 보였다. 금융위기 이후 2009년에 전년대비 74%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면서 급부상했다.

HDFC Mutual Fund는 인도의 뮤추얼펀드 시장에서 고객들에게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투자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HDFC Mutual Fund는 계속해서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3-11. HDFC의 운영자산(AUM)과 전년대비 성장률



자료: HDFC Mutual Fund(<http://www.hdfcfund.com>).

리스크 관리 역량에 기반한 투자자 이익 우선주의로 승부

HDFC Mutual Fund는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투자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 즉 투자자 이익 우선주의에 치중하고 있다. 무엇보다 결과로서 나타나는 투자자의 이익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시장의 각종 리스크에 영향받지 않도록 하는 리스크 관리 역량이 매우 중한데, 이를 위해 당사는 인도시장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위한 기반연구와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상품을 출시할 때 항상 가장 최근의 정보를 반영해 고객의 니즈에 맞추고 있으며 특히 신성장부문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많이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산관리와 리스크 관리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투자자들이 그들의 투자 대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ICICI Prudential Asset Management Company (3위)



ICICI Prudential Asset Management Company⁴¹⁾는 인도 내 2번째로 규모가 큰 상업은행인 ICICI Bank와 영국의 가장 큰 금융회사인 Prudential PLC의 합작형태의 회사다. 평균 운영자산규모는 2011년 9월 기준 7,522억 루피로 3위에 해당된다.

포트폴리오 관리 역량에 기초한 고객 자문 서비스 중심

ICICI Prudential은 광범위한 지점망을 갖고 있는 비교우위를 기반으로

41) ICICI Prudential(<http://www.icicipruamc.com/Homepage.aspx>).

고객 포트폴리오 관리 자문 서비스에 중심을 두고 있다. 실제로 포트폴리오 관리 서비스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전 세계시장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인도 전역 160개 이상의 지점을 두고 있어 고객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ICICI Prudential은 포트폴리오 관리 서비스 강화를 위해 선별된 고객들의 투자수요에 맞게 투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2000년 ICICI Prudential은 인도 최초로 금융기관들과 HNIs(High Networth Individuals)에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그로부터 10년 넘게 이어져 온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경험으로 인해 이 분야에서 성공적인 실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오늘날 7,000명이 넘는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를 받는 고객들이 ICICI 서비스의 품질과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고객 한명 한명에 각각 알맞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객의 니즈와 투자 목표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을 파악해 그 요구와 목표를 충족시키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ICICI의 또 다른 차별화 전략 서비스 중 하나는 자문 서비스로, ICICI Prudential의 해외 자문지점은 일본과 중동, 타이완과 싱가포르를 포함하는 지역을 묶어 관할하고 있으며 이 지역들의 역외펀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2011년 6월 30일 기준으로, 주식, 채권, 부동산을 포함한 누적자산 15억 4천 달러에 해당하는 규모에 대해 자문을 제공했다. 역외펀드의 운용 경험과 모회사의 기반을 통해 얻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로 역외투자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 수준 높은 onshore 투자 인사이트와 정보

- 광범위한 기반연구 능력
- 투자 대상 기업의 평판, 비전, 실행 능력에 대한 심층 지식
- 기업지배구조의 즉각적인 이해

인도의 가장 큰 자산관리회사 중 하나로 성장한 ICICI Prudential은 국내외 고객들과 소매 투자자들로부터 성공적인 실적을 가진 회사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해외의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대규모 자금을 맡길 수 있는 회사로서 신뢰받고 있다.

3) Birla Sun Life Asset Management Company (BSLAMC) (5위)



Birla Sun Life Asset Management Company(BSLAMC)⁴²⁾는 Birla Sun Life Mutual Fund의 투자회사로 Aditya Birla Group과 캐나다의 Sun Life Financial Services Inc.의 합작회사다. 인도시장 내에서의 Aditya Birla Group의 경험과 Sun Life의 글로벌 경험을 성공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1994년 설립된 Birla Sun Life Mutual Fund는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범위의 투자 옵션(diversified & sector specific equity schemes, fund of fund schemes, hybrid & monthly income funds, debt & treasury products, offshore funds)을 제공한다.

기초연구 역량을 기반으로 가치투자에 중심

Birla Sun Life Asset Management Company는 인도 증권업계 내에서

42) Birla Sun Life Asset(<http://mutualfund.birlasunlife.com>).

가장 높은 기초연구역량을 기반으로 기업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가치투자에 중심을 두고 있다. 이 회사는 인도 증권산업 내에서 가장 큰 분석가 그룹을 보유하고 있어, 기초연구에 바탕을 둔 투자와 재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이 회사의 보고서에는 인도경제 전반에 대한 통찰을 제시하는 우수한 보고서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뛰어난 투자 결과를 지속해서 달성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자본을 늘리고 잘 조직된 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역량을 통합하고 있다.

Birla Sun Life Asset Management의 기초연구는 투자대상 회사의 운영 수준과 비즈니스 모델의 안정성, 비교 경쟁우위 등이 포함되며, 인도경제 전반에 대한 연구도 포함된다. ‘Investing with Bottom Style’이라는 기업 철학 아래 평균성장률 이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투자와 높은 수익률을 내는 투자를 잘 조합해 투자하고 있다. 기초 분석 결과 지속적으로 경쟁우위를 지닐 수 있는 대상 회사를 찾고 24~36개월간의 투자를 통해 성장률과 리스크 반영률을 살펴본 다음 이를 토대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마케팅 부분의 전략은 주로 현지기업인 Adity Birla Group 측이 담당하고 있으며, TV광고와 인터넷 배너들을 이용한 프로모션을 하고 있다.

나. 인도 로컬 증권회사

- 1) Reliance Capital Ltd & Reliance Mutual Fund(2위)



HDFC와 1위를 다투고 있는 Reliance Capital은 타타와 함께 인도 내 최대 기업집단인 Reliance 그룹에 속해 있다. 자산운용과 뮤추얼펀드,

portfolio management services와 pension funds, 생명보험과 주식, 채권, 은행투자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Reliance Capital Limited(RCL)는 1986년에 구자라트(Gujarat) 주의 Ahmedabad 에서 Reliance Capital & Finance Trust Limited라는 회사로 설립되었다. 이후 1995년 Reliance Capital Limited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Reliance Capital은 1990년 최초로 공모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으며 몇 년 후 주식과 공모채를 발행하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자 아마다바드 증권거래소와 뭄바이 증권거래소에 주식이 상장되었다. 현재는 BSE와 NSE에 등록되어 있다. 2006년 3월에는 인도의 가장 큰 민간부문 펀드회사로 떠올랐으며 그때까지 선두를 달리던 ICICI Prudential을 따라잡았다. Reliance Capital은 2006년 9월 기준 2,992억 루피에서 2007년 6,983억 루피로 급증하였으며 이후 2009년에는 1조 1,825억 루피를 기록하는 등 인도 내의 뮤추얼펀드회사 운영자산 1위 자리를 지켜왔다. 그러나 2010년 1조 775억 루피와 2011년 9,066억 루피로 그 규모가 줄어들면서 HDFC Mutual Fund와 순위가 바뀌게 되었다. 2006년에서 2011년의 연평균성장률은 2006년과 2007년의 높은 성장률로 인해 20%로 나타났으나 2009년 이후 운영자산규모는 다소 감소한 상태다.

Reliance는 다양한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데, The Equity/Growth scheme은 중장기적으로 자본이 증가하는 상품으로 투자의 대부분이 주로 주식에 있으므로 상당히 높은 리스크를 지니고 있다. 꾸준하고 정규적인 수익을 원할 경우 Debt/Income Scheme 상품이 있는데 발행 시에 결정된 일정 이자가 상환 시까지 지급이 약속되며, 국공채, 사채 등에 투자한다. Sector Specific Scheme 상품은 주로 산업발전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투자자들의 안목에 의해 특정 산업의 성장에 투자하는 것이다.

브랜드 역량에 기반해 투자자 신뢰 구축 중심

Reliance Mutual Fund는 Reliance가 갖고 있는 브랜드파워에 기반해 투자자 신뢰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인도 내의 가장 큰 기업집단 중 하나인 릴라이언스 그룹 소속 기업이라는 브랜드가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므로 다른 증권사에 비해 인지도가 높다. 게다가 Reliance는 계속해서 혁신적인 상품을 제공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계획해서 성장률과 실적 면에서 고객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인도 내 주요 증권사가 되었다. Reliance의 목표는 꼼꼼한 고객관리(customer care)와 잘 짜여진 시스템을 통해 고객들의 자산운용에 도움을 주고 이익을 가져다줌으로써 국제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Reliance Mutual Fund는 꾸준히 투자자들의 요구와 관심을 반영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700만 명 이상의 투자자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인도 전역에 걸쳐 265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으며 두바이, 싱가포르, 모리셔스, 영국에도 지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Reliance Mutual Fund는 여러 종목에 분산투자함으로써 인도 내의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해외투자 역시 실시하고 있다(Rastogi 2009).

2) UTI Mutual Fund & UTI Asset Management (5위)



UTI Mutual Fund는 2003년 설립되었으며 관련 회사의 이름은 UTI Asset Management Co.(UTIAMC)이다. UTIAMC는 UTI 뮤추얼펀드의 모든 비즈니스 서비스를 지원하는 투자회사로 1993년 설립되었고 2004년 SEBI에 등록되었다.

2011년 9월 말 기준 운영자산총액은 6,258억 루피이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148개의 UTI Financial Centres(UFCs)를 인도 전역에 가지고 있으며 해외지점은 영국, 두바이, 바레인 에 각각 두고 있다.

UTIAMC의 펀드 운용팀은 검증되고 전문적인 펀드 매니지먼트 팀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은 회사 내 리서치 부서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리스크 관리팀 역시 따로 두고 있다.

IT 기반, 펀드매니저의 전문성에 기반한 전문화된 펀드 운용 중심

UTIAMC는 펀드 운용에 있어서 효율성과 실적이 높일 수 있도록 펀드매니저들을 교육하고 육성하여 전문성을 높이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⁴³⁾ 또한 리스크 관리팀을 따로 두어 펀드 운영과 연계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이들 또한 펀드매니저를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IT기술을 빠르게 활용하고 있다. 웹 상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며, 투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프론트 오피스 시스템(Front office system)을 운영하고,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등 IT기술을 빠르게 활용하고 있다. 또한 투자자들은 월별 포트폴리오 상황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서비스 즉 UTI Fund Watch,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Automatic Trigger Option, Systematic Withdrawal Plans 등을 제공받을 수 있고, UTI SIP(UTI Systematic Investment Plan) 서비스를 이용하면 조기 투자 및 정기 투자를 할 수 있

43) http://www.utimf.com/downloads/SIP%20Presentation07_2007_V1.0.pdf

다. 또한 투자자들에게 UTI 은행의 ATM 기계를 통한 투자가 가능한 서비스와 상품에 관련된 정보를 휴대전화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 또한 제공된다.

다. 외국 단독투자형 증권회사

1) Franklin Templeton Mutual Fund(7위)



인도 내에 외국계 단독으로 투자한 회사 중에서 가장 큰 회사는 Franklin Templeton Asset Management India로 1996년 설립되었다. Templeton India Growth Fund를 1996년에 런칭하면서 뮤추얼펀드 사업을 시작했고,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2011년 9월 기준 운영자산이 3,441억 루피로 외국계 단독회사 중 1위다.

Franklin Templeton India 또한 단독투자회사지만 사실상 인도 회사의 인수합병을 통해 성장했다. 인도의 펀드회사인 Pioneer ITI를 2002년 인수하면서 빠르게 성장했다. 이로 인해 Franklin Templeton은 인도시장에서의 풍부한 투자 경험과 포괄적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두 회사가 합쳐지면서 생겨난 시너지 효과로 인해 급격히 성장하였다. 당시 Pioneer ITI는 400억 루피의 운영자산과 인도 전역에서 74만 개의 투자계정을 보유하고 있었다.

브랜드 역량에 기반한 장기투자 중심

Franklin Templeton은 장기투자 분야에 강점을 가진 기존 브랜드 파워를 기반으로 인도 내에서도 장기투자에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했다.⁴⁴⁾

44) <http://www.info2india.com/finance/mutual-funds/franklin-templeton-mutual-funds.html>

1947년에 미국에서 설립된 Franklin Templeton은 개별 기업에 대한 철저한 펀더멘털 및 성장가치 분석에 의거한 투자로 유명하며, 주로 장기 성장형 주식과 산업펀드에 투자하는 글로벌 증권회사다.

Franklin Templeton은 장기투자라는 당사의 강점을 인도 사업에도 투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장기간 투자가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인도 내 고객들에게 설득시키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세미나에 참여를 유도하고 거래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현재 Franklin Templeton은 증권산업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제공하는 방향키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으며 장기 플레이어로서 계속해서 개인과 기관 투자자 모두를 위해 ‘투자를 위한 뮤추얼펀드’ 매뉴얼을 만들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기존의 장기투자자로서의 명성과 브랜드를 더욱 강화시키면서 상승작용을 보이고 있다.

또한 Franklin Templeton은 Open-ended형과 Close-ended형 등 다양한 장기형 뮤추얼펀드 상품을 제공한다. 이러한 상품들은 인도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많은 투자자들이 서슴없이 선택하고 있는 이유는 회사가 가진 브랜드 파워 때문이다.

또한 프랭클린은 펀드를 장기와 단기,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투자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몇 개의 펀드는 단기로, 몇 개의 펀드는 장기로 나누고 투자자들이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해 포트폴리오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카테고리 구분은 장기 펀드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넓혀 준다. 투자자들이 장기 펀드에 투자하는 이유는 리스크는 적고 이익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Franklin Asian Equity 펀드는 아시아의 큰 잠재력을 가진 회사들에 투자해 상당한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가져다주고 있다.

2)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 Management India(38위)



국내에서 유일하게 인도 내 증권사업 거점을 갖고 있는 미래에셋은 2006년에 인도에 법인을 설립했다. 1997년 설립된 미래에셋은 8개의 금융 계열사를 갖고 있으며, 한국 최초로 뮤추얼펀드를 도입하였고 또한 최초로 해외 현지법인이 운용하는 해외펀드를 출시하였다. 2006년 인도 현지 법인을 설립한 후 현지인을 대상으로 펀드 판매를 시작했다. 이러한 해외 진출로 현재 서울, 홍콩, 인도, 중국, 베트남을 연결하는 운용사 중심의 아시아 네트워크를 통해 아시아 시장을 연결하고 있는데 이머징마켓 펀드 5개 해외법인 중 인도, 브라질 등 3개 법인에서 현지 설정 펀드를 판매하고 있다. 미래에셋은 이머징 마켓 전문가로서 고객의 성공적인 투자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선도자 역할을 하고 있으나 아직 인도 내에서 운영자산규모는 2011년 9월 기준 45억 루피, 한국 돈으로 약 1,000억 원 정도다. 이는 한국의 경쟁업체들에 비해서는 매우 큰 금액이라 할 수 있으나, 인도 증권시장을 주도하는 상위업체에 비하면 1%에도 못미치는 낮은 수준이다(HDFC의 0.5% 수준).

팀 어프로치 역량에 기반한 First-in 전략 중심

미래에셋은 팀어프로치 역량을 기반으로 최초진입(First-in) 전략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⁴⁵⁾ 전 세계에 존재하는 5개 해외법인은 해외 운용 인력과 리서치팀들 간 정기적 회의와 활발한 정보 교환을 통해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것이다.

45) 매일경제신문(<http://economy.hankooki.com/lpage/stock/201105/e20110526170354117640.htm>)

이러한 팀어프로치 역량을 기초로 미래에셋은 최초진입(Fist-In) 전략을 내세워 가능성 있는 시장에 가장 먼저 진출해 입지를 다지고 있다. 이러한 최초진입 전략에 따라 2000년부터 이머징 시장의 성장가능성을 믿고 홍콩 등 해외시장에 현지법인을 세웠다. 또한 2005년 국내 운용사 최초로 해외 현지에서 직접 운용하는 해외펀드를 국내에 출시했고 2006년에는 한국 증권회사 최초로 인도 현지에 법인을 설립해 현지인을 대상으로 펀드 판매를 시작했으며 2008년에도 국내 자산운용사 최초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역외펀드(SICAV)를 룩셈부르크에 설정해 홍콩과 유럽의 각 지역에 판매하고 있다.

인도 현지 투자자들에게는 아시아·태평양 투자 상품을 제공하고 국내 투자자에게는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도 투자 기회를 넓히고 있는 실정이다. 인도 현지 고객을 대상으로 인도 펀드를 운용하고 있으며 인도 시장에 대한 현지 리서치를 통해 좀 더 정확하고 수준 높은 자문 서비스를 국내외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해 인도시장을 담당하는 펀드매니저를 구성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또한 강점이다. 그러나 아직 선진 증권사들에 비해 인도 내에서 그 규모와 역량이 다소 낮은 것이 현실인 바 이러한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도약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한국의 인도 증권산업 진출 확대방안

먼저 인도시장은 잠재력이 큰 시장인 동시에 리스크 역시 높은 시장이므로 단기적인 투자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분석과 연구를 통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주된 리스크 요인으로는 열악한 인프라, 복잡한 행정절차와 부패한 관료주의 등이며, 잠재력으로는 부상하는 인도기업의 잠재력, 인도 내수시장의 성장에 따른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 소득향상에 따른 중산층 증가, 막대한 인구나 높은 젊은층 인구 비율, 빠른 인구 증가 등이다.

한편 인도의 증권업은 여타 금융산업에 비해 인도 내에서 규제가 가장 적은 편이며, 특히 외국기업들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분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식시장을 상대로 한 증권업 진출은 한국 투자자들에게 한국과 인도 양 시장 사이의 글로벌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진출이 가능한 분야라 할 수 있다. 특히 인도시장의 고위험·고수익 투자대상과 한국시장의 저위험·저수익 투자대상 간의 조합은 한국 투자자들에게 곧바로 새로운 시너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 확실하다. 또한 장기적으로 인도 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역시 향후 늘어날 중산층 인구의 수요를 고려하고, 현재 시장지배적 증권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유망한 분야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외국계 유수 기업들 또한 많이 진출해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인도에 진출한 국내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이 유일하다. 현재 독자적인 외국계 금융기관으로 진출해 있으며 현지 전문인력과 연구 분석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경우에는 우수한 현지기업과 합병을 통해 자산운용 업무를 중심으로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인도 주식시장 내에서는 인도 현지기업과 외국회사와 현지기업의 합작기업이 강력한 영향력과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계

단독회사는 비중이 적다. 뮤추얼펀드 회사 Top 20위 안에도 인도기업이 10개일 만큼 점유율이 높은 편이며, 외국계 단독회사의 경우에는 그리 실적이 높지 않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진출하려는 인도 금융시장에 대한 사전조사와 전략이 필요하다.

인도 증권시장 진출 전략의 방향에 대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합작형태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미래에셋의 진출과는 달리 현지기업과 합작형태가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도 주식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시장으로의 지식과 네트워크 접근 역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도의 문화적인 배경에는 인도 안의 경제활동은 어떤 형태로든 인도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정서가 있으므로 브랜드에 있어서도 외국계 기업의 단독형태보다는 합작형태가 좀 더 고객층에 다가가기 쉬우며 브랜드 인식에도 유리할 것이다. 현재 5위권 안의 외국계 합작회사들인 HDFC Asset Management Company, ICICI Prudential Asset Management Company, Birla Sun Life Mutual Fund 등은 외국계 단독회사보다 평균성장률과 함께 실적이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점차 독자적으로 분리되어 나와서 단독형태의 기업으로 다시 운영해 나가는 것 또한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다.

둘째, 시장과 고객에 대한 철저한 사전분석이 필요하다. 진출 이후에는 투자자들의 이익과 관심을 고려한 상품을 설정해야 하므로 확고하고 구체적인 고객층을 타겟으로 선정한 후 철저한 사전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 많은 펀드 회사들이 고객의 요구와 포트폴리오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고 제공하고 있으나, 한 분야에 특화된 상품은 드문 편이다. 점차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교육 분야 투자 펀드나, 아직 다른 신흥국에 비해 인프라

가 열악한 편이므로 인프라에 관련된 펀드를 구성하는 것도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돌려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셋째, 조세 위험에도 대비해야 한다. 2011년 9월 KOTRA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인도 진출 기업의 조세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인도의 조세체계는 복잡하고 세율이 높으며 모호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유명하다. 고질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인도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외국투자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업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독일 등 외국인 투자기업 전반에 대한 세무조사가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것은 외국기업의 투자를 침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조세제도를 파악하지 못할 경우 운영결과가 좋더라도 고객들과 회사에 이익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므로 조세제도에 대한 대처 방안이 필수적이다. 기업 내부적으로도 인도의 세무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보유하거나 외부전문가와도 협력을 통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진출 지원 또한 필요하다. 국내 기업이 인도 주식시장 진출 시 인도정부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한국정부와 인도정부의 협력을 통한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증권시장에 대한 인도정부의 규제는 금융시장 중 가장 자유로운 편이나 절차상의 까다로움과 지연이 있을 수 있어 이러한 점을 원활히 하는 데 정부 간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 및 기관과 인도 정부기관과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 제도적 효율성을 높이고 현지 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통한 규제 관련 정보 교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기업활동에 관련된 각종 부서 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는 것 역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정부는 국내에 인도 증권업 관련 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에 증권업 진출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가 매우 부족한 점을 감안해 증권업 진출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 내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정보와 자문을 지원할 수 있는 형식이나, 책자 발간 사업 등 각종 정보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 한국의 인도 증권시장 진출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현재 미래에셋이 유일하게 진출해 있으나, 인도 증권회사 중 운영자산 순위가 38위에 불과하고, 외국기업들의 주된 진출 유형인 합작투자 형식의 진출은 아직은 전무한 상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거대시장인 인도시장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인도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진출은 다른 나라나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상당히 뒤쳐진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보다 적극적인 진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11년에 BNP Paribas, Goldman Sachs와 일본의 Daiwa 등이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인도 증권금융시장에 진출한 것은 국내 증권사들과 자산운용사들의 진출에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제4장 인도의 보험산업

1. 인도 보험산업의 개요
2. 인도의 보험시장과 투자여건
3. 한·인도 보험산업 협력 확대방안



1. 인도 보험산업의⁴⁶⁾ 개요

가. 현황

FY⁴⁷⁾2009년 현재 인도 보험시장의 규모는 총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세계에서 약 1.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세계 12위에 해당하며 인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내수시장의 양적 팽창으로 인하여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06년 인도 보험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다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기록적인 성장세는 완화되었다. 그러나 인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으며 이로 인해 2008년

표 4-1. 총수입보험료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9	2008	세계시장 비중(2009)
미국	1,139,746	1,239,747	28.03
캐나다	98,840	104,357	2.43
영국	309,241	395,627	7.61
프랑스	283,070	275,880	6.96
독일	238,366	241,955	5.86
일본	505,956	483,083	12.44
중국	163,047	140,814	4.01
한국	91,963	90,623	2.26
인도	65,085	55,527	1.60
아프리카	49,287	52,829	1.21
오세아니아	67,241	78,543	1.65

자료: Swiss Re(2011), Sigma No. 2/2011.

46) 본 연구는 서대교, 신중협(2011)을 수정·보완하였다.

47) FY는 fiscal year의 약자로 회계연도를 말함.

표 4-2. 인도의 최근 5년 총보험료 성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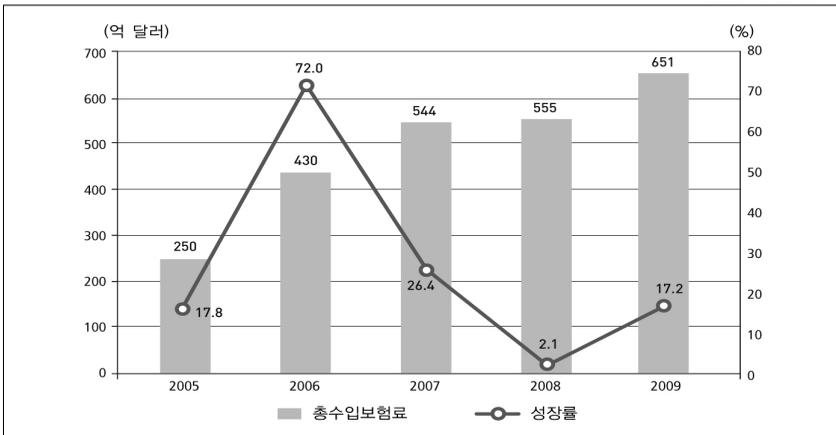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총수입보험료	성장률	세계시장 비중
2005	25,024	-	0.73
2006	43,032	72.0	1.16
2007	54,375	26.4	1.34
2008	55,527	2.1	1.32
2009	65,085	17.2	1.60

자료: Swiss Re(2006~10).

그림 4-1. 인도의 최근 5년 총보험료 성장 추이

(단위: 억 달러, %)



자료: Swiss Re(2006~10).

이후 인도 보험시장은 회복세를 보여 2009년 인도의 총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대비 17.2% 상승한 약 651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2009년 실질보험료 성장 추이를 살펴보면 생명보험산업의 경우 인도는 선진국이나 신흥시장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지만 손해보험부문은 아시아나 신흥시장에 비해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세계평균과 비하여 인도 보험시장은 매우 높은 발전을 보이고 있다.

표 4-3. 2009¹⁾년 실질보험료 성장 추이

(단위: %)

지역/국가	생명보험	손해보험	합계
선진국	-2.8	-0.6	-1.8
신흥시장	4.2	2.9	3.5
아시아	1.8	5.6	2.8
인도 ²⁾	10.1	1.6	9.0
세계	-2.0	-0.1	-1.1

주: 1) 이는 역년(calendar year) 기준으로 2009년을 의미함.

2) FY2009.

자료: Swiss Re(2011), Sigma No. 2/2011.

표 4-4. 인도의 최근 5년 보험밀도 및 보험침투도

구분	세계						인도					
	보험밀도(달러)			보험침투도(%)			보험밀도(달러)			보험침투도(%)		
	총계	생보	손보	총계	생보	손보	총계	생보	손보	총계	생보	손보
2005	518.5	299.5	219.0	7.5	4.3	3.2	22.7	18.3	4.4	3.1	2.5	0.6
2006	554.8	330.6	224.2	7.5	4.5	3.0	38.4	33.2	5.2	4.8	4.1	0.6
2007	607.7	358.1	249.6	7.5	4.4	3.1	46.6	40.4	6.2	4.7	4.0	0.6
2008	633.9	369.7	264.2	7.1	4.9	2.9	47.4	41.2	6.2	4.6	4.0	0.6
2009	595.1	341.2	253.9	7.0	4.0	3.0	54.3	47.7	6.7	5.2	4.6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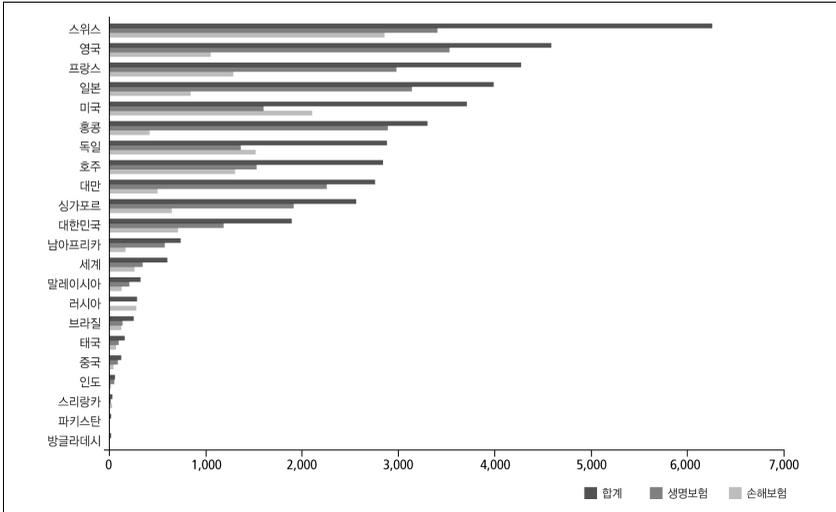
자료: Swiss Re(2006~10).

FY2009년 현재 보험밀도(1인당 보험료)는 54.3달러로 세계평균 595.1달러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보험침투도⁴⁸⁾ 역시 5.2%에 불과하여 세계평균 7%에 비해 낮아서 보험밀도와 보험침투도의 관점에서 비추어 볼 때 인도의 보험시장은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 할 수 있다.

48) 보험침투도는 GDP 대비 수입보험료 비중을 말한다.

그림 4-2. 각국의 보험밀도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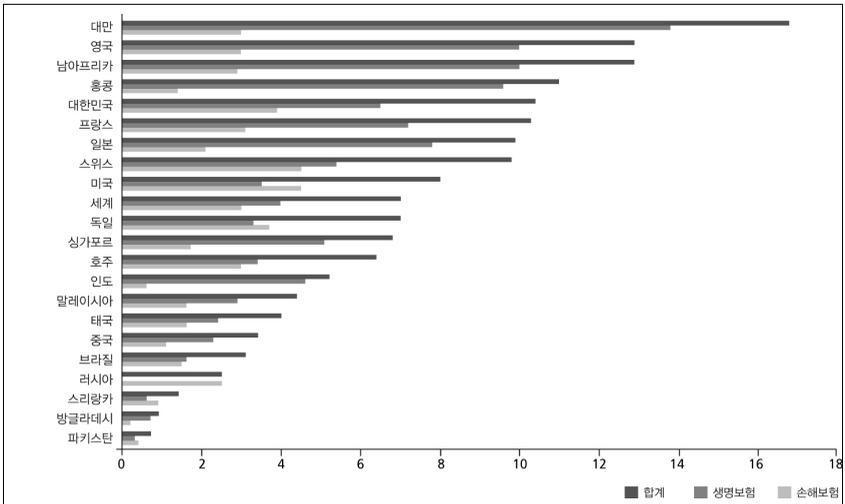
(단위: 미국달러)



자료: Swiss Re(2011), Sigma No. 2/2011.

그림 4-3. 각국의 보험침투도 (2009)

(단위: 미국달러)



자료: Swiss Re(2011), Sigma No. 2/2011.

2011년 9월 말 현재 인도에는 49개의 보험회사가 운영되고 있는데 24개의 생명보험사, 24개의 손해보험사와 재보험사인 GIC⁴⁹⁾가 있다. 49개의 회사 중에서 8개는 국영보험사인데 이 중 한 개는 생명보험사, 네 개는 손해보험사, 수출신용보험을 담당하는 수출신용보증공사(ECGC: Export Credit Gurantee Corporation)와 농작물보험을 담당하는 농업보험사(AIC: Agriculture Insurance Company), 그리고 재보험사가 있다. 나머지 41개는 민영보험회사들이다.

표 4-5. 인도의 보험회사

(2011년 9월 30일 기준)

유형	국영사	민영사	합계
생명보험	1	23	24
손해보험	6 ¹⁾	18 ²⁾	24
재보험	1	0	1
합계	8	41	49

주: 1) 특수보험사(ECGC, AIC)포함.

2) 순수건강보험사(Star Health & Allied Insurance Co, Apollo Munich Health Insurance Co, Max Bupa Health Insurance Co)와 FY2010에 등록된 L&T General Insurance Company Ltd, 포함.

자료: IRDA(2010).

1) 생명보험시장

FY2009년 현재 생명보험시장의 수입보험료는 인도 내 사업기준으로 보험료 수입이 26,545억 루피를 기록하여 전년도 수입 22,178억 5천만 루피 대비 19.6%의 성장 기록하고 있다. 민영보험사들의 경우 수입보험료 규모는 약 23%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국영보험회사인 LIC(Life Insurance Corporation of India)는 18.3%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총수입 보험료 기준으로 갱신보험료와 초회년도 보험료는 각각 58.6%와 41.4%

49) GIC는 국영보험사다.

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갱신보험료는 전년대비 15.7%의 성장을 보였으며, 초회년도 보험료는 전년대비 25.84%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일시납 보험료의 경우 전년대비 31%의 성장세를 보였는데 그 대부분은 국영보험사인 LIC에 기인하고 있다. LIC의 경우 일시납 보험료는 총수입보험료에서 약 24.3%의 비중을 차지하여 일시납 보험상품이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민영보험사들의 경우 일시납 보험료수입의 비중은 약 4.8%로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생명보험 상품을 전통형과 투자형으로 구분해 볼 경우 전통형 상품의 경우 13.3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투자형 상품⁵⁰⁾은 27.4%의 성장을 보였다. 전체 수입보험료 중에서 투자형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43.5%로 전통형 상품에 비해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전년도 40.87%에 비해 상품의 비중이 확대되었다. 투자형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주식시장의 상황과 더불어 성장을 지속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식시장의 불황으로 조정기를 거쳤으나 점차 회복을 하고 있는 추세다.

총수입보험료 기준으로 국영보험사인 LIC의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FY2008년 70.92%에서 FY2009년 70.1%로 거의 변동이 없다. 이는 민영사의 시장점유율도 전년도에 비해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초회년도 보험료 수입을 살펴보면 민영보험사는 34.92%이며 LIC는 65.08%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갱신보험료의 경우에는 LIC의 경우 73.64%를 기록하고 있다. 즉 총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변화가 없지만 초회년도 보험료 기준으로는 민영보험사들이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본다.

50) 투자형 상품의 경우 변액보험(ULIPs: Unit-linked Insurance Plans)류의 상품을 말하며 생명보험 분야에서 선진 금융기법을 통해 개발된 상품이라 할 수 있다.

표 4-6. 생명보험사 수입보험료 및 시장점유율

(단위: 천만 루피, %)

구분		FY2008			FY2009		
		수입보험료	증가율	비중	수입보험료	증가율	비중
초회년도 보험료	LIC	53,179	-11.4	60.9	71,522	34.5	65.1
	민영사	34,152	1.29	39.1	38,372	12.4	34.9
	계	87,331	-6.81	100.0	109,894	25.8	100.0
일시납 보험료	LIC	34,038	0.8	90.7	45,337	33.2	92.2
	민영사	3,488	-30.9	9.3	3,842	10.1	7.8
	계	37,527	-3.3	100.0	49,180	31.1	100.0
갱신 보험료	LIC	104,109	15.9	77.4	114,555	10.0	73.6
	민영사	30,345	70.5	22.6	41,001	35.1	23.4
	계	134,454	24.9	100.0	155,556	15.7	100.0
총계	LIC	157,288	5.0	70.9	186,077	18.3	70.1
	민영사	64,497	25.1	29.1	79,373	23.1	29.9
	계	221,785	10.2	100.0	265,450	19.6	100.0

주: LIC(Life Insurance Corporation of India).
자료: IRDA(2010).

표 4-7. 생명보험 신계약 건수

(단위: 천 건, %)

구분	FY2008		FY2009	
	건수	증가율	건수	증가율
민영사	15,011	13.19	14,362	-4.32
LIC	35,913	-4.52	38,863	8.21
계	50,924	0.1	53,225	4.52

자료: IRDA(2010).

FY2009년에 생명보험시장에서 계약한 신계약건수는 총 53만 2,000건이며 전년대비 4.32%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이 중 LIC는 38만 9,000건을 기록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해 8.21%의 성장을 보였으나 민영보험사의 경우 총 14만 4,000건의 신계약을 체결하여 지난해에 비해 -4.52%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2011년 9월 말 현재 인도에는 24개의 생명보험사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 중 1개는 국영보험사다. 민영보험회사의 경우 외국과 합작한 보험회사들이 대부분의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생명보험시장의 경우 FY2009 기준 시장점유율은 ICICI Prudential, Bajaj Allianz, SBI Life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8. 인도에서 영업 중인 생명보험사

국영보험사	민영보험사	
1 Life Insurance Corporation of India	1	Aegon Religare Life Insurance Co, Ltd,
	2	Aviva Life Insurance Co, Ltd,
	3	Bajaj Allianz Life Insurance Co, Ltd,
	4	Bharti AXA Life Insurance Co, Ltd,
	5	Birla Sun Life Insurance Co, Ltd,
	6	Canara HSBC OBC Life Insurance Co, Ltd,
	7	DLF Pramerica Life Insurance Co, Ltd,
	8	Future Generali Life Insurance Co, Ltd,
	9	HDFC Standard Life Insurance Co, Ltd,
	10	ICIC Prudential Life Insurance Co, Ltd,
	11	IDBI Federal Life Insurance Co, Ltd,
	12	ING Vysya Life Insurance Co, Ltd,
	13	India First Life Insurance Co, Ltd,
	14	Kotak Mahindra Old Mutual Life Insurance Co, Ltd,
	15	Max New York Life Insurance Co, Ltd,
	16	MetLife India Insurance Co, Ltd,
	17	Reliance Life Insurance Co, Ltd,
	18	Sahara India Life Insurance Co, Ltd,
	19	SBI Life Insurance Co, Ltd,
	20	Shriram Life Insurance Co, Ltd,
	21	Star Union Dai-ichi Life Insurance Co, Ltd,
	22	TATA AIG Life Insurance Co, Ltd,
	23	Edelweiss Tokio Life Insurance Co, Ltd,

주: 2011년 9월 말 기준.
자료: IRDA(2010).

표 4-9. 인도의 민영 생명보험회사 연도별 보험료 및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천만 루피)

구분	FY2004	FY2005	FY2006	FY2007	FY2008	FY2009
ICICI Prudential(합작)	2,364 (30.6)	4,261 (28.2)	7,913 (28.0)	13,561 (26.3)	15,356 (23.8)	16,532 (20.8)
Bajaj Allianz(합작)	1,002 (13.0)	3,134 (20.8)	4,303 (15.2)	9,725 (18.9)	10,625 (16.5)	11,420 (14.4)
SBI Life(합작)	601 (7.8)	1,075 (7.1)	2,929 (10.4)	5,622 (10.9)	7,212 (11.2)	10,104 (12.7)
HDFC STD Life(합작)	687 (8.9)	1,570 (10.4)	2,856 (10.1)	4,859 (9.4)	5,565 (8.6)	7,005 (8.8)
Reliance	107 (1.4)	224 (1.5)	1,005 (3.6)	3,225 (6.3)	4,933 (7.6)	6,605 (8.3)
Birla Sun Life(합작)	915 (11.8)	1,260 (8.4)	1,777 (6.3)	3,272 (6.3)	4,572 (7.1)	5,506 (6.9)
Max New York(합작)	413 (5.4)	788 (5.2)	1,500 (5.3)	2,715 (5.3)	3,857 (6.0)	4,861 (6.1)
TATA AIG(합작)	497 (6.4)	880 (5.8)	1,367 (4.8)	2,046 (4.0)	2,748 (4.3)	3,494 (4.4)
Kotak Mahindra(합작)	466 (6.0)	622 (4.1)	972 (3.4)	1,691 (3.3)	2,343 (3.6)	2,868 (3.6)
MetLife(합작)	82 (1.1)	206 (1.4)	493 (1.7)	1,160 (2.2)	1,997 (3.1)	2,536 (3.2)
Aviva(합작)	253 (3.3)	600 (4.0)	1,147 (4.1)	1,892 (3.7)	1,993 (3.1)	2,378 (3.0)
ING Vysya(합작)	339 (4.4)	425 (2.8)	707 (2.5)	1,159 (2.2)	1,442 (2.2)	1,643 (2.1)
Shriram Life(합작)	- -	10 (0.1)	181 (0.6)	358 (0.7)	436 (0.7)	611 (0.8)
Bharti AXA(합작)	- -	- -	8 (0.0)	118 (0.2)	360 (0.6)	670 (0.8)
IDBI Fortis(합작)	- -	- -	- -	12 (0.0)	319 (0.5)	571 (0.7)
Canara HSBC(합작)	- -	- -	- -	- -	296 (0.5)	842 (1.1)
Sahara	1.7 (0.0)	28 (0.2)	51 (0.2)	144 (0.3)	206 (0.3)	251 (0.3)
Future Generali(합작)	- -	- -	- -	2 (0.0)	153 (0.2)	542 (0.7)
Star Union DAI-ICHI(합작)	- -	- -	- -	- -	50 (0.1)	530 (0.7)

표 4-9. 계속

구분	FY2004	FY2005	FY2006	FY2007	FY2008	FY2009
Aegon Religare(합작)	-	-	-	-	31	38
	-	-	-	-	(0,0)	(0,0)
DLF Pramerica(합작)	-	-	-	-	3,4	166
	-	-	-	-	(0,0)	(0,2)
계	7,728	15,084	28,253	51,561	64,497	79,373
성장률	147,7	95,2	87,1	82,5	25,1	23,1

주: () 안은 비중임.
자료: IRDA(2010).

표 4-10. 생명보험사 영업점 수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민영사	1,645	3,072	6,391	8,785	8,768
LIC	2,220	2,301	2,522	3,030	3,250
계	3,865	5,373	8,913	11,815	12,018

자료: IRDA(2010).

국영보험회사인 LIC의 경우 FY2009년에 새로 220개의 영업점을 개소하였으나 민영보험회사의 경우 FY2008년 8,785개에 비해 약간 줄어든 8,768개의 영업점을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민영보험회사의 영업점 수 감소는 2000년 보험시장 개방 이후 처음 발생한 것으로 운영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구조조정에 기인한다.

영업점들의 분포를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약 72%의 영업점들이 semi-urban 지역과 소도시들에 분포되어 있다. 이는 영업의 중심지를 Metro와 Urban 지역으로부터 다변화시켜 생명보험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민영보험사와 국영보험사에 모두 적용된다.

표 4-11. 생명보험사 영업점 분포

보험사	Metro	Urban	Semi-urban	Others	합계
민영사	897	1,555	3,607	2,709	8,768
LIC	347	550	923	1,430	3,250
합계	1,244	2,105	4,530	4,139	12,018

주: Metro: Delhi, Mumbai, Chennai, Kolkata, Hyderabad and Bangalore.

Urban: HRA 기준에 의한 A, B-1 and B-2 클래스 도시.

Semi-urban: HRA 기준에 의한 C 클래스 도시.

Others: HRA 기준에 등록되지 않은 지역.

자료: IRDA(2010).

2) 손해보험시장

손해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는 인도 내 사업기준으로 FY2009년 3,462억 루피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14.1%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국영보험사들의 수입보험료 규모를 살펴보면 FY2009년 약 14.5%의 비약적인 성장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증가율인 7%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반면 민영손해보험사들의 FY2009년 성장률은 전년대비 소폭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FY2009년에 손해보험산업의 신계약건수는 총 67,488천 건으로 전년과 비교하여 거의 변동이 없다. FY2008년의 성장률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성장률을 달성하였으며, 이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국영보험사들에

표 4-12. 인도의 손해보험사 수입보험료 규모(인도 내)

(단위: 천만 루피, %)

구분	FY2008		FY2009	
	수입보험료	증가율	수입보험료	증가율
국영사	18,030	7.1	20,643	14.5
민영사	12,321	12.1	13,977	13.4
계	30,351	9.1	34,620	14.1

자료: IRDA(2010).

기인한다. 민영보험사의 경우도 신계약건수에 있어서 지난해에 비해 성장률이 다소 감소해 약 10% 성장을 기록하였다.

FY2009년 인도의 자동차보험 규모는 전체 손해보험산업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12.8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건강보험의 경우도 FY2009년 731억 1천만 루피의 수입보험료를 달성하여 약 2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전년대비 21%의 고성장률을 기록하여 손해보험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이며 인도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분야다. 화재와 해상보험에서 달성한 수입보험료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4-13. 손해보험사 신계약 건수

(단위: 천 건, %)

구분	FY2008		FY2009	
	건수	증가율	건수	증가율
국영사	45,137	17.09	43,404	-3.84
민영사	21,922	17.21	24,084	9.86
계	67,060	17.13	67,488	0.64

자료: IRDA(2010).

표 4-14. 인도의 손해보험 부문별 수입보험료 규모(인도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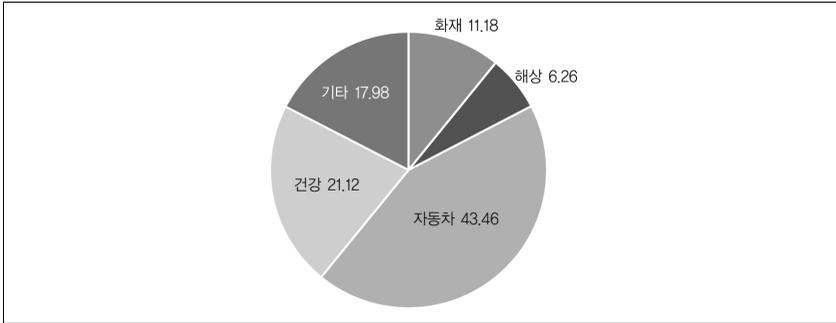
(단위: 천만 루피, %)

구분	FY2008		FY2009	
	수입보험료	비중	수입보험료	비중
화재	3,383	11.14	3,869	11.18
해상	1,957	6.45	2,168	6.26
자동차	13,336	43.94	15,047	43.46
건강	6,088	20.06	7,311	21.12
기타	5,888	18.41	6,225	17.98
계	30,352	100	34,620	100

자료: IRDA(2010).

그림 4-4. 손해보험 종목별 보험료 비중 (FY2009)

(단위: %)



자료: IRDA(2010).

표 4-15. 인도에서 영업 중인 손해보험사

국영보험사	민영보험사
1 New India Assurance Co. Ltd.	1 Bajaj Allianz General Insurance Co. Ltd.
2 National Insurance Co. Ltd.	2 Bharti AXA General Insurance Co. Ltd.
3 The Oriental Insurance Co. Ltd.	3 Cholamandalam MS General Insurance Co. Ltd.
4 United India Insurance Co. Ltd.	4 Future Generali India Insurance Co. Ltd.
	5 HDFC Ergo General Insurance Co. Ltd.
	6 ICICI Lombard General Insurance Co. Ltd.
	7 IFFCO Tokio General Insurance Co. Ltd.
특수보험사	8 L&T General Insurance Co. Ltd.
5 Export Credit Guarantee Corporation Ltd.	9 Raheja QBE General Insurance Co. Ltd.
6 Agriculture Insurance Company of India Ltd.	10 Reliance General Insurance Co. Ltd.
	11 Royal Sundaram Alliance Insurance Co. Ltd.
	12 SBI General Insurance Co. Ltd.
	13 Shriram General Insurance Co. Ltd.
	14 TATA AIG General Insurance Co. Ltd.
	15 Universal Sompo General Insurance Co. Ltd.
	순수 건강보험사
	16 Apollo Munich Health Insurance Co. Ltd.
	17 Max Bupa Health Insurance Co. Ltd.
	18 Star Health and Allied Insurance Co. Ltd.
	재보험사

General Insurance Corporation of India

주: 2011년 9월 말 기준.

자료: IRDA(2010).

2011년 9월 말 현재 손해보험부문에는 7개의 국영보험사와 18개의 민영보험사가 있다. 7개의 국영보험사 중 2개는 특수보험회사로서 신용보험을 담당하는 ECGC와 농작물보험을 담당하는 AIC이며 한 개의 재보험사가 있다. 순수건강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3개의 건강보험사와 나머지 보험사들은 민영보험회사이다.

인도 국영손해보험사들의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손해보험시장의 약 60%에 이르고 있다. United India의 경우 FY2009년 523억 루피를 달성하였으며 시장점유율도 FY2008년 14.09%에 비해 1%포인트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22.47%의 성장률로 FY2009년 손해보험시장 평균성장률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인도는 해외지역에서의 영업을 국영손해보험회사들에게만 허용하고 있다. 총 4개의 국영손해보험사 중 United India⁵¹⁾를 제외하고 3개의 국영손해보험사들이 인도 외 지역의 영업을 하고 있으며, FY2009년 119억 5,000만 루피의 영업실적을 달성하였다. 이는 손해보험시장 전체 수입보험료

표 4-16. 국영손해보험회사 수입보험료 및 시장점유율(인도 내)

(단위: 천만 루피, %)

구 분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FY2008	FY2009	FY2008	FY2009
National	4,279.90	4,625.18	14.10	13.36
New India	5,508.83	6,042.51	18.15	17.45
Oriental	3,964.23	4,736.71	13.06	13.68
United	4,277.77	5,239.05	14.09	15.13
합계	18,030.73	20,643.45	59.40	59.63

주 : () 안은 비종임.
자료: IRDA(2010).

51) United India는 2003년 인도국의 영업을 중단하였다.

대비 3.34%를 차지한다. 인도 외의 수입보험료 규모는 New India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FY2009년 105억 7천만 루피의 영업실적을 달성하여 총수입보험료 중 약 15%를 차지하며 전체 인도 외 수입보험료 중 약 88%를 담당하고 있다.

손해보험시장의 경우 FY2009년 기준 13개 민영손해보험사들은 1,397억 7,000만 루피의 보험료 수입을 달성하였다. 시장점유율은 ICICI Lombard가 23.6%를 차지하였지만 전년도의 27.6%에 비해 점유율이 다소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한 회사는 Bajaj Allianz이며 점유율은 전년도 21.3%에서 17.8%로 감소하였다.

표 4-17. 국영손해보험회사 수입보험료(인도 외)

(단위: 천만 루피, %)

구 분	수입보험료		성장률	
	FY2008	FY2009	FY2008	FY2009
National	15,95	20,81	8,22	30,49
New India	946,95	1,056,63	8,22	11,58
Oriental	113,64	117,97	23,43	3,81
United	-	-	-	-

자료: IRDA(2010).

표 4-18. 인도의 민영손해보험회사 연도별 보험료 및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천만 루피)

구분	FY2004	FY2005	FY2006	FY2007	FY2008	FY2009
ICICI Lombard(합작)	874	1,583	2,989	3,307	3,402	3,295
	(24.9)	(29.5)	(34.6)	(30.1)	(27.6)	(23.6)
Bajaj Allianz(합작)	852	1,272	1,786	2,380	2,619	2,482
	(24.3)	(23.7)	(20.7)	(21.7)	(21.3)	(17.8)
Reliance	162	162	912	1,946	1,915	1,980
	(4.6)	(3.0)	(10.6)	(17.7)	(15.5)	(14.2)
IFFCO-TOKIO(합작)	497	893	1,144	1,128	1,374	1,458
	(14.2)	(16.6)	(13.2)	(10.3)	(11.2)	(10.4)

표 4-18. 계속

구분	FY2004	FY2005	FY2006	FY2007	FY2008	FY2009
TATA AIG(합작)	448 (12,8)	573 (10,7)	711 (8,2)	783 (7,1)	824 (6,7)	854 (6,1)
Royal Sundaram(합작)	331 (9,4)	459 (8,6)	598 (6,9)	694 (6,3)	803 (6,5)	913 (6,5)
Cholamandalam(합작)	169 (4,8)	220 (4,1)	312 (3,6)	522 (4,8)	685 (5,6)	785 (5,6)
HDFC ERGO(합작)	176 (5,0)	201 (3,7)	194 (2,2)	221 (2,0)	339 (2,8)	915 (6,5)
Future Generali(합작)	- -	- -	- -	9,8 (0,1)	186 (1,5)	377 (2,7)
Shriram(합작)	- -	- -	- -	- -	114 (0,9)	417 (3,0)
Universal Sampo(합작)	- -	- -	- -	0,5 (0,0)	30 (0,2)	189 (1,4)
Bharti AXA(합작)	- -	- -	- -	- -	29 (0,2)	311 (2,2)
계	3,508	5,363	8,647	10,992	12,321	13,977
성장률	55,4	52,9	61,2	27,1	12,1	13,4

주: () 안은 비중임.
자료: IRDA(2010).

2010년 3월 말 현재 인도 전역에서 영업하고 있는 손해보험회사들의 영업점 수는 특수보험회사를 제외하고 6,342개이며 이 중 민영보험사와 국영보험사의 점포 수는 각각 1,646개와 4,696개다.⁵²⁾

손해보험 중목 중 건강보험은 현재 인도정부 및 보험산업으로부터 매우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손해보험산업의 성장을 주도적으로 견인하는 중목 중의 하나다. 순수건강보험 전문회사인 Star Health와 Apollo Munich는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영업인가를 받고 건강보험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Max Bupa 보험회사의 영업을 인가하여

52) 자세한 내용은 [부표 6]을 참고.

2010년 3월에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최근에는 또 하나의 순수건강보험 전문회사의 인가를 고려하고 있다.

인도 최초의 순수건강보험 전문회사인 Star Health의 경우 96억 2,000만 루피의 영업실적을 FY2009년에 달성하였는데 이는 FY2008년 51억 루피에 비해 무려 88.61%의 폭발적인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순보험료 수입도 FY2008년 30억 1,000만 루피에서 FY2009년 61억 루피로 10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두 번째 순수건강보험 전문회사인 Apollo Munich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 보험료 수입이 FY2008년 4억 8,000만 루피에서 FY2009년 11억 5,000만 루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보험시장을 개방한 이후 지난 8년간 건강보험 수입보험료 규모는 FY2001년 67억 5,000만 루피에서 FY2009년에는 830억 5,000만 루피로 증가하였는데, 건강보험시장의 급격한 부상은 의료비용의 상승을 충당하기 위한 대체수단으로 보험상품을 구입하는 데 기인하고 있다. 보험회사들이 일반 손해보험에 대한 가격규제 폐지로 인해 건강보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수년 동안 고정되어 있던 개인의료보험과 단체건강보험에 대한 보험료의 현실화가 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 증가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노인 층과 어린이들을 위한 상품을 개발하여 건강보험의 대중화에 일조하였다.

표 4-19. 건강보험 수입보험료(2004~09년)

(단위: 천만 루피)

보험회사	2004~05	2005~06	2006~07	2007~08	2008~09	2009~10
국영손해보험사	1,366	1,683	1,974	3,136	3,824	4,883
민영손해보험사	304	539	1,224	1,832	2,266	2,350
순수건강보험사	-	-	11	156	535	1,072
계	1,670	2,222	3,209	5,125	6,625	8,305

자료: IRDA(2010).

3) 소액보험시장

인구의 절대 다수가 빈곤층에 속해 있는 인도의 실정에서 인도정부는 소액보험산업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소액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절대 빈곤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이 문맹이며 보험에 대한 인식수준도 매우 낮다. 따라서 인도정부는 소액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해 2005년부터 소액보험의 규제를 별도로 하고 있다.⁵³⁾ 매년 새롭고 다양한 상품들이 소액보험시장에 출시되고 있고 소액보험시장에 대한 사회기반시설의 강화 등에 힘입어 소액보험사업의 성장세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규모면에서는 발전단계에 있는 시장이라 할 수 있다. FY2009년 현재 생명보험 분야에서 총 40억 2,000만 루피의 소액보험 수입보험료를 기록하였다. 총수입보험료 중 94%를 국영보험사인 LIC에서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6%를 민영보험사에서 기여하고 있다. 현재 14개 생명보험사에서 28개의 상품을 판매 중이며 이 중 15개는 개인상품이며 나머지는 단체상품이다.

표 4-20. 인도 생명보험 분야 소액보험 현황(FY2009)

(단위: 건, 십만 루피)

구분	개인		플랜 수	단체	
	계약건수	수입보험료		계약건수	수입보험료
민영사	998,809	839,78	17	1,895,143	1,472,09
LIC	1,985,145	14,982,51	5,190	14,946,927	22,869,72
계	2,983,954	15,822,29	5,207	16,842,070	24,341,81

주: 보험료는 초년도 보험료 및 일시납 보험료 포함.
자료: IRDA(2010).

53) 예를 들어, 계약에 대한 문서 작성 시 지역 방언을 사용하거나 보험 적용범위를 가족으로 확대하는 등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손해보험 분야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해 손해보험사들은 다양한 종류의 소액보험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Janata Personal Accident Policy, Gramin Personal Accident Policy, Cattle/Livestock 보험상품들이 이에 해당되며, 특히 국영 및 민영 손보사들은 단체를 위한 맞춤형 소액보험 상품들도 판매하고 있다.

2. 인도의 보험시장과 투자여건

가. 보험시장 개혁(2000년)의 내용

인도 보험산업은 2000년 시장개방 이후 민영부문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민영회사들은 대부분 외국인 전문가와 경험이 풍부한 내국인 매니저들에 의해 운용되고 있어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민영 보험회사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유연성을 가지며 시장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기술적으로 선진화된 시스템과 풍부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보수체계에 있어서도 선진기법을 도입하여 전문인력도 확보하였으며, 언더라이팅에 중점을 두고,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도 보험계약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민영회사들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고객들에게 폭넓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상보험, 뮤추얼펀드 패키지, 오염배상 책임보험, 수출신용보험 상품 등이 판매되고 있다.

국영보험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은 인도 보험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2000년 보험시장의 민영화·개방화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

고 있으며 민영보험회사들의 보험시장 진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⁵⁴⁾ 민영생명보험사의 경우 시장점유율은 FY2004년 9.3%에서 FY2009년 29.9%로 확대되고 있으며 민영손해보험회사의 경우도 시장점유율이 FY2004년 19%에서 FY2008년 39%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표 4-21. 인도 국영 및 민영 보험사의 연도별 보험료 및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천만 루피)

구분		FY2004	FY2005	FY2006	FY2007	FY2008	FY2009
생명보험	국영사	75,127	90,792	127,823	149,790	157,288	186,077
		(90.7)	(85.8)	(81.9)	(74.4)	(70.9)	(70.1)
	민영사	7,728	15,084	28,242	51,561	64,497	79,373
		(9.3)	(14.2)	(18.1)	(25.6)	(29.1)	(29.9)
손해보험	국영사	14,949	15,976	17,283	17,814	19,107	21,839
		(81.0)	(74.9)	(66.7)	(61.8)	(60.8)	(61.0)
	민영사	3,508	5,363	8,647	10,992	12,321	13,977
		(19.0)	(25.1)	(33.3)	(38.2)	(39.2)	(39.0)

주: ()안은 비중임.
자료: IRDA(2010).

표 4-22. 인도 진출 국가별 합작사 수

(단위: 개)

구분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독일	호주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남아공	계
생보사	3	1	1	7	1	0	3	2	1	1	20
손보사	1	0	3	2	2	2	1	0	1	1	13
계	4	1	4	9	3	2	4	2	2	2	33

자료: IRDA(2010).

54) FY2009년 현재 국영생보사 1개, 민영생보사 22개, 국영손보사 6개, 민영손보사 18개가 각각 영업을 하고 있다.

인도 보험시장에서 대부분의 민영보험회사들은 외국사와의 합작형태를 띠고 있으며 국내보험사는 소수에 불과하다. 외국과 합작회사 중 영국계 보험회사가 인도에 가장 많이 진출해 있으며, 미국과 일본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생명보험 20개사와 손해보험 13개사를 합쳐 총 33개의 합작회사가 인도 보험시장에 진출해 있다.

나. 보험산업의 규제 내용

1999년에 발효된 「인도보험규제개발법(India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 Act)」에 의해 2000년 설립된 인도보험감독청(IRDA: India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은 인도의 보험 관련 감독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IRDA의 설립 목적은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보험산업의 성장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정책을 유연하게 집행하는 것이다.

IRDA는 2000년에 설립된 후 보험회사의 등록, 보험 에이전트에 대한 규제,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규제, 농업 및 사회 부문에 대한 규제, 투자 및 회계절차, 보험계약자의 이익 보호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 27개의 규제 조항을 제정하였다. 2010년 인도 정부는 변액보험에 대한 업무를 증권시장이 아닌 IRDA에서 하도록 규정하였다.

2000년 국유화 상태의 보험시장을 개방하였으나,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요율 자유화를 1994년에 처음으로 시행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왔으며 자동차보험(책임)만이 협정요율제를 시행하고 있다. 1994년 항공, 배상책임, 건강, 적하보험 등에 대해 요율 자유화가 시행되었으며, 2005년에는 선박보험, 2007년에는 화재, 기술, 자동차(자차)보험의 요율이 자유화 되었다.

현재 인도인은 100% 투자 또는 외국인과의 합작으로 보험사 설립이 가능하지만, 외국사의 경우 합작형태로만 시장 진입이 가능하고 단독 법인 설립은 불가능하다. 합작회사 설립 시 외국인 지분율은 26%로 제한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 한도를 49%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보험회사 설립 시 최초 불입자본금은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경우 10억 루피이며, 재보험의 경우 20억 루피로 규제하고 있다.

IRDA는 농업 및 사회 부문에 상품의 일정부분을 의무적으로 판매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보험회사에게 농촌 및 도시빈민층에 대한 사업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지우도록 하기 위해 인도정부는 상품판매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농업부문의 경우, 민영 생명보험회사는 총판매상품 비중이 운영개시 1차 연도의 7% 이상에서 10차 연도에는 20%까지로 확대

표 4-23. 인도의 보험상품 판매 규제

주요 내용		농업(rural) 및 사회부문(social)에 대한 판매 의무조항	
세 부 사 항			
구분	농업부문 의무조항		사회부문 의무조항
손해 보험	민 영 사	총보험료(Gross Direct Premium) 비중이 운영개시 1차 연도의 2% 이상에서 10차 연도에는 7%까지 이르도록 해야 함.	가입자 수가 운영개시 1차 연도의 5,000명 이상에서 10차 연도에는 55,000명에 이르도록 해야 함.
	국 영 사	총보험료(Gross Direct Premium) 비중이 FY2007년 6%에서 FY2009년 7%에 이르도록 해야 함.	FY2007년부터 FY2009년까지 전년도 가입자의 10%만큼 가입자 수를 증가시켜야 함(최소 550,000명).
생명 보험	민 영 사	총판매상품 비중이 운영개시 1차 연도의 7% 이상에서 10차 연도에는 20%까지 이르도록 해야 함.	가입자 수가 운영개시 1차 연도의 5,000명 이상에서 10차 연도에는 55,000명에 이르도록 해야 함.
	국 영 사	총판매상품 비중이 FY2007년 24%, FY2008, FY2009년 각각 25%를 달성해야 함.	FY2007년부터 FY2009년까지 2,000,000명을 가입시켜야 함.

주: FY2009년 이후부터는 FY2009년 의무조항이 계속 적용됨.
자료: IRDA(2010).

해야 하며 민영손해보험회사는 총보험료 비중이 1차 연도의 2%에서 10차 연도에는 7%까지로 확대해야 한다. 사회부문의 경우, 민영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는 공히 1차 연도에 5,000명 이상을 가입시켜야 하며, 가입자 수를 매년 증가시켜 10차 연도에는 가입자 수가 55,00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인도 보험업법 64VA 조항에 의해 IRDA는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 기준을 150%로 제시하고 있다. 인도의 보험회사들은 지급여력비율을 분기별로 보고하고 있다. 생명보험의 경우 2010년 3월 현재 약 83% 회사들이 20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의 경우 대부분의 회사들이 가이드라인인 1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Royal Sundaram과 HDFC Ergo는 150%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⁵⁵⁾

표 4-24. 인도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생명보험					
Solvency Ratio		2007년 3월	2008년 3월	2009년 3월	2010년 3월
보험사 수	150%~175%	5	4	2	4
	175%~200%	3	0	1	3
	200%이상	8	14	19	16
손해보험					
Solvency Ratio		2007년 3월	2008년 3월	2009년 3월	2010년 3월
보험사수	150% 미만	0	0	1	2
	150%~175%	4	4	4	7
	175%~200%	4	5	6	4
	200%이상	8	9	8	11

주: 1) Solvency Margin Ratio : 지급여력요건 대비 실제 지급여력 비율.

2) IRDA는 모든 보험사에 대해 지급여력비율 기준을 150%로 제시하고 있음.

자료: IRDA(2010).

55) 자세한 내용은 부록의 부표 6을 참조한다.

인도 보험회사들은 투자에 있어서도 규제를 받고 있다. 보험회사들은 적어도 투자의 50%를 정부국채나 기간산업⁵⁶⁾에 투자 해야 한다. 인도정부는 보험회사의 특성상 안전한 투자를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인도의 주정부 및 연방정부는 자본을 축적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보험산업을 바라보고 있다.

표 4-25. 보험회사 투자규제

구분	투자형태	비율
생명보험	1 정부의 유가증권	25%
	2 정부의 유가증권이나 인가된 증권	50% 이상
	3 사회기간산업 부문	15% 이상
손해보험	1 중앙정부의 유가증권	20% 이상
	2 지방정부의 유가증권과 보증증권	30%
	3 주정부의 주택이나 대출	5%
	4 사회기간산업 부문	10% 이상

자료: IRDA(2010).

다. 인도 보험시장의 환경 분석

1) 보험시장 환경

인도 보험시장은 보험밀도와 보험침투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세계평균에 비해 낮아서 보험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인도 로컬 보험회사 및 글로벌 보험회사들의 경쟁으로 인해 보험산업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인도 보험시장이 변창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경제개혁과 규제정책의 완화에 기인하는데, 현재의 속도로 성장할 경우 2010년대 중반에는 인도 보험산업이 매우 발전한 단계가 될 것으로

56)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도 국채의 형태로 투자한다.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인도 보험시장에서는 중산층의 성장, 노동인구의 증가, 가계저축의 증가 및 구매력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보험상품에 대해 높은 수요가 존재한다. 보험침투도의 증가와 더불어 지속적인 교육으로 인한 문맹률의 감소는 특히 농촌지역이나 시골지역에서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인도정부는 2006~26년 동안 25~60세까지의 노동인구가 6억 7,500만에서 7억 9,500만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⁵⁷⁾하여 보험시장의 환경은 보험회사들에게 유리하게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시 말하자면 향후 20년간 1억 명이 노동인구에 추가될 것으로 예측되어 잠재적 보험 가입 인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인당 GDP도 높은 가처분소득을 반영하여 2000~01년에 380.8달러에서 2026년에는 2,097.5달러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⁵⁸⁾하고 있다. 따라서 구매력의 증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향후 보험상품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정부는 현재 금융소외계층의 포용(Financial inclusion)이라는 정책기조 하에 사회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가진 계층들이 금융상품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집행 효과로 시골이나 농촌지역의 시장에서 보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보험회사 영업점들의 분포가 점차 농촌지역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는 현상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시골지역의 보험 수요 증가도 인도 보험시장의 성장동력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57) Ministry of Home Affairs India(2006) 자료 인용.

58) Ernst & Young(2010) 자료 재인용.

2) 인도 보험시장 PEST 분석

본고에서는 보험산업과 개별 보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을 조사하는 PEST 분석을 실시한다.⁵⁹⁾ 정치적인(political) 요인에는 산업에 관한 정부정책, 세금정책, 법규, 무역제한 및 관세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경제적인(economical) 요소로 경제성장, 금리, 환율 및 물가상승률 등과 같이 폭 넓은 경제 변화들과 관계가 있다. 사회적(social) 요소에는 종종 문화적인 측면을 반영하고 건강 문제, 인구성장률, 연령분포, 취향의 변화 및 구매 패턴 등이 포함된다. 기술적인(technical) 요소로는 R&D 활동, 자동화, 기술 인센티브 및 기술적 변화속도와 같은 새로운 발명 및 아이디어의 응용 등과 관계 있다.

먼저 정치적인 요소들로서 기업보험료 5% 할인, 손해보험의 가격 규제, 농촌보험의 유리한 규정을 들 수 있다. 경제적인 요소들로서 국내총저

표 4-26. 인도 보험시장 PEST 분석

정치적 요소	경제적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보험료 5% 할인 - 농촌보험의 유리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총저축의 증가 - 경제활동의 증가 - 물가상승률
사회적 요소	기술적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보험(보상)범위 - 인구의 고령화 - 인도인의 인식 변화 - 이슬람 보험의 성장 - 생활습관병의 증가 - 교육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RM 솔루션 프로세스 자동화의 증가 - 인터넷 기반의 정보시대 -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니터링

자료: 저자 작성.

59) PEST는 정치(Political), 경제(Economic), 사회(Social) 및 기술적(Technical) 분석의 약자다.

축의 증가, 경제활동의 증가, 금리, 물가상승률 등을 들 수 있다. 개별 보험사와 보험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인 요소들로서 낮은 보상범위, 노인 인구의 증가, 인도인의 보험 인식 변화, 이슬람 보험의 성장, 생활습관병, 교육 수준, 수입 수준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요소들로서 CRM 솔루션 프로세스 자동화의 증가, 인터넷 기반의 정보시대,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니터링(BPM) 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

3) 국내 보험산업의 인도 진출 SWOT 분석

강점(Strength)

우리나라의 보험산업은 영업채널 관리에 있어서 인도시장의 다른 경쟁사들보다 경쟁우위에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은 다양한 소비자들을 상대할 수 있도록 영업채널의 구성도 매우 다양화되어 있다. 대면채널뿐만 아니라 비대면채널도 매우 발달하여 다양한 보험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또한 보험설계사 조직들 중 주부들을 활용한 채널은 우리나라 고유의 조직으로 이러한 독특한 채널 운영의 노하우는 인도시장에 진출해 있는 경쟁사들이 가지지 못한 점으로 우리 보험회사들이 경쟁우위에 있다. 한편 비대면채널의 IT 인프라 구축과 운영 발전정도도 인도에 진출해 있는 기존 보험회사들보다 훨씬 높은 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TV, 인터넷 및 스마트폰 기반의 영업전략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IT 인프라에 대한 경쟁력은 비단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비교우위를 보이는 부문이다.

약점(Weakness)

인도시장에는 이미 일본, 미국, 영국 등 합작투자 형태의 외국계 글로벌

보험회사가 많이 진출해 있다.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은 이들에 비해 자금동원 능력이나 리스크 관리 기술, 영업망 구축 등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인도의 생명보험시장에서 ICICI Prudential이 손해보험시장에서는 ICICI Lombard가 시장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모두 외국계 합작투자회사다. 따라서 국내 보험회사가 인도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영업 인프라 구축 등 제반여건 마련에 따른 초기 진입비용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기회(Opportunity)

인도는 현재 중국과 더불어 세계경제 성장의 견인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이며 매우 빠른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인도 보험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보험산업은 최근 6년간 세계시장에서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FY2009년 현재 인도의 보험밀도(1인당 보험료)는 54.3달러로 세계평균 595.1달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보험침투도 역시 5.2%에 불과하여 세계평균 7%에 비해 낮은 편이다. 따라서 보험밀도와 보험침투도를 고려할 경우 인도 보험시장은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 중 하나다.

우리나라와 인도 간에 맺은 한·인도 CEPA는 우리나라 보험회사에 또 다른 기회를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인도 CEPA의 발효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인도 진출이 촉발됨으로써 해서 인도에서 고객들의 보험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은 이러한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기회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위협(Threat)

인도는 보험시장의 민영화 및 개방화 이후 글로벌 보험회사들이 많이

진입해 있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민영보험회사들의 대부분이 외국 자본과 합작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영보험회사의 영향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고 있다. 민영보험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회사들 간의 경쟁은 갈수록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험시장에 대한 규제정책 역시 위협요인으로 손꼽을 수 있다. 인도정부는 보험시장에서 외국인의 지분소유를 49%로 확대하는 방안을 수년 전부터 국제 보험기구 등에 보고하고 추진하여 왔으나 국회의 반대로 인해 계속 무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도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경영여건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표 4-27. 인도 진출 SWOT 분석

	강 점	약 점
내부환경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특한 판매채널 및 다양한 판매채널 운영 노하우 - IT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대한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보험사들의 인도 보험시장 선점으로 진입비용 감수 - 해외 영업경험, 리스크 관리 기술, 자금력 등에 비교열위
	기 회	위 험
외부환경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경제의 성장세 지속 - 인도 보험시장의 잠재적 성장가능성 - 한·인도 CEPA로 인한 한국 고객의 보험서비스 수요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영보험회사들의 시장점유율 증가로 인한 보험시장 경쟁 격화 - 인도 보험시장 규제

자료: 서대교, 신종협(2011), p. 60, 재인용.

4) 선진 보험회사의 인도 진출 사례

가) ICICI Prudential Life Insurance

영국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금융보험회사 Prudential이 인도에서 가장 영향력을 지닌 은행 중의 하나인 ICICI 은행과의 합작 진출을 살펴보면,

이 회사는 2000년 보험시장 개방 이후 외국합작회사로서 인도 보험시장에서 영업을 최초로 개시하였다. FY2009년 생명보험 분야에서 민영보험사 중 수입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했으며 규모는 1,653억 2,000만 루피다. 또 인도 보험시장 개방 이래 민영보험회사들 중 시장점유율 1위를 계속 차지해 인도 보험시장 진출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Prudential plc은 영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보험회사로 1848년 영국에서 설립되었다. 이 회사는 Prudential UK, M&G, Prudential Corporation Asia, Jackson National Life Insurance Company 4개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다. Prudential Corporation Asia가 가장 큰 사업부로서 13개의 아시아 국가에서 1,500만 명 이상의 고객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으며, Prudential UK는 700만 명 이상의 고객을 대상으로 연금 및 생명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회사의 인도 진출 성공요인 중 하나는 1994년 설립된 ICICI 은행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영업을 하였던 점이다. 약 2,530여 개의 지점과 6,800여 개의 ATM기 등을 보유한 ICICI의 모회사인 Industrial Credit and Investment Corporation of India는 World Bank와 합작투자로 1955년 설립되었으며, 인도의 국영은행과 국영보험사로서 동시에 금융서비스를 인도 국민들에게 제공하였다. 이후 모회사와 합병하여 ICICI 은행으로 영업을 계속하였다. 따라서 은행 및 보험 분야에서 지속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인도인에게 친숙한 브랜드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ICICI를 합작파트너로 선택하여 인도 보험시장 진입에 성공하였다.

두 번째 성공요인으로 인도 보험시장에 진출한 최초의 회사로 인도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험상품을 적기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이다. 즉 개방된 보험시장의 초기 선점효과를 누리면서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도 국민들의 니즈에 맞는 상품들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채널을 다양하게 확장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ICICI Prudential은 생명보험, 어린이 보험, 퇴직보험, 건강보험 상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나) Bajaj Allianz

독일 보험회사인 Allianz가 인도의 Bajaj Finserv⁶⁰⁾와 합작으로 만든 Bajaj Allianz의 진출사례를 살펴보면, 이 회사는 2001년도에 IRDA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은 이래 현재 인도 전역에서 생명 및 손해 보험영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생명보험 분야에서는 FY2009년 기준 1,142억 루피의 보험료 수입을 올렸으며, 손해보험 분야에서는 같은 해 248억 2,000만 루피의 보험료 수입을 기록하였다. 또 민영 생보사 및 손보사들 중에서 각각 2위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여 성공적으로 인도 보험시장에 진출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7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약 17여만 명의 임직원을 두고 있으며 글로벌 보험회사의 선두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Allianz는 1890년 독일 베를린에서 설립되었다. 19세기 말 베를린에서 영업을 시작한 이후 Allianz는 보험사업뿐만 아니라 금융서비스 그룹으로 발전을 거듭해 오면서 유럽, 미국, 아시아 지역 기업인수를 통하여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였다. 지주회사인 Allianz AG와 자산관리회사인 Allianz Munich을

60) 이 회사는 Bajaj Auto와 Allianz SE로 분할되었다.

각각 1985년도와 1998년도에 설립하였다. Allianz AG는 2006년 상호를 Allianz SE로 변경하여⁶¹⁾ 유럽 기업으로 전환하고 내부 지배구조를 정비하였다.

이 회사의 인도 진출 성공요인 중 하나는 소액보험⁶²⁾ 분야에 대한 집중적 투자를 통해 브랜드 가치 상승을 꾀하였다는 것이다. 인도에서는 극빈층에 대한 금융상품 공급이 오래전부터 중요한 문제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에는 이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부족한 상태여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극빈층을 위한 사업 참여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Bajaj Allianz는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명분으로 2003년부터 소액보험 사업을 시작한 결과 현재 300만 명 이상의 소액보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Bajaj Allianz는 사회적 공헌도가 높은 보험회사라는 명성을 획득하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른 상품 분야로 영업채널을 확장하게 되었다.

둘째는 Bajaj Finserv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었던 점이다. Bajaj Finserv는 현재 Bajaj Auto와 Bajaj SE로 분할돼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Bajaj Auto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큰 이륜차 및 삼륜차 제조업체다. 따라서 인도 내에서 Bajaj라는 브랜드는 인도 국민에게 매우 친숙하며 소비자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하여 Bajaj Allianz는 고객들과의 접촉에서 상대적으로 큰 신뢰를 줄 수 있었고 영업활동을 확장할 수 있었다.

61) AG는 독일어로 주식회사란 의미이며, SE는 라틴어로 유럽 기업이라는 뜻이다.

62) 소액보험의 한 예를 들자면 연 1달러의 보험료를 납입하면 납입 5년 후부터 질병, 사망, 장례비 등으로 수백 달러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 IFFCO-TOKIO General Insurance

일본 보험회사 중 가장 큰 규모인 Tokio Marine and Nichido Fire Group(TOKIO)이 인도의 농업협동조합(The Indian Farmers Fertilizer Co-operative, 이하 IFFCO)과 합작으로 설립한 IFFCO-TOKIO General Insurance(ITGI)의 진출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회사는 2000년 12월 인도에서 영업을 시작한 이후 인도 전역에 100개 이상의 오피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0년 3월 현재 145억 8,000만 루피의 보험료 수입을 기록하여 민영 손해보험회사들 중에서 시장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다.

ITGI는 언더라이팅 및 재보험 관리 기술을 TOKIO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2003년 ITIS라는 영업담당 자회사를 설립하여 현재 1,500명 이상의 종업원과 57개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판매채널을 자회사로 운영하고 있는 보험회사는 인도에서 ITGI가 유일하다. 또한 ITGI는 고객만족 중심의 영업목표를 위해 독립된 여론조사 기관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탁하여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영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ITGI의 성공요인을 분석해 보면 현지 네트워크 조직의 활용을 꼽을 수 있다. IFFCO는 인도 전역에 걸쳐 있는 농업협동조합으로서 이러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고객을 효율적으로 접촉할 수 있었던 점이 결정적인 성공요인으로 분석된다. 인도는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도의 전 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농업협동조합을 가지고 있는 IFFCO와의 합작으로 해당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인도의 많은 지역에서 ITGI의 영업을 가능하게 하였다.

다음으로 영업대상 지역을 도시로 한정하지 않고 농업을 생업으로 삼

고 있는 농촌(rural)에까지 확장하였다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하였는데, 이는 합작투자회사가 농업협동조합이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ITGI는 IFFCO, 농업지역은행, 면화협동조합, 기타 협동조합 등과 협력하여 많은 농업인들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하였다. 이 회사는 농작물에 대한 피해 보상 상품, 농업인의 상해 보장상품, 날씨 보험상품 등 농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보험상품들을 출시하여 많은 농민들을 자사 고객으로 모집할 수 있었다.

라) 시사점

인도에 진출하여 보험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선진 보험회사들의 공통된 성공요인은 현지 우량기업의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였던 점이다. 이는 인도정부의 진입규제정책에 의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우다. 즉 보험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진입규제로 인해 실질적으로 외국보험회사가 인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지회사와의 합작투자뿐이다.⁶³⁾ 따라서 현지 파트너를 선택할 경우 가장 우선순위는 현지 파트너의 기업 가치와 네트워크 조직의 활용이 될 것이다. 전술한 세 회사는 결국 우량기업을 파트너로 삼는 전략을 실행하여 인도 보험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였다.

둘째 성공요인으로 보험 영업을 함에 있어서 사회공헌도가 높은 부문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노력함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켰다는 점이다. 이러한 전략은 단기적인 경영성과에서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켜 해당 기업에 긍

63) 사무소 형태로도 진출 가능하지만 이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다.

정적인 효과를 초래하므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부문이다.

셋째 성공요인으로 틈새시장 진입을 들 수 있다. 보험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들에 맞는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전통형 상품과 더불어 다양한 계층에 알맞은 상품 개발로 이들의 보험수요를 충족시키고 나아가서 보험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틈새시장에 맞는 보험상품 개발을 세 번째 성공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3. 한·인도 보험산업 협력 확대방안

가. 인도 진출 한국 보험회사의 현황과 과제

2010년 9월 현재 인도에 진출한 국내 금융회사는 총 8개로 은행 5개, 금융투자 1개, 보험 2개이며 보험회사들의 경우 사무소 형태로 진출해 있다. 인도에 진출한 한국 보험회사들의 경우 현재 영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인도 보험시장의 정보수집 및 로컬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인도 진출 보험회사를 살펴보면 삼성생명 2004년 10월 뭄바이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인도 보험시장 전반에 대한 정보수집과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⁶⁴⁾ 2001년 인도에 진출한 삼성화재는 2009년 4월 구르가온에 주재사무소를 개설하였는데, 한국계 기업체와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보험 컨설팅과 현지 보험 브로커 및 로컬보험회

64) 한국 주재원 파견은 2011년 4월 재개되었지만 실질적인 주재사무소 역할은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사와의 인맥구축 관리를 주 업무로 하고 있다.

인도 보험시장은 발전가능성이 아주 큰 산업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한국과는 상이한 인도만의 독특한 문화 및 제도를 가지고 있어 인도 보험시장에의 진입이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존재한다. 인도 보험시장 진출의 장애요인으로 지역전문가의 부재, 현지 파트너 선택의 어려움, 인도 보험시장의 특수성, 진입규제 및 로컬기업의 보호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을 다음 절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나. 향후 효과적인 인도 보험시장 진출방안

1) 지역전문가 양성

현재 인도에 진출해 있는 한국 보험회사는 두 개이며 또한 현지 한국 직원 수도 네 명에 불과할 정도로 인도 보험시장에 대한 전문인력은 부족한 상태다. 보험산업의 특수성과 더불어 인도의 문화·제도적 상이점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인도 보험시장에 정통한 지역 전문인력의 양성은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인도정부가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인도 진출에 대한 환경이 매우 우호적으로 조성된 경우라 할지라도 지역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인도 보험시장에 대한 성공적인 진출은 확률이 매우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인도에 주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보험회사들은 인도의 보험산업과 인도 특유의 문화를 습득하기 위해 현지 파견인력을 증원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사무소 설립이 용이하지 않은 회사들의 경우에도 주재원을 파견시키거나 또는 인도 현지에 있는 보험회사에 위탁하여 인도 보험시장 및 문화를 배

우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지역전문가 과정을 개설하여 인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인력들을 예비 지역전문가로 분류하여 인도 파견에 최우선적으로 선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사항이다.

2) 단계별 전략 수립

인도 보험시장은 외국인 지분율 한도를 26%로 규제하고 있으므로 단독 진출은 불가능하며, 합작회사의 형태로 진출만 가능하다. 따라서 초기전략으로서 국내 보험회사들이 인도 보험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지 보험 산업에 대한 시장조사와 더불어 규제정책이나 관련제도 등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주재사무소 형태로 진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며, 이는 정보 수집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회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반 인프라 구축을 완료한 후 자본력을 강화하여 현지회사와 합작(Joint Venture)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시장 진입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자본력이 풍부한 대형 보험회사들이라 할지라도 각 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영역량의 평가와 시장에 대한 수익성 분석 등을 완료한 후 합작형태로 진출을 결정하여야 한다. 자본력이 약한 중소형사의 경우에는 인도시장에 대한 정보수집과 시장조사 등 동향 파악 위주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3) 효율적인 현지 경영

인도 보험시장 진출 시 인도의 기업문화 및 제도, 현지 실정에 맞는 영업조직과 관리조직의 구축 등을 통하여 기업을 운영하는 현지화 전략이

필요하다. 인사담당 업무나 노조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인을 최대한 활용하고, 글로벌 인사 및 우수한 현지인력을 고용하는 등 고용의 현지화 및 관리가 필요하다. 보험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투자가 요구되므로 무엇보다도 유능한 현지인력의 확보와 유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지의 우량 헤드헌팅 기업이나 인사관리 컨설팅 회사와 연계하여 우수직원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자사 우수직원 에 대해서는 시장가치 이상의 대우를 해줌으로 해서 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이해하여 문화충돌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현지화 전략이 순조롭게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회사의 비즈니스 플랫폼은 한국 본사의 모델을 적용하여 인도 현지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도 로컬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로 이용할 경우 본사의 보험 테크닉이나 영업노하우 전수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은 본사의 모델을 적용하여 현지화시켜야 한다.

4) 현지 우량기업의 네트워크 활용

인도는 18개의 언어가 공용어로 사용될 정도로 다양한 언어가 산재하고 있으므로 자체적인 영업망을 구축하는 것이 어려우며, 따라서 현지 합작회사의 선택 시 현지 네트워크의 활용이 용이하고, 소비자에 친숙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우선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인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ICICI Prudential 생명보험회사와 ICICI Lombard 손해보험회사는 모두 인도의 유명 은행인 ICICI 은행과 합작하여 다수의 방카슈랑스 파트

너와 제휴하고 있다. 또한 Bajaj Allianz 손해보험회사와 IFFCO-TOKIO 손해보험회사도 각각 현지의 삼륜차 제조회사인 Bajaj Finserv와 농업협동조합인 IFFCO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인도 보험시장 진출에 성공하였다. 즉 현지 우량브랜드와 제휴 및 협력관계를 맺고 이를 발전시키는 것이 인도시장 진출의 성공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틈새시장 개발

현지 시장에 맞춘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현지 고객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인도 보험시장 진출에 적극적인 글로벌 보험회사들은 시장선점을 위해 초저가 보험 등 현지 시장에 적절한 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 소득의 양극화로 인해 계층별 상품 및 서비스 특화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현재 인도 보험시장에서 소액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입보험료 기준 약 3% 정도에 불과하나 인도정부는 소액보험사업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소액보험 분야에서 인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서민에 대한 소액보험 관련 상품개발과 판매를 통한 차별화된 현지 보험시장 진출이 필요하며 소액보험사업의 진출은 현지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소액보험사업의 경우 수익성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 제고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6) 투자포럼 개최

현재 인도에서 보험영업을 목적으로 회사를 운영 중인 한국 보험회사는 없기 때문에 인도 보험시장의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대인

도 압력정책은 인도정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진입규제 완화에 대한 정책적 지원보다는 현지 우량기업을 한국의 보험회사와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투자포럼을 개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지 인도기업의 경우 한국의 보험회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있으므로 정부에서 한국 보험회사를 현지 로컬기업에 소개를 시켜주는 기회도 투자포럼을 개최하여 한국 보험회사들이 현지 로컬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향후 합작회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5장 결론



본 연구는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필요성과 거대하고 잠재력이 풍부한 신흥시장인 인도와의 연관성에서 출발하였다. 이 연구는 인도 금융산업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우리 금융기관의 대인도 진출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인도경제의 성장은 인도 금융자산을 비약적으로 증가시켰으며, 향후 인도의 금융산업은 금융서비스의 수요 증가로 2025년에는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의 자산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는 부상하는 인도기업의 잠재력, 인도 내 수시장의 성장에 따른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 소득향상에 따른 중산층의 증가, 막대한 인구와 실제 노동인구의 비율 및 빠른 인구 증가 등이다. 따라서 우리 금융기관들이 해외진출 시 고려해야 할 지역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인도는 잠재력이 큰 시장인 동시에 위험 역시 높은 시장이므로 단기적인 투자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신중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주된 위험요인으로는 열악한 인프라, 복잡한 행정절차 및 부패한 관료주의, 인도정부의 로컬기업 보호와 소비자를 위한 규제정책 등을 들 수 있다.

인도 진출전략에 대해 각 부문을 살펴보면 우선 한국의 은행들은 한·인도 CEPA를 활용하여 인도시장 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의 은행이 RBI에 지점 인가 신청을 할 때 설립 신청서와 함께 한·인도 CEPA에 명시된 ‘CEPA 발효 후 4년간 지점 설립의 우호적 고려(favorable consideration)’ 조항을 반드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추가적인 지점 설립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도 증권업의 경우 여타 금융산업에 비해 인도 내에서 규제가 가장

적은 편이며, 특히 외국기업들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분야다. 따라서 이러한 주식시장에 대한 우리 증권회사의 대인도 진출은 한국과 인도 양 시장 사이의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은행이나 보험 분야보다 좀 더 적극적인 진출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도 시장의 고위험·고수익 투자대상과 한국의 저위험·저수익 투자대상 간의 조합은 한국 투자자들에게 곧바로 새로운 시너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향후 늘어날 중산층 인구의 수요를 고려하여 인도 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 개발에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실제로 많은 외국계 증권사들이 인도에 진출해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할 대상이다. 현재 유일한 인도 진출 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 이외에도 좀더 많은 우리 증권사들의 진출이 요망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인도 내 독자적인 외국계 금융기관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글로벌 증권사의 경우 인도 내 우수한 현지기업을 합병하여 자산운용을 하는 방식으로 진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인도 주식시장 내에서는 인도 현지기업과 현지기업과 외국회사가 합작한 기업이 절대적인 비중과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계 단독회사는 비중이 적고 실적이 저조한 점을 감안하여 인도 증권시장 진출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인도 보험시장의 경우 특히 인도정부의 로컬기업 보호와 더불어 보험 소비자에 대한 각종 규제정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험회사들이 인도에 진출할 경우 상당한 준비와 노력이 요구된다. 인도 진출을 위해 인도 보험시장에 정통한 지역 전문인력의 양성이 절실하며, 현지회사와의 합작과 현지 영업망 구축 등의 현지화 전략이 요구된다. 또한 현지 실정에 맞는 현지화 전략을 수립하고, 현지 시장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개

발해야 할 것이다. 은행과 증권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보험부문의 인도 진출을 돕기 위해 한국정부 차원에서 현지 우량기업을 한국의 보험회사와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투자포럼을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이미 인도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우리 제조업 회사들의 기업사회공헌활동(Corporate Social Activities)을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다. 현재 현대자동차, LG전자, 삼성전자, POSCO 등이 인도에서의 기업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인도에서의 평판 및 지명도를 높이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강한 브랜드를 구축함으로써(임정성 2009) 인도시장 진출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전략 중 하나일 수 있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인도법인(Hyundai Motors India Limited)의 경우 건강, 교육 분야 등에 기여하는 지역개발프로그램(Community Development Program), 인도와 한국 간 문화교류를 위해 설립한 The InKo Center(Indo-Korean Cultural and Information Center), 다양한 분야에 장학금 및 기금을 제공하는 현대자동차인도재단(HMIF: Hyundai Motors India Foundation) 등을 통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하고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매출 및 수익 증대로 이어지기는 힘들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국문자료]

- 금융감독원. 2010. 『2010년 9월 국내금융회사 해외진출 현황』.
- 금융투자협회. 2008. 『인도의 금융산업과 금융시장 현황』.
- 권기철. 2009. 「인도의 금융제도와 경제성장」. 『아시아연구』, 제5호, pp. 73~92. 아시아연구소
- 김봉훈. 2008. 「인도 금융산업 현황과 진출방안」. 전경련 세미나 자료.
- 서대교. 2010. 「인도 손해보험시장의 현황 및 시사점」. 『월간 손해보험』, 3월호, pp. 42~50.
- 서대교·신종협. 2011. 「한국 보험회사의 인도 보험시장 진출 전략」. 『인도연구』, 16권 1호, pp. 33~72. 한국인도학회.
- 서병호. 2011. 「국내은행의 수익성 추이 및 국제비교」. 『금융포커스』. 금융연구원.
- 신보성. 2010.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유망지역: 아시아」. *Capital Market Perspective*, Vol. 2, No. 4. 자본시장연구원.
- 이대우. 2009. 「한국 기업들의 CSR 사례와 교훈」. 『친디아저널』, 제30호, pp. 36~38. 포스코경영연구소.
- 임정성. 2009. 「인도 CSR, 자선 넘어 사업전략으로」. 『친디아저널』, 제30호, pp. 26~29.
- 조충제. 2010. 「인도 증권시장과 투자자 보호제도」. 『증권금융』, 제313호, pp. 2~32. 한국증권금융.
- 최윤정 외. 2007. 『인도의 주요산업: 섬유, 금융, IT, 자동차』. KIEP-KOTRA 유망산업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최원근. 2007. 「인도 증권시장의 구조적 이해」. 『하나금융경영연구소논집』, 제197호, pp. 34~41.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최호상. 2007. 「인도 금융부문의 현황과 시사점」. 『SERI 경제포커스』, 제161호. 삼성경제연구소.
- _____. 2008. 「해외금융기관의 인도 진출사례와 시사점」. 전경련 세미나 자료.

- _____. 2011. 『인도 은행산업의 기회 및 위협요인과 과제』. 국제금융센터.
- 한국은행. 2011. 『주요 신흥경제국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기능』.
- 한국증권협회. 2008. 『인도 금융산업과 금융시장 전망』. 증권회사 해외진출을 위한
이머징마켓 조사시리즈(08-5).

[외국문자료]

<일문자료>

- 清水聡. 2009. 『インドの経済成長—長期的な課題と短期見通し—』. 日本総研調査部
環太平洋戦略研究センター『環太平洋ビジネス情報RIM』, Vol. 9 No. 33.
- _____. 2010. 『高成長を支えるインド銀行部門の現状と課題』. 『日本総研調査部環太
平洋戦略研究センター環太平洋ビジネス情報RIM』, Vol. 10, No. 37.

<영문자료>

- BCG · FICCI · IBA. 2011. 8. “Being Five Star in Productivity Roadmap for
Excellence in Indian Banking.”
- Christian Campbell. 2007. “Legal Aspects of Doing Business in Asia and the
Pacific.” pp. 307-308.
- Ernst & Young. 2010. “Indian Insurance Sector.”
- HSBC Securities Services. 2008. Market Entry “Guide for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FIIs).”
- IMF. 2009. “India: 2008 Article IV Consultation—Staff Report.” *IMF Country Report*,
No. 09/187. (June)
- India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IRDA). 2010. *Annual Report 2009-
2010*.
- Manoj K. Sharma and Harpreet K. Bal. 2010. “Bank Market Concentration: A
Case Study of India.” *International Review of Business Research Papers*.
- McKinsey & Company. 2007. “Indian Banking: Towards Global Best Practices.”

- Mohan, Rakesh. 2008. "The Growth Record of the Indian Economy, 1950-2008: A Story of Sustained Savings and Investment." *RBI Bulletin*. (March)
- Ministry of Home Affairs India. 2006. *Population Projections for India and States 2001-2026 Report*.
- Mohan, Rakesh. 2008a. "The Growth Record of the Indian Economy: 1950-2008: A Story of Sustained Savings and Investment." *RBI Bulletin*. (March)
- _____. 2008b. "Global Financial Crisis and Key Risks: Impact on India and Asia," *RBI Bulletin*. (November)
- Planning Commission, Government of India. 2009. *A Hundred Small Steps: Report of the Committee on Financial Sector Reforms*.
- Reserve Bank of India. 2011. *Report on Trend and Progress of Banking in India 2009-2010*. (October)
- Rastogi, Vinay R. 2009. "Summer Internship project report(Reliance Mutual Fund)." *IBSAR Institution of Management*.
- Oura, Hiroko. 2008. "Financial Development and Growth in India : A Growing Tiger in a Cage?" *IMF Working Paper*, No. 79. (March)
- SEBI. 2007-2010. *Annual Report*.
- SEBI. 2011. *Handbook of Statistics on the Indian Securities Market, 2010*.
- Swiss Re(2006-2011). "World Insurance."
-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Accessed on November 24, 2011. Nominal GDP list of countries for the year 2010.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September)

[온라인 자료]

금융투자협회. <http://www.kofia.or.kr>

서울경제신문. <http://economy.hankooki.com/lpage/stock/201105/e20110526170354117640.htm>

한국금융신문. [http://www.fntimes.com/sub/list_view.asp?num=0220111121035#\(2011.11.21\)](http://www.fntimes.com/sub/list_view.asp?num=0220111121035#(2011.11.21)).

연합뉴스. http://media.daum.net/nms/service/news/print/print_news?newsid=20111030060510402(2011. 10. 30).

ICICI Prudential. <http://www.icicipruamc.com/Homepage.aspx>

RBI (Reserve Bank of India). <http://www.rbi.org.in/home.aspx>

SEBI. <http://www.sebi.gov.in/sebiweb/>

AMFI (Association of Mutual Funds in India). <http://www.amfiindia.com>

BSE. http://www.bseindia.com/index_op.html

NSE. <http://www.nseindia.com/>

HDFC Mutual Fund. <http://www.hdfcfund.com>

KPMG India. <http://www.kpmg.com/in/en/pages/default.aspx>

Birla Sun Life Asset. <http://mutualfund.birlasunlife.com>

<http://business-standard.com/india/news/quarterly-disclosures-curb-volatility/441401>

<http://managementfunda.com/swot-analysis-of-reliance-mutual-fund/>

<http://www.info2india.com/finance/mutual-funds/franklin-templeton-mutual-funds.html>

<http://www.irda.gov.in>

<http://www.iciciprulife.com>

<http://www.bajajallianz.com>

<http://indiansharemarket.net/indian-stock-companies-list.php>

<http://www.indiaeducation.net>

<http://www.iffcotokio.co.in>

<http://info.finance.naver.com/marketindex/exchangeMain.nhn>

http://www.utimf.com/downloads/SIP%20Presentation07_2007_V1.0.pdf

부 록

- 부표 1. 증권거래소별 거래량 현황
- 부표 2. 연도별 회사별 평균 운영자산
- 부표 3. 생명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 부표 4. 손해보험사 지급여력비율
- 부표 5. 생보사 지역별 영업점 분포 현황
- 부표 6. 손보사 지역별 영업점 수



부표 1. 증권거래소별 거래량 현황

Stock Exchange	Quality of Share Traded(Lakh)								
	2001~02	2002~03	2003~04	2004~05	2005~06	2006~07	2007~08	2008~09	2009~10
Ahmedabad	7,622	7,239	2,514	4	0	0	0	0	0
BSE	182,196	221,403	388,748	477,174	664,467	560,780	986,005	739,600	1,136,513
Bangalore	35	0	3	0	0	0	0	0	0
Bhubaneswar	0	-	0	0	0	0	0	0	-
Calcutta	19,548	6,837	4,378	3,381	2,602	453	298	235	551
Cochin	29	0	0	0	0	0	0	0	0
Coimbatore	0	0	0	0	0	0	0	0	0
Delhi	6,811	34	0	0	0	0	0	0	0
Gauhati	0	0	0	0	0	0	0	0	0
Hyderabad	143	37	17	45	75	40	0	0	0
ISE	123	30	0	0	0	0	0	0	0
Jaipur	0	0	0	0	0	0	0	0	0
Ludhiana	765	0	0	0	0	0	0	0	0
Madras	52	0	85	14	6	6	0	0	0
Magadh	0	0	0	0	2	0	0	0	0
Mangalore	0	0	0	0	0	0	0	0	0
MPSE	11	0	0	0	0	0	0	0	0
NSE	278,409	364,066	713,301	787,996	818,438	850,515	1,481,229	1,418,928	2,205,878
OTCEI	5	2	22	1	0	0	0	0	0
Pune	396	1	0	2	0	0	0	0	0
SKSE	0	0	0	0	0	0	0	0	0
UPSE	7,997	9,288	6,767	1,917	357	151	74	23	5
Vadodara	7	8	0	0	0	0	0	0	0
Total	504,149	608,944	115,807	1,270,535	1,458,947	1,411,945	2,467,606	2,158,786	3,342,947

자료: SEBI(2010).

부표 2. 연도별 회사별 평균 운영자산

(매년 9월말 기준, 10만 루피)

자산순위 (2011.9월기준)	Mutual Fund Name	합작 여부	연도	Average AUM	성장률 (%)	연평균 성장률
1	HDFC Mutual Fund	Joint Ventures	2006	2635229,01		23%
			2007	4258332,93	61,59	
			2008	5199828,50	22,11	
			2009	9042726,31	73,90	
			2010	9310557,87	2,96	
			2011	9182711,19	-1,37	
2	Reliance Mutual Fund	Indian	2006	2992415,73		20%
			2007	6983188,55	133,36	
			2008	8649445,55	23,86	
			2009	11825143,7	36,72	
			2010	10774854,2	-8,88	
			2011	9066060,39	-15,86	
3	ICICI Prudential Mutual Fund	Joint Ventures	2006	3230409,71		15%
			2007	5008694,83	55,05	
			2008	4977248,67	-0,63	
			2009	8011957,45	60,97	
			2010	6972752,43	-12,97	
			2011	7521710,50	7,87	
4	Birla Sun Life Mutual Fund	Joint Ventures	2006	1616065,92		26%
			2007	2627523,93	62,59	
			2008	3757772,29	43,02	
			2009	6305586,60	67,80	
			2010	6742134,55	6,92	
			2011	6421703,15	-4,75	
5	UTI Mutual Fund	Others	2006	3405307,14		11%
			2007	4250180,48	24,81	
			2008	4462318,65	4,99	
			2009	7358879,67	64,91	
			2010	6761772,28	-8,11	
			2011	6257986,12	-7,45	
6	SBI Mutual Fund	Joint Ventures	2006	1556446,19		21%
			2007	2340175,05	50,35	
			2008	2924777,06	24,98	
			2009	3487344,70	19,23	
			2010	4210044,79	20,72	
			2011	4773139,40	13,38	

부표 2. 계속

자산순위 (2011.9월기준)	Mutual Fund Name	합작 여부	연도	Average AUM	성장률 (%)	연평균 성장률
7	Franklin Templeton Mutual Fund	Foreign	2006	2382396,18		6%
			2007	3050633,17	28,05	
			2008	2817550,19	-7,64	
			2009	2844923,98	0,97	
			2010	4214221,55	48,13	
			2011	3441037,27	-18,35	
8	Kotak Mahindra Mutual Fund	Indian	2006	999701,85		21%
			2007	1933486,07	93,41	
			2008	1881264,46	-2,70	
			2009	3624694,55	92,67	
			2010	2842982,20	-21,57	
9	DSP BlackRock Mutual Fund	Joint Ventures	2006	1149192,78		17%
			2007	1470298,97	27,94	
			2008	1851211,05	25,91	
			2009	1758731,91	-5,00	
			2010	2667368,47	51,66	
			2011	3008371,45	12,78	
10	IDFC Mutual Fund	Indian	2006	N/A		25%
			2007	N/A		
			2008	1185549,77		
			2009	2379293,84	100,69	
			2010	1868081,10	-21,49	
11	Tata Mutual Fund	Indian	2006	1324144,27		9%
			2007	1876447,47	41,71	
			2008	2077775,28	10,73	
			2009	2020715,56	-2,75	
			2010	2196363,66	8,69	
			2011	2263377,94	3,05	
12	Sundaram Mutual Fund	Indian	2006	590412,92		17%
			2007	916186,22	55,18	
			2008	1020115,24	11,34	
			2009	1249827,61	22,52	
			2010	1403706,68	12,31	
			2011	1510957,25	7,64	

부표 2. 계속

자산순위 (2011.9월기준)	Mutual Fund Name	합작 여부	연도	Average AUM	성장률 (%)	연평균 성장률
13	Deutsche Mutual Fund	Indian	2006	655089,11		12%
			2007	982438,84	49,97	
			2008	1140456,99	16,08	
			2009	1382063,97	21,19	
			2010	646149,90	-53,25	
			2011	1276082,58		
14	Religare Mutual Fund	Indian	2006	N/A		9%
			2007	703102,94		
			2008	793706,78	12,89	
			2009	1385415,09	74,55	
			2010	1077984,98	-22,19	
			2011	1104213,93	2,43	
15	Fidelity Mutual Fund	Foreign	2006	530074,57		9%
			2007	3050633,17	475,51	
			2008	767985,73	-74,83	
			2009	919197,57	19,69	
			2010	853636,58	-7,13	
			2011	911951,33	6,83	
16	Axis Mutual Fund	Indian	2006	N/A		28%
			2007	N/A		
			2008	N/A		
			2009	N/A		
			2010	463619,87		
			2011	754478,45	62,74	
17	LIC NOMURA Mutual Fund	Joint Ventures	2006	1070957,19		-7%
			2007	1287407,99	20,21	
			2008	1616506,30	25,56	
			2009	4239269,03	162,25	
			2010	1972696,88	-53,47	
			2011	707533,41	-64,13	
18	Canara Robeco Mutual Fund	Joint Ventures	2006	270967,62		17%
			2007	270017,08	-0,35	
			2008	600625,81	122,44	
			2009	760332,46	26,59	
			2010	771889,23	1,52	
			2011	692014,56	-10,35	

부표 2. 계속

자산순위 (2011.9월기준)	Mutual Fund Name	협력 여부	연도	Average AUM	성장률 (%)	연평균 성장률
19	JM Financial Mutual Fund	Indian	2006	436814,72		7%
			2007	575742,50	31,80	
			2008	1044691,27	81,45	
			2009	877658,27	-15,99	
			2010	771889,23	-12,05	
			2011	646827,17	-16,20	
20	Peerless Mutual Fund	Indian	2006	N/A		46%
			2007	N/A		
			2008	N/A		
			2009	N/A		
			2010	262250,16		
			2011	560838,04	113,86	
21	Taurus Mutual Fund	Indian	2006	29320,24		62%
			2007	31812,93	8,50	
			2008	39058,09	22,77	
			2009	100033,14	156,11	
			2010	269389,76	169,30	
			2011	536733,62	99,24	
22	BNP Paribas Mutual Fund	Foreign	2006	N/A		-
			2007	N/A		
			2008	N/A		
			2009	N/A		
			2010	N/A		
			2011	524323,56		
23	HSBC Mutual Fund	Joint Ventures	2006	1046007,73		-12%
			2007	1888292,98	80,52	
			2008	1553281,75	-17,74	
			2009	750255,91	-51,70	
			2010	480980,16	-35,89	
			2011	495213,26	2,96	
24	IDBI Mutual Fund	Others	2006	N/A		50%
			2007	N/A		
			2008	N/A		
			2009	N/A		
			2010	219960,13		
			2011	492581,02	123,94	

부표 2. 계속

자산순위 (2011.9월기준)	Mutual Fund Name	합작 여부	연도	Average AUM	성장률 (%)	연평균 성장률
25	JPMorgan Mutual Fund	Joint Ventures	2006	N/A		20%
			2007	194555,58		
			2008	240029,41	23,37	
			2009	454577,99	89,38	
			2010	844769,03	85,84	
			2011	474769,91	-43,80	
26	PRINCIPAL Mutual Fund	Joint Ventures	2006	1166726,22		-15%
			2007	1535259,47	31,59	
			2008	994428,1	-35,23	
			2009	888198,32	-10,68	
			2010	564190,87	-36,48	
			2011	453561,97	-19,61	
27	Goldman Sachs Mutual Fund	Foreign	2006	N/A		-
			2007	N/A		
			2008	N/A		
			2009	N/A		
			2010	N/A		
			2011	435758,53		
28	L&T Mutual Fund	Indian	2006	N/A		8%
			2007	N/A		
			2008	N/A		
			2009	N/A		
			2010	354251		
			2011	413549,35	16,74	
29	Baroda Pioneer Mutual Fund	Joint Ventures	2006	17121,55		65%
			2007	9397,23	-45,11	
			2008	5384,81	-42,70	
			2009	448520,29	8229,36	
			2010	373138,07	-16,81	
			2011	339858,69	-8,92	
30	Morgan Stanley Mutual Fund	Foreign	2006	275556,51		-5%
			2007	348268,77	26,39	
			2008	284484,66	-18,31	
			2009	231102,37	-18,76	
			2010	235144,37	1,75	
			2011	197142,05	-16,16	

부표 2. 계속

자산순위 (2011.9월기준)	Mutual Fund Name	합작 여부	연도	Average AUM	성장률 (%)	연평균 성장률
31	Pramerica Mutual Fund	Foreign	2006	N/A		55%
			2007	N/A		
			2008	N/A		
			2009	N/A		
			2010	63000,66		
			2011	150488,8	138,87	
32	ING Mutual Fund	Joint Ventures	2006	456012		-22%
			2007	902527,73	97,92	
			2008	629810,18	-30,22	
			2009	196028,47	-68,87	
			2010	146828,1	-25,10	
			2011	103605,28	-29,44	
33	Union KBC Mutual Fund	Joint Ventures	2006	N/A		-
			2007	N/A		
			2008	N/A		
			2009	N/A		
			2010	N/A		
			2011	86937,37		
34	Daiwa Mutual Fund	Foreign	2006	N/A		-
			2007	N/A		
			2008	N/A		
			2009	N/A		
			2010	N/A		
			2011	78908,3		
35	AIG Global Investment Group Mutual Fund	Foreign	2006	N/A		-20%
			2007	225059,41		
			2008	302568,6	34,44	
			2009	170215,52	-43,74	
			2010	101977,07	-40,09	
			2011	72261,76	-29,14	
36	Sahara Mutual Fund	Indian	2006	24435,32		11%
			2007	18783,05	-23,13	
			2008	18154,24	-3,35	
			2009	22195,82	22,26	
			2010	75619,44	240,69	
			2011	45583,04	-39,72	

부표 2. 계속

자산순위 (2011.9월기준)	Mutual Fund Name	합작 여부	연도	Average AUM	성장률 (%)	연평균 성장률
37	Edelweiss Mutual Fund	Indian	2006	N/A		10%
			2007	N/A		
			2008	30195,33		
			2009	11361,97	-62,37	
			2010	21547,51	89,65	
			2011	44717,07	107,53	
38	Mirae Asset Mutual Fund	Foreign	2006	N/A		-34%
			2007	N/A		
			2008	230982,59		
			2009	25158,56	-89,11	
			2010	27518,53	9,38	
			2011	44662,09	62,30	
39	Motilal Oswal Mutual Fund	Indian	2006	N/A		-5%
			2007	N/A		
			2008	N/A		
			2009	N/A		
			2010	30541,54		
			2011	27767,72	-9,08	
40	Escorts Mutual Fund	Indian	2006	8293,05		16%
			2007	13962,47	68,36	
			2008	21126,78	51,31	
			2009	20267,96	-4,07	
			2010	19786,51	-2,38	
			2011	20573,31	3,98	
41	Bharti AXA Mutual Fund	Joint Ventures	2006	N/A		-21%
			2007	N/A		
			2008	44597,62		
			2009	33980,51	-23,81	
			2010	51087,23	50,34	
			2011	17613,38	-65,52	
42	Quantum Mutual Fund	Indian	2006	2990,5		32%
			2007	5912,41	97,71	
			2008	6943,45	17,44	
			2009	7724,42	11,25	
			2010	11947,77	54,68	
			2011	15669,3	31,15	

자료: SEBI(2010).

부표 3. 생명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보험사	March	June	September	December	March
	2009	2009	2009	2009	2010
민영사					
Aegonn Religare	1,93	2,14	1,93	2,07	2,66
Aviva	5,91	3,61	5,23	5,59	5,12
Bajaj Allianz	2,62	2,35	2,53	2,59	2,68
Bharti AXA	2,07	2,16	2,58	1,86	1,68
Birla Sun Life	2,44	1,94	1,96	1,75	2,11
Canara HSBC	5,74	4,45	3,26	3,89	2,58
DLF Pramerica	1,71	1,53	1,59	1,74	1,67
Future Generali	3,17	1,99	2,25	2,32	2,34
HDFC Standard	2,58	2,32	2,14	1,95	1,80
ICICI Prudential	2,31	2,54	2,57	2,89	2,90
IDBI Federal	6,11	5,67	5,33	4,91	4,05
IndiaFirst*	NA	NA	NA	7,77	5,27
ING Vysya	2,26	2,96	2,32	1,82	1,79
Max New York	3,04	2,43	2,22	1,90	3,22
MetLife	2,27	1,76	1,82	1,65	1,65
Kotak Mahindra	2,69	3,02	3,07	3,05	2,79
Reliance	2,50	2,25	2,22	1,91	1,86
Sahara India	3,60	4,04	4,33	4,51	4,50
SBI Life	2,92	2,73	2,64	2,52	2,17
Shriram	3,05	2,91	2,63	2,61	2,69
Star Union Dai-ichi	2,53	7,89	7,66	7,77	7,46
TATA AIG	2,51	1,91	2,05	1,80	2,11
국영사					
LIC	1,54	1,74	1,72	1,66	1,54

주: * FY2009년 영업 시작

자료: IRDA(2010).

부표 4. 손해보험사 지급여력비율

SL No.	Insurer	March	June	September	December	March
		2009	2009	2009	2009	2010
민영사						
1	Bajaj Allianz	1,62	2,18	2,18	2,18	1,54
2	Bharti AXA	2,11	1,78	1,78	1,71	5,38
3	Cholamandalam	1,02	2,14	1,65	1,56	1,76
4	Future Generali	1,83	1,80	1,85	1,83	1,54
5	HDFC Ergo	2,48	1,52	2,72	1,91	1,49
6	ICICI Lombard	2,03	1,98	2,08	2,08	2,07
7	IFFCO Tokio	1,77	2,37	2,33	2,22	1,76
8	Raheja QBE	NA	3,93	3,84	3,81	3,79
9	Royal Sundaram	1,64	2,51	2,10	2,07	1,39
10	Reliance	1,59	2,60	2,37	1,91	1,70
11	SBI General	NA	NA	NA	12,97	12,84
12	Shriram	1,94	1,99	2,06	2,18	1,75
13	TATA AIG	1,97	1,92	1,85	1,83	1,88
14	Universal Sompo	4,23	4,09	3,86	3,57	3,15
국영사						
15	National	1,56	1,60	1,75	1,63	1,60
16	New India	3,41	3,34	3,45	2,83	3,55
17	Oriental	1,66	1,67	1,56	1,51	1,56
18	United India	3,32	2,55	3,79	3,91	3,41
특수보험회사						
19	AIC	4,58	31,37	4,54	2,61	2,07
20	Apollo Munich Health	1,82	1,52	1,58	1,68	1,64
21	ECGC	16,42	27,71	26,23	24,50	14,17
22	Max Bupa Health	NA	NA	NA	NA	2,07
23	Star Health	1,38	2,55	1,97	1,62	1,68
재보험사						
24	GIC	3,67	3,49	3,04	3,89	3,71

자료: IRDA(2010).

부표 5. 생보사 지역별 영업점 분포 현황

Insurer	Metro	Urban	Semi-urban	Others	Company Total
Aegon	19	38	9		66
Aviva	34	62	69	21	186
Bajaj Allianz	65	164	452	470	1,151
Bharti AXA	33	66	93	11	203
Birla Sunlife	71	100	383	98	652
Canara HSBC	10	17	6		33
DLF Pramerica	3	9	19	1	32
Future Generali	12	48	30		90
HDFC Standard	81	104	298	85	568
ICICI Prudential	104	151	526	1,140	1,921
IDBI Federal	10	20	6	1	37
IndiaFirst	2	0	0	0	2
ING Vysya	23	58	159	14	254
Kotak Mahindra	41	70	95	9	215
Max NewYork	102	137	235	231	705
MetLife	40	73	121	21	255
Reliance Life	90	119	570	468	1,247
Sahara	6	27	15	1	49
SBI Life	48	119	251	76	494
Shriram	25	49	85	3	162
Star Union Dai-ichi	6	1			7
TATA AIG	72	123	185	59	439
Private total	897	1,555	3,607	2,709	8,768
LIC	347	550	923	1,430	3,250
Industry total	1,244	2,105	4,530	4,139	12,018

주: Metro : Delhi, Mumbai, Chennai, Kolkata, Hyderabad and Bangalore.

Urban : HRA 기준에 의한 A, B-1 and B-2 클래스 도시.

Semi-urban: HRA 기준에 의한 C 클래스 도시.

Others : HRA 기준에 등록되지 않은 지역.

자료: IRDA(2010).

부표 6. 손보사 지역별 영업점 수

주/지역	손보사	National	New India	United	Oriental	Royal Sundaram	TATA AIG	Reliance	IFFCO Tokio	ICICI Lombard	Bajaj Allianz	HDFC Ergo	Cholam -andalam	Star Health
Andhra Pradesh		91	77	145	68	9	2	16	3	31	22	6	5	29
Arunachal Pradesh		1	1	1										
Assam		34	23	49	26	1	1	2		3	3	1	1	1
Bihar		39	20	31	36			1		4	5	1	1	1
Chhattisgarh		13	11	14	14	1	1	2	1	7	4	1	1	2
Goa		8	5	8	4	1	1	1	1	2	4	1	1	
Gujarat		55	64	79	67	10	4	21	7	26	27	5	9	2
Haryana		42	29	46	33	1	1	7	3	16	5	2	3	4
Himachal Pradesh		17	8	13	15			1		2	2			1
Jammu & Kashmir		14	11	13	14			1		2	2	1		1
Jharkhand		23	22	18	16	1	2	4		4	4	2	2	1
Karnataka		59	66	99	73	7	2	15	4	23	16	4	6	20
Kerala		51	58	97	56	7	1	13	1	16	9	8	7	15
Madhya Pradesh		52	39	53	43	3	1	13	3	19	6	3	3	10
Maharashtra		124	151	140	103	8	12	33	16	43	32	11	18	23
Manipur		1	1	1	1									
Meghalaya		2	3	5	3									
Mizoram		1	1	1	1									1

부표 6. 계속

주/지역	손보사	National	New India	United	Oriental	Royal Sundaram	TATA AIG	Reliance	IFFCO Tokio	ICICI Lombard	Bajaj Allianz	HDFC Ergo	Cholam -andalam	Star Health
Nagaland		1	2	1	2									
Orissa		37	35	30	30	2	1	3	1	17	6	2	2	4
Punjab		88	52	83	61		2	8	1	19	13	4	4	3
Rajasthan		73	34	90	57	1	1	9	1	17	7	5	2	6
Sikkim		1	1	1	1					1				
Tamil Nadu		94	95	186	71	17	4	15	3	22	25	6	27	57
Tripura		4	1	4	3					1				
Uttar Pradesh		105	99	81	95	3	3	20	3	36	10	5	6	6
Uttarakhand		9	16	34	13		1			7	1	1	1	
West Bengal		103	50	48	38	4	3	11	3	20	14	2	3	13
Andaman & Nicobar			1	1							1			
Chandigarh		11	12	9	7	1	1		1	2		1		2
Dadra & Nagar Haveli			1	0	0									
Daman & Diu			0	0	2									
Delhi		63	45	51	46	2	3	15	8	8	13	6	3	11
Lakshadweep			1	5										
Puducherry		4	4	5	1	1		1		1	1		1	2
Total		1,220	1,039	1,437	1,000	80	47	212	60	350	232	78	106	215

부표 6. 계속

주/지역	손보사	Future Generali	Apollo Munich	Universal Sompo	Bharti Axa	Shriram	Raheja QBE	AIC	ECGC	Total
Andhra Pradesh		4	1	3	4	6	0	1	3	526
Arunachal Pradesh										3
Assam		1			1			1	1	149
Bihar		2		1				1		143
Chhattisgarh		1		1	1			1		76
Goa		1			1					39
Gujarat		6	1	3	3	3			4	396
Haryana		5	2		1	5			2	207
Himachal Pradesh		1								60
Jammu & Kashmir		1							1	61
Jharkhand		2			1			1		103
Karnataka		4	2	2	5	1	0	1	4	413
Kerala		6	2	1	1	1	0	1	1	352
Madhya Pradesh		4		2	2	2	0	1	1	260
Maharashtra		15	6	8	8	5	1	1	11	769
Manipur										4
Meghalaya										15
Mizoram										4
Nagaland										6

부표 6. 계속

주/지역	손보사	Future Generali	Apollo Munich	Universal Sampo	Bharti Axa	Shriram	Raheja QBE	AIC	EGGC	Total
Orissa		2	1	2	1			1	1	178
Punjab		4	1	1	3	3		1	2	353
Rajasthan		6	1	2	3	7		1	2	325
Sikkim										5
Tamil Nadu		7	3	3	4	6	0	1	10	656
Tripura										13
Uttar Pradesh		11	2	2	3	8		1	5	504
Uttarakhand				2	1	1		1		88
West Bengal		4	1	2	2	1		1	3	326
Andaman & Nicobar							0			3
Chandigarh		1	1	1	1	1		1	1	54
Dadra & Nagar Haveli										1
Daman & Diu										2
NCT of Delhi		3	6	3	4	5		1	5	301
Lakshadweep							0			1
Puducherry							0			21
Total		91	30	39	50	55	1	18	57	6417

주: 2010년 3월 말 현재

자료: IRDA(2010).

Executive Summary

Korea-India Cooperation and Exchange in the Financial Sector: Banking, Securities, and Insurance Industries

Woong Lee, Ho-Sang Choi, Moosup Jung, and Daigyo Seo

In 2011, it is expected that a profit of 30 trillion won would be realized in the financial sector in Korea. However, as far as profitability such as return on assets or return on equity is concerned, it is not as high as that of other major countries, and further volatility of the profitability is the highest among the major countries. Moreover, it is often said that the financial market in Korea is almost saturated. In this situation, businesses in the financial sector are required to differentiate and diversify their services to improve their profitability, and one of the ways is to expand into emerging economies, like India, that are growing fast at the aggregate level but are getting left behind in the financial sector.

This report examines the Indian financial sector, evaluates its system, and tries to suggest how Korean financial companies make inroad the Indian financial market or expand their businesses there. In addition, along with the Korea-India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this report studies ways to vitalize Korea-India financial industry cooperation. In particular, this paper provides the information on Indian financial industry and suggests strategies to enter the financial market and expand services in India and expand businesses in India in order to support Korean financial companies.

This paper consists of 5 chapters. Chapter 1 is the introduction, chapters 2 to 4 are the main contents, and chapter 5 concludes the paper. First, chapter 2 overviews the Indian banking industry, examines banking systems and investment conditions, and seeks ways to cooperate between Korea and India in the banking industry. Chapter 3 describes development, current conditions, and the state of competition in the Indian stock market. Chapter 3 also analyzes securities companies in India through case studies, which provides Korean securities companies with references for the penetration and expansion in India. The materials and information in this report are also valuable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support and back up Korean stock companies that are planning to penetrate the Indian stock market. Chapter 4 outlines the insurance industry in India and inspects related investment conditions. This chapter also provides examples in which advanced countries inroad into the Indian insurance market. Next, chapter 4 tries to recommend how Korean insurance companies enter the Indian insurance market and expand their businesses in India. Lastly chapter 5 summarizes the previous chapters and makes several alternatives to strengthen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and Indian financial sectors.

KIEP 연구자료 발간자료 목록

- 2011년

11-01 일본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과 시사점 / 김규관 · 이형근

11-02 장쑤성(江蘇省) 태양광산업의 발전과 시사점 / 노수연

11-03 지역단위 무역피해 지원제도의 주요국 운영사례 분석 및 시사점 / 김정곤 · 김군태

11-04 징진지(京津冀) 지역 LED 산업 현황과 시사점 / 김부용
ODA 정책연구 11-01

11-05 ODA 사업의 효과 측정을 위한 실험적 방법론 연구 / 손기태 · 김민희 · 박수경
ODA 정책연구 11-02

11-06 OD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및 국제 비교 / 권 율 · 박수경 · 이주영
ODA 정책연구 11-03

11-07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논의동향과 한국의 정책과제 / 정지원 · 정지선
ODA 정책연구 11-04

11-08 녹색기후기금의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 / 정지원 · 박수경 · 임소영
ODA 정책연구 11-05

11-09 국제사회의 민간부문개발 지원 현황과 한국의 추진과제 / 정지선 · 이주영
ODA 기초연구 11-01

11-10 G20 개발의제와 한국의 국제개발 협력 / 김종일 · 김낙년 · 황원규 · 윤미경
ODA 기초연구 11-02

11-11 무역과 개발의 주요 이슈와 정책 시사점 / 강인수 · 송유철 · 유진수

11-12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한·중·일 사무국의 역할과 과제 / 정형곤 · 방호경
ODA 기초연구 11-03

11-13 주요국 무역분야 원조의 정책체계와 한국의 정책방향 / 한홍렬 · 이호생 · 이시욱

- ODA 기초연구 11-04
- 11-14 ODA 분야에서의 민관협력 발전방향 모색: 기업의 해외 사회공헌을 중심으로 / 노한균
- ODA 기초연구 11-05
- 11-15 국제개발협력 인력양성 체계 구축 방안 / 김철희
- 11-16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특구 비교 분석과 시사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중심으로 / 조영관
- 11-17 한·중·일 3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 비교연구 / 이창재·정재완·방호경
- 11-18 한국 중소기업체의 중국 장쑤성 진출사례와 시사점 / 노수연·곽주영
- 11-19 주요국의 FTA 환경협정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김정곤·김혜윤
- 11-20 북한의 대외경제 10년평가(2001~10년) / 홍익표·이종운·김지연·양문수·이찬우·임수호·방호경
- 11-21 미국의 중소기업 수출확대정책 및 시사점 / 고희체·이보람·오민아
- 11-22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시사점 / 박윌라·최의현
- 11-23 중국의 희토류산업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과 시사점 / 김부용·오종혁
- 11-24 중국 광둥(廣東)성 수출가공기업의 내수시장 진출 현황 및 시사점 / 정지현·이혁구
- 11-25 중국 산둥성 투자환경 분석: 르자오, 웨이팡, 둥잉, 빈저우를 중심으로 / 이상훈
- 11-26 중국 중부지역의 생산기지 활용가능성 연구 / 정지현
- 전략지역심층연구 11-01
- 11-27 인도 경제개혁 20년의 평가와 전망 / 김찬완·손승호·임정성
- 전략지역심층연구 11-02
- 11-28 남아시아 3개국 투자매력도 분석과 진출방안 / 이순철·이영일
- 전략지역심층연구 11-03
- 11-29 한·인도 양국에서의 국가 이미지 / 조충제·은기수·박 건·장원봉·유성용·정혜원

- 전략지역심층연구 11-04
- 11-30 한·인도 그린에너지산업 협력방안 / 김현재 · 조상민 · 박찬국
- 전략지역심층연구 11-05
- 11-31 한·인도 금융산업 협력 확대방안: 은행, 증권, 보험 / 이 용 · 최호상 · 정무섭 · 서대교
- 전략지역심층연구 11-06
- 11-32 ASEAN의 의사결정 구조와 방식 / 강대창 · 박나리 · 유현석 · 김형중 · 이동윤
- 전략지역심층연구 11-07
- 11-33 동남아시아의 최근 정치·외교에 대한 전략적 평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중심으로 / 조홍국 · 윤진표 · 이한우 · 최경희 · 김동엽
- 전략지역심층연구 11-08
- 11-34 메콩지역 개발 전략: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 김태윤 · 김홍구 · 조영희 · 이요한 · 신민금
- 전략지역심층연구 11-09
- 11-35 동남아시아 이슬람 경제의 이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 강대창 · 박나리 · 김형준 · 홍석준 · 원순구 · 손승호
- 전략지역심층연구 11-10
- 11-36 미얀마의 사회경제개발과 한국의 개발협력 구상 / 이호생 · 강인수 · 송유철 · 한홍렬
- 전략지역심층연구 11-11
- 11-37 미얀마 사회문화 · 정치와 발전잠재력 / 오윤아 · 장준영 · 최재현 · 우꼬래 · 강대창 · 김유미 · 박나리
- 전략지역심층연구 11-12
- 11-38 포스트소비에트 20년 중앙아시아의 미래: 통합 가능성과 균열 요인 연구 / 이재영 · 김석환 · 정세진 · 박정호 · 박병인 · 나희승
- 전략지역심층연구 11-13
- 11-39 한·중앙아시아 인적자원의 교류현황과 활성화 방안 / 윤성학 · 김영진 · 김일겸 · 김안국 · 홍미희 · 성동기 · 이시영
- 전략지역심층연구 11-14
- 11-40 중앙아시아 외국인투자의 특징과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 조영관 · 주진홍 · 강명구 · 김영식 · 오영일 · 이상준

- 전략지역심층연구 11-15
- 11-41 **몽골 광물자원 개발 현황과 한국의 진출방안 /**
이재영 · 이평래 · 윤익중 · 이시영 · S. Avirmed
- 전략지역심층연구 11-16
- 11-42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
인도
- 전략지역심층연구 11-17
- 11-43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
동남아시아 1
- 전략지역심층연구 11-18
- 11-44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I**
동남아시아 2
- 전략지역심층연구 11-19
- 11-45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V**
중앙아시아 1
- 전략지역심층연구 11-20
- 11-46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V**
중앙아시아 2
- 전략지역심층연구 11-21
- 11-47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VI**
몽골, 터키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8
- 11-48 **브라질의 '파워외교' 와 한국에의 시사점 /** 김원호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9
- 11-49 **중남미의 기술지도와 한 · 중남미 기술협력전략 /** 김종섭 · 박민경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40
- 11-50 **중동 민주화의 대내외 정치역학 /** 서정민 · 인남식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41
- 11-51 **중동지역 한국학 관련 고문헌 및 역사 어문자료 기초 조사 /** 이희수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23
- 11-52 **한 · 인도 기업의 양국 인력 활용실태 및 적극적 활용방안 연구 /**
허계준 · 염지환 · 김봉훈 · 이건준 · 김상식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24
- 11-53 **과테말라 자원 · 에너지 회수를 위한 유기성폐기물 수거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 정우현 · 추장민 · 한동훈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25
 11-54 중동 · 북아프리카와의 수산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알제리 · 튀니지 · 리비아를 중심으로 / 홍현표 · 장홍석 · 안재현 · 한덕훈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26
 11-55 아시아 대도시권의 대중교통중심개발(TOD) 효과분석 및 종합편익 산정에 관한 연구: 서울, 방콕, 마닐라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 박지형 · 성현곤 · 황보희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27
 11-56 중남미진출 한국기업의 사회적 공헌(CSR) 제고방안 연구 / 오삼교 · 이남섭 · 최윤국 · 홍옥현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28
 11-57 한국 체류 중남미인 실태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 / 김창민 · 주종택 · 최진숙 · 강정원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29
 11-58 3개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자원개발 관련법 비교 연구 / 정경원 · 조희문 · 문남권 · 유동재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0
 11-59 중남미 인구변동 연구 / 박운주 · 임상래 · 이상현 · 조영태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1
 11-60 브라질의 중앙과 지방정부 조직구조 및 기능 연구 / 김영철 · 임두빈 · 김우성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2
 11-61 베네수엘라 오일샌드에 대한 한국의 진출방안 연구 / 조성권 · 주미영 · 박상현 · 하상섭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3
 11-62 최근 MENA 지역 정세변화에 따른 투자환경 변화 및 대응방안 / 문정인 · 이광열 · 고아름 · 김현규 · 김진영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4
 11-63 한국과 중동 · 북아프리카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 / 조홍식 · 신동찬 · 이유봉 · 황형준 · 조정익 · 정대원 · 강형석 · 김 인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5
 11-64 이슬람 금융: 이론과 현실 및 활용방안 / 이충열 · 이영수 · 제상영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6
 11-65 북아프리카지역에서의 부족집단 간 갈등 양상에 관한 기초연구: 마그레브지역 베르베르족을 중심으로 / 김정숙 · 김양주 · 임기대

■ 2010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7
- 11-66 주요 중동국가들의 정치권력구조 연구 / 황병하·김강석·김선하·김화선·최지원
- 10-01 한·터키 FTA와 경제협력 증진방안 / 정 철·성한경·이철원·오테현
- 10-02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농업 정책과 한·중앙아시아 농업 협력 확대 방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을 중심으로 / 조영관·이시영
- 10-03 최근 WTO 회원국들의 TBT 동향과 정책시사점 / 장용준·남호선
- 10-04 신아시아 시대의 한국과 몽골의 전략적 협력방안 / 이재영·이시영·두게르 간바타르
- 10-05 중앙아시아 플랜트시장의 특징과 한국의 참여방안: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 윤성학
- 10-06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인도네시아의 정치·경제 상황과 향후 전망 / 손기태·백유진·김민희
- 10-07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논의동향 및 쟁점 분석 / 정지원·박수경
- 10-08 아프리카 바이오에너지 개발 잠재력 및 발전 전망 / 박영호·허윤선
- 10-09 고용중심형 녹색원조의 주요 사례와 시사점 / 한바란·김민희
- 10-10 중국의 대외원조정책과 추진체제 / 권 울·박수경
- 10-11 아프리카 주요국 경제 현황 및 중점 협력분야: 가나·콩고(DRC)·남아공·에티오피아 / 박영호·김민희·전혜린
- 10-12 아시아·태평양 통상협정 활용률 측정을 통한 경제적 효과분석 / 김한성·금혜윤
- 10-13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현황과 철강제품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추정 연구 / 김태윤·이재호
- 10-14 중국 FTA 협상에서 인력이동에 관한 연구: 중국 기체결 FTA 협정 분석을 중심으로 / 여지나
- 10-15 OECD 회원국의 서비스산업 분석: 산업구조, 파급효과, 생산성을 중심으로 / 강준구
- 10-16 GTI(Greater Tuman Initiatives)의 추진동향과 국제협력 방안 / 조명철·김지연

- 10-17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투자매력도 분석과 한국의 진출방안 /
조영관 · 강명구 · 김계환 · 김철 · 성원용 · 이시영
- 10-18 중앙아시아 에너지 플랜트시장 전망과 한국의 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
윤성학 · 문창권 · 변현섭 · 이성훈 · 장세진 · 주진홍 · 최 호
- 10-19 우즈베키스탄 지배집단과 권력 엘리트 연구 /
이재영 · 김석환 · 박상남 · 손영훈
- 10-20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국가적 이미지 /
윤성학 · 은기수 · 박수미 · 박 건 · 장원봉
- 10-21 한국형 개발경험전수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 기존 사례
분석 및 우즈베키스탄에의 적용 / 강인수 · 송유철 · 이호생 · 한홍렬
- 10-22 KIEP 중앙아시아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공모집 I: 정치·문화
- 10-23 KIEP 중앙아시아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공모집 II: 경제·자원·과학
- 10-24 The Belarusian Economy and its Economic Relations with
the EU / Jee Young Hwang and Ji Sang Chang
- 10-25 부상하는 강대국 인도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
라운도 · 이옥순 · 김찬완 · 유태환
- 10-26 아세안의 경제발전과 한·아세안 개발협력 / 권 율 · 이재호 · 조흥국 외
- 10-27 한·중남미 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 / 권기수 · 김원호 · 이성형 · 김종섭
- 10-28 인도 권역별 진출환경 평가: 동부 / 김봉훈 외
- 10-29 인도 권역별 진출환경 평가: 서부 / 김봉훈 외
- 10-30 인도 권역별 진출환경 평가: 남부 / 김봉훈 외
- 10-31 인도 권역별 진출환경 평가: 북부 / 김봉훈 외
- 10-32 동남아 전략산업 분석: 자동차산업 - 발전잠재력과 전략적 시사점 /
이성신 · 박원장
- 10-33 동남아 전략산업 분석: IT - 발전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
강인수 · 김태은 · 홍승연
- 10-34 동남아 전략산업 분석: 금융 - 금융산업 현황과 협력방향 /
정계룡 · 손승호 · 이진경 · 이세린
- 10-35 동남아 전략산업 분석: 의료관광 -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
신장섭

- 10-36 동남아 전략산업 분석: 신·재생에너지 - 우리나라와의 협력방안모색 / 배정환
- 10-37 한·중미 개발협력방안 연구 / 김영철·구경모·김유경·박종욱
- 10-38 한·중미 중소기업협력 확대방안 / 문남권·우제량
- 10-39 한·중미 IT 산업협력 확대방안 / 최윤국
- 10-40 한·중미 녹색산업협력 확대방안 / 하상섭·정경원·손혜현
- 10-41 한국·베트남 환경교육협력방안 연구(Ⅰ):
공무원 환경교육 프로그램 작성 및 시범운영 /
김광임·박태윤·김윤정·Dinh Thai Hung 외
- 10-42 ASEAN 국가 교통인프라 수준진단을 통한 효과적 ODA 사업
추진방향 연구 / 이훈기·박지형·이동민·김종신·주유형
- 10-43 인도 동부지역 문화와 경제의 구조적 상관성 / 이광수 외
- 10-44 인도인의 공동체 의식 / 최종찬 외
- 10-45 인도의 산업발전전략과 이코노믹 거버넌스:
한국과 인도 간 경제협력 강화에 주는 교훈과 함의 / 장지호 외
- 10-46 인도인은 누구인가? - 요가사스트라로 본 그들의 정신세계 /
김순금·김미경
- 10-47 인도 지역사회와 경제특구에 대한 연구: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 이규태 외
- 10-48 인도의 외교안보정책과 한·인도 미래협력방안 연구 / 전재성 외
- 10-49 동남아에서 국가정체성의 구축과 성격: 국립박물관과 기념물을
중심으로 / 신윤환 외
- 10-50 동남아의 분리주의 운동과 갈등관리: 아세안(ASEAN)의 지역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 이동윤·김영일
- 10-51 ASEAN 후발 3개국(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의
사회경제개발역량 제고에 관한 기초연구 / 유재원 외
- 10-52 한국의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에 대한 인적자본 개발원조의 영향력
평가와 협동방안 연구 / 박인원 외
- 10-53 마약·조직범죄·해적 등 동남아의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지역적
협력방안 / 한용섭 외

- 10-54 아세안지역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ODA 협력방안 연구: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을 중심으로 / 황정태 외
- 10-55 대캄보디아 ODA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전략개발 연구 /
손혁상 · 유현석
- 10-56 2010년 총선 이후 미얀마 체제변동 전망과 그에 따른 한국의 진출
전략 / 장준영
- 10-57 중남미 원전산업의 발전과 한국 원전산업 진출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MBA(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국가를 중심으로 / 조희문 외
- 10-58 라틴아메리카 에너지와 환경 문제: 현황과 과제 / 전경수 외
- 10-59 중남미 의료시스템 개혁 연구 / 임상래 외
- 10-60 중남미 사회·문화적 코드와 방송영상산업의 소비 패턴 연구:
'한류'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한 제언 / 정경원 외
- 10-61 한·중·일 공기업 정책의 성과와 변천 / 정형곤 외
- 10-62 베트남 미디어의 대한민국 이미지 개선 방안:
『년전지』와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 송정남 · 이강우 · 김성한
- 10-63 아세안 주요 2개국(베트남, 인니)의 노동시장 현황과 변화 전망 /
이홍식 · 김형주
- 10-64 동남아시아 이슬람 국가의 문화콘텐츠산업 시장 특성 및
성장가능성 전망: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
정영규 · 정선화

이 응(李 雄)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경제학 박사
캐나다 University of Regina 조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
(現, E-mail: wlee@kiep.go.kr)

저서 및 논문

Essays on Public and Private Employment Agencies in the United States, 1890-1940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2009)

“Private Deception and the Rise of Public Employment Offices in the United States,
1890-1930” (David Autor ed. Studies of Labor Market Intermedia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9) 외

최호상(崔浩祥)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국제금융센터 연구위원(現, E-mail: hschoi@kcif.or.kr)

저서 및 논문

『한국산업의 생산성 분석』(2000)

『은행산업의 구조변화와 경쟁도 분석』(2007) 외

정무섭(鄭武燮)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

일본 히토츠바시대학 경제연구소 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연구실 수석연구원(現, E-mail: moosup.jung@samsung.com)

저서 및 논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 경쟁력 추격 연구: 신흥국·선진국 기업간 비교 분석」

(공저, 『POSRI 경영연구』, 10권 2호, 2010)

『EMGC와 신흥국 경제성장: 플래그십 기업을 중심으로』(2011) 외

서대교(徐大教)

미국 Kansas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

예금보험공사 연구위원(現, E-mail: dkseo@kdic.or.kr)

저서 및 논문

"The Impact of Incentive Regulation on Productivity in the U.S.

Telecommunication Industry: A Stochastic Frontier Approach"(공저, *Information Economics and Policy*, Vol. 23, 2011) 외

연구자료 11-31

한·인도 금융산업 협력 확대방안: 은행, 증권, 보험

2011년 12월 20일 인쇄

2011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책육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

전화: 3460-1142 FAX: 3460-1144

인쇄 서울기획문화사 전화 2272-1533

등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ISBN 978-89-322-2268-4 94320 정가 7,000원
978-89-322-2064-2 (세트)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專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계간) 대외경제연구	1만 5천원		1만 2천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137-747 서초구 양재대로 24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정보실 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2) 3460-1179 FAX: 02) 3460-1144
 E-mail: sklee@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난에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관회원 <input type="checkbox"/>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개인회원 <input type="checkbox"/>		
연구자회원 <input type="checkbox"/>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